

삼국연의

三國演義 · 모종강본

제3권 (제25회 ~ 제36회)

나관중 (羅貫中, 약 1330-1400)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2

책 정보

원전

나관중 『삼국연의(三國演義)』 모종강본(毛宗崗本, 1660년대 청대),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三國演義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2

번역 정책

- 인명·지명·관직은 한국 한자음(劉備 → 유비, 涿郡 → 탁군)

- 자·호·별명은 본명으로 통일(玄德 → 유비, 翼德 → 장비, 雲長 → 관우)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 "且說" → "한편"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25회 — 토산에 주둔하며 관우가 세 가지 약속을 하고, 백마에서 조조를 구해 포위망을 풀다	6
제26회 — 원본초가 군사를 패하고 장수를 잃으며, 관운장이 인장을 걸고 금을 봉한다	26
제27회 — 미염공이 천 리를 홀로 달리고, 한수후가 다섯 관문을 지나 여섯 장수를 베다	43
제28회 — 채양 형제를 베어 의심을 풀고, 고성에서 주신이 의를 모으다	64
제29회 — 소패왕이 노하여 우길을 베고, 벽안아가 강동을 다스리다. 85	
제30회 — 관도를 전투하여 본초가 패하고, 오소를 습격하여 맹덕이 군량을 태우다	104
제31회 — 조조가 창정에서 본초를 격파하고, 유현덕은 형주에서 유표에게 의탁하다	126
제32회 — 기주를 빼앗으려 원상이 다투고, 장하에서 허유가 계책을 바치다	145
제33회 — 조비가 혼란을 틈타 견씨를 맞이하고, 곽가가 유지를 남겨 요동을 평정하다	165
제34회 — 채부인이 병풍 너머로 밀어를 듣고, 유황숙이 말을 달려 단계를 건너다	185

제35회 — 헌덕이 남장에서 은둔자를 만나고, 단복이 신야에서 영웅을 만나다	203
제36회 — 유덕이 계책을 써서 번성을 습격하고, 원직이 말을 달려 제 갈량을 추천하다	218

제25회 — 토산에 주둔하며 관우가 세 가지 약속을 하고, 백마에서 조조를 구해 포위망을 풀다

屯土山關公約三事 救白馬曹操解重圍

한편, 정욱이 계책을 올리며 말했다. "관우는 만 명의 적을 상대할 만큼 용맹하니, 지략을 쓰지 않고서는 그를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유비 휘하에서 항복한 병사들을 하비로 보내 관우를 만나게 하십시오. 그들은 도망쳐 돌아온 병사라고 거짓말을 하여 성안에 잠입해 내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관우를 밖으로 끌어내 싸움을 붙인 뒤, 일부러 패하는 척하며 유인하십시오. 관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정예병을 보내 돌아가는 길을 차단한 다음, 그때 항복을 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는 이 계책을 듣고 즉시 서주에서 항복한 병사 수십 명을 보내 하비로 직행하게 하여 관우에게 항복하게 했다. 관우는 그들이 예전에

함께 싸웠던 병사들이라고 생각하여 의심하지 않고 성안에 머물게 했다.

다음 날, 하후돈이 선봉이 되어 군사 오천을 이끌고 싸움을 걸어왔다. 관우가 성 밖으로 나오지 않자, 하후돈은 성 아래에서 사람을 시켜 옥설을 퍼부으며 모욕했다. 이에 크게 분노한 관우는 삼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하후돈과 맞붙었다. 열 합 남짓 싸우던 중 하후돈이 말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관우가 뒤쫓아 나가자 하후돈은 싸우면서도 계속 도망쳤다. 관우가 이십 리 가까이 뒤쫓다 보니 하비성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병사들을 이끌고 곧장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포성 소리가 들리더니, 왼쪽에서는 서황이, 오른쪽에서는 허저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다. 관우가 다른 길로 빠져나가려 하자 양쪽 매복병들이 쇠뇌 백 장을 펼쳐 들고 화살을 쏘아댔는데, 그 기세가 마치 날아다니는 메뚜기 떼 같았다. 관우는 이를 뚫고 지나가지 못하자 병사들을 멈춰 세우고 다시 돌아서 싸웠으나, 서황과 허저가 맞서 싸워왔다. 관우가 온 힘을 다해 두 사람을 물리치고 다시 하비로 돌아가려 하자, 이번에는 하후돈이 또 나타나 앞길을 막고 싸움을 걸어왔다.

관우는 전투가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돌아갈 길이 막막해졌다. 결국 근처에 있는 토산 하나를 발견하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산 정상에 진을 친 뒤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조조의 군사들은 토산을 겹겹이 에워쌌다. 관우가 산 위에서 멀리 하비성을 바라보니 성안에서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였다. 거짓으로 항복한 병사들이 몰래 성문을 열어주었고,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성안으로 들이닥치며 불을 지르게 하여 관우의 마음을 어지럽히려 한 것이었다.

관우는 하비성에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마음이 몹시 놀라, 밤새 몇 번이나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가려 했으나 그때마다 빗발치는 화살에 맞아 되돌아와야 했다. 날이 밝아오자 다시 군사를 정돈해 산을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산 위로 달려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장료였다. 관우가 마중 나가며 물었다. "장료, 나를 공격하러 온 것인가?" 장료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옛 정을 생각하여 그저 얼굴이나 보러 왔을 뿐입니다." 그러고는 칼을 버려두고 말에서 내려 관우와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나눈 뒤 산 정상에 앉았다. 관우가 말했다. "장료, 설마 나를 설득하러 온 것인가?" 장료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형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으니, 오늘 제가 형님을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관우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장료, 자네가 나를 도우려는 것인가?" 장료가 말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관우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나를 돕는 것도 아니라면, 여기까지 무엇 하러 왔단 말인가?"

장료가 말했다. "유비는 지금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모르고, 장비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처지입니다. 어젯밤 조조 공께서 이미 하비성을 함락시키셨으나, 군사와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사람을 보내 유비의 가족들을 호위하게 하며 결코 놀라게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조조 공께서 이토록 대접해 주시니, 제가 특별히 형님께 소식을 전하러 왔습시다."

관우가 노하며 말했다. "이 말은 분명 나를 설득하려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비록 막다른 곳에 몰렸으나, 죽음을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다. 너는 어서 물러가거라. 내가 곧 산에서 내려가 맞서 싸우겠다."

장료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형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관우가 대답했다. "나는 충성과 의리를 지키다 죽는 것인데, 어찌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겠느냐?"

장료가 말했다. "형님께서 지금 돌아가신다면, 그 죄가 세 가지나 됩니다."

관우가 물었다. "그 세 가지 죄가 무엇인지 말해 보아라."

장료가 말했다. "예전에 유비가 형님과 의형제를 맺을 때, 생사를 함께하겠노라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비가 패하여 떠나버렸는데 형님이 전사한다면, 나중에 유비가 다시 나타나 형님의 도움을 구하려 해도 더는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 시절의 맹세를 저버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또한 유비는 가족들을 형님께 맡기고 떠났는데, 형님이 전사하신다면 두 부인께서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됩니다. 이는 유비가 맡긴 중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님은 무예가 뛰어나고 경전과 역사에도 밝으시니, 마땅히 유비와 함께 한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저 목숨을 거는 용맹함만 내세워 평범한 장수의 용기만을 증명하려 하니, 어찌 의롭다 할 수 있겠

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형님께는 이 세 가지 죄가 있으니, 동생 된 도리로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관우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네가 말하기를 나에게 세 가지 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냐?"

장료가 대답했다. "지금 사방이 모두 조조의 군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형님께서 항복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허무하게 죽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 차라리 조조에게 항복한 뒤에 유 사군(유비)의 소식을 알아보십시오. 유비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곧장 그에게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첫째로 두 부인을 보살필 수 있고, 둘째로 복숭아 밭에서 맺은 의형제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으며, 셋째로 몸을 보존하여 나중에 유비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점이 있으니 형님께서서는 부디 잘 생각해보십시오."

관우가 말했다. "형님은 세 가지 이점을 말씀하셨으나, 나에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소. 만약 승상이 내 조건을 들어준다면 즉시 갑옷을 벗고 항복하겠지만, 허락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세 가지 죄를 받고 죽겠소."

장료가 말했다. "승상은 도량이 넓고 너그러우신 분이랴 못 받아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세 가지 조건을 듣고 싶습니다."

관우가 대답했다. "첫째, 나는 황숙과 한실(漢室)을 함께 보필하기로 맹세했으니, 오직 한나라 황제께만 항복하는 것이지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요. 둘째, 두 형수님께는 황숙(유비)의 봉록을 지급하여 살림을 충당하게 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그 문 앞에

이르지 못하게 해 주시오. 셋째, 유 황숙의 행방을 알게 되면 천 리든 만 리든 가리지 않고 즉시 작별하고 떠나겠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니, 장료는 서둘러 돌아가 보고해 주시오."

장료가 승낙하고는 곧바로 말에 올라 조조에게 돌아가, 먼저 조조가 아닌 한나라에 항복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한나라의 승상이니, 한나라가 곧 나다. 그러니 그렇게 해도 괜찮다."

장료가 다시 말했다. "두 부인께서 황숙의 봉급을 청하려 하시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문 앞에 이르지 못하게 해달라 하십니다."

조조가 말했다. "황숙의 봉급은 내가 두 배로 늘려 주겠다. 다만 안팎을 엄격히 금하는 것은 집안의 법도이니, 무엇을 의심하겠느냐?"

장료가 또 말했다. "다만 유비의 소식을 알게 된다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반드시 그곳으로 갈 것이라 합니다."

조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관우를 길러 무엇에 쓰겠느냐? 그 일은 들어주기 어렵구나."

장료가 말했다. "예양이 말한 '몫사람(衆人)과 국사(國士)'의 논의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몫사람으로 대하면 몫사람으로 보답하고, 국사로 대하면 국사로 보답하는 법입니다. 유비가 관우를 대하는 것은 그저 두터운 은혜를 베푸는 것뿐이니, 승상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그 마음을 묶어두신다면 관우가 복종하지 않을 것을 어찌 걱정하시겠습니까?"

조조가 말했다. "장료의 말이 매우 옳다. 나도 그 세 가지 조건을 들어주겠다."

장료가 다시 올라가 관우에게 보고했다. 관우가 말했다.

"상황이 그러하니, 우선 승상께 군사를 물려달라고 전해주시오. 내가 성안으로 들어가 두 형수님을 뵙고 이 사실을 알려드린 후에 항복하겠습니다."

장료가 다시 돌아가 조조에게 이 말을 전했다. 조조는 즉시 명령을 내려 군사를 10리 밖까지 물러나게 했다. 이때 순욱이 말했다.

"안 됩니다. 혹시 속임수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조조가 대답했다.

"관우는 의로운 사람이라 결코 신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오."

말을 마친 조조는 군사를 물러나게 했다. 관우는 군사를 이끌고 하비성으로 들어갔다. 성안의 백성들은 평온하게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관우는 곧장 관청으로 가서 두 형수님을 뵈었다.

감씨 부인과 미씨 부인은 관우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마중을 나갔다. 관우가 계단 아래에서 절을 하며 말했다. "두 형수님을 놀라게 해 드렸으니, 이는 모두 저의 죄입니다." 두 부인이 물었다. "유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 시숙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관우가 대답했다. "제가 성 밖으로 나가 죽기로 싸우다 토산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료가 항

복을 권하길래, 제가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조조가 그 조건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하여 군사들을 물리고 저를 성 안으로 들여보내 준 것입니다. 형수님들의 의견을 여쭙지 못하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두 부인이 그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묻자, 관우는 앞서 말한 세 가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자 감씨 부인이 말했다. "어제 조조의 군대가 성에 들어왔을 때, 저희는 모두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군사들이 감히 성 안으로 발을 들이지도 않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시숙께서 이미 약속을 받아들이셨다면 어찌 저희 두 사람의 의견을 묻겠습니까? 다만 나중에 조조가 황숙(유비)을 찾아 떠나려는 시숙(관우)을 용납하지 않을까 봐 그것이 걱정될 뿐입니다." 관우가 말했다. "형수님께서서는 안심하십시오. 저에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미씨 부인도 거들었다. "시숙께서 알아서 처신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일을 저희 같은 여자들에게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우가 작별을 고하고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린 채 조조를 찾아갔다. 조조는 직접 막사 밖으로 나가 그를 맞이했다. 관우가 말에서 내려 절을 올리자, 조조는 황급히 답례했다. 관우가 말했다. "패배한 장수로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신 은혜가 참으로 깊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평소 관우의 충의를 흠모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니 평생의 소망을 이룬 듯 기쁩니다." 관우가 말했다. "장료가 대신 전한 세 가지 부탁을 승상께서 흔쾌히 들어주셨으니, 부디 약속을 어기지 않으리라 믿겠습니다." 조조가 답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을 어찌 저버리겠습니까?" 관우가 다시 말했다. "만약 제가 유비가 있는 곳을 알게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그를 따르겠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작별 인사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조조가 말했다. "유비가 살아 있다면 반드시 공을 보내드리겠소. 다만 난전 중에 목숨을 잃었을까 걱정될 뿐이요. 그러니 마음을 놓으시고, 차차 수소문해 보도록 합시다."

관우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자, 조조는 잔치를 베풀어 정성껏 대접했다. 다음 날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허창으로 돌아갔다. 관우는 짐을 챙겨 정리한 뒤, 두 형수를 수레에 태우고 직접 수레를 호위하며 길을 떠났다. 길을 가다 역관에서 쉬어가게 되었을 때, 조조는 군신 간의 예법을 어지럽히려는 속셈으로 관우와 두 형수가 한 방을 쓰도록 만들었다. 그러자 관우는 문밖에 촛불을 켜고 선 채로 밤부터 새벽까지 한결같이 자리를 지켰으며, 조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조조는 관우의 이런 모습을 보고 더욱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마침내 허창에 도착하자 조조는 관우가 머물 수 있도록 관청 하나를 내주었다. 관우는 그 저택을 두 채로 나누어, 안채에는 노병 열 명을 배치해 지키게 하고 자신은 바깥채에 머물렀다. 조조는 관우를 데리고 헌제를 알현하게 했고, 헌제는 관우에게 편장군이라는 직위를 내렸다. 관우는 은혜에 감사를 표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조조는 다음 날 큰 잔치를 베풀어 모든 책사와 무장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관우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며 상석으로 모셨고, 비단과 금은보화가 담긴 그릇들을 선물로 보냈다. 관우는 이 모든 것을 두 형수에게 주어 보관하게 했다. 관우가 허창에 온 뒤로 조조는 그를 극진히 대접했다. 작은 잔치는 사흘 동안, 큰 잔치는 닷새 동안 계속되었으며, 미녀 열 명을 보내 관우를 모시게 했다. 그러나 관우는 그들을 모두

안채로 들여보내 두 형수를 모시게 했다. 그러고도 사흘에 한 번씩 안채를 찾아가 정중히 예를 갖추며 형수들의 안부를 물었다. 두 형수가 유비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답한 뒤, "삼촌께서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자 그제야 관우는 물러날 수 있었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듣고도 관우의 절개에 감탄하며 그를 존경할 뿐이었다.

어느 날, 조조는 관우가 입고 있는 초록색 비단 전포가 낡은 것을 보고, 그의 몸 치수를 재어 그에 딱 맞는 화려한 비단 전포를 한 벌 만들어 선물했다. 관우는 전포를 받아들였으나, 그것을 옷 안쪽에 받쳐 입고 그 위에는 여전히 예전의 낡은 전포를 덧입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관우는 어찌 이리도 검소한가?"

관우가 대답했다. "제가 검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낡은 전포는 유비 형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입고 있으면 마치 형님을 뵈는 것 같아, 승상께서 새로 주신 귀한 옷을 입으면서 형님께서 예전에 주신 정성을 잊을까 두려워 그 위에 덧입는 것입니다."

조조가 감탄하며 말했다. "참으로 의로운 선비로구나!"

하지만 조조는 입으로는 칭찬하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

어느 날 관우가 관아에 있는데, 갑자기 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안채에서 두 부인께서 땅에 쓰러지듯 울고 계십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니, 어서 장군께서 들어가 보셔야겠습니다." 관우는 즉시 의관을 정제하고 안채 문밖에서 무릎을 꿇은 채, 두 형수님이 왜 이토록 슬피 우시

는지 물었다. 그러자 감부인이 말했다. "밤에 꿈을 꾸었는데, 유비 숙부가 땅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깨어나서 미부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아무래도 저승으로 가신 듯하여 슬픈 마음에 울고 있었습니다." 관우가 말했다. "꿈속에서 본 일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형수님께서 유비 형님을 너무나 그리워하시다 보니 꿈을 꾸신 것이니, 부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한편, 마침 조조가 사자를 보내 관우를 연회에 초대했다. 관우는 두 형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조를 만나러 갔다. 조조는 관우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관우가 대답했다. "두 형수님께서 형님을 그리워하며 통곡하시는데, 어찌 제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조조는 웃으며 관우를 달래고 연신 술을 권했다. 관우는 술에 취하자 스스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살아서 나라에 보답하지도 못하고 형님을 등졌으니, 그저 헛되이 사람 노릇만 하는 셈입니다!" 조조가 물었다. "관우, 그대의 수염이 몇 가닥이나 되는가?" 관우가 답했다. "대략 수백 가닥 정도 됩니다. 가을철이면 서너 가닥씩 빠지곤 합니다. 겨울에는 수염이 끊어질까 걱정되어 검은 비단 주머니에 싸서 보관합니다." 조조는 즉시 비단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관우에게 수염을 보호하라고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조회에서 황제를 알현할 때였다. 헌제가 관우의 가슴에 비단 주머니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인지 물었다. 관우가 아뢰었다. "신은 수염이 꽤 길어, 승상께서 이를 보관하라고 주머니를 하사하셨나이다." 헌제가 어전에서 그 수염을 풀어 늘어뜨려 보게 하니 관우의 배 근처까지 내려왔다. 헌제가 말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수염을 가진 공이로구나!" 이때부터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미염공'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가 관우를 불러 연회를 베풀었다. 연회가 끝나고 조조가 관우를 배웅하려는데, 관우의 말이 수척해진 것을 보고는 물었다. "관우 형님, 말의 모습이 어찌 이리 수척해졌습니까?" 관우가 대답했다. "제 몸이 워낙 무거워 말이 감당하기 버거운 탓에 자주 여위곤 합니다." 조조는 즉시 좌우에 명하여 말 한 마리를 준비하게 했다. 잠시 후 말이 끌려왔는데, 그 말은 마치 불덩이처럼 붉고 모습이 매우 위엄이 있었다. 조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말을 알아보시겠습니까?" 관우가 말했다. "혹시 여포가 타던 적토마가 아납니까?" 조조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조조는 곧바로 말안장과 고삐를 갖추어 관우에게 선물로 주었다. 관우는 두 번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자 조조는 기분이 언짢아져 말했다. "내가 그동안 미녀와 금은보화를 거듭 선물했을 때는 한 번도 절하지 않더니, 이제 말을 선물하니 기뻐하며 두 번이나 절을 하는구려. 어찌 사람보다 짐승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오?" 관우가 말했다. "이 말이 하루에 천 리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얻었으니, 만약 형님(유비)의 소식을 알게 된다면 단 하루 만에 형님을 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깜짝 놀라 후회했다. 관우는 그대로 작별을 고하고 떠났다. 훗날 사람들이 시를 지어 탄식하기를 다음과 같았다.

"삼국을 뒤흔든 영웅의 위엄, 한 집에서 나누어 살며 의리를 높였네.
간사한 재상이 헛된 예우로 대접하려 했으나, 관우가 조조에게 굴복하지 않을 줄 어찌 알았으랴."

조조가 장료에게 물었다. "내가 관우를 아주 극진히 대접했는데도, 저 사람은 어찌하여 늘 떠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인가?"

장료가 대답했다. "제가 직접 가서 그 속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장료가 관우를 찾아가 인사를 나누었다. 예법을 마친 뒤 장료가 말했다. "제가 형님을 승상께 추천한 덕분에 이곳에서 대접을 아주 잘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우가 말했다. "승상의 두터운 은혜에는 깊이 감사하고 있네. 다만 내 몸은 비록 이곳에 있으나 마음은 늘 유비 형님을 향하고 있을 뿐, 떠나겠다는 마음을 품은 적은 없네."

장료가 말했다. "형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세상일을 대할 때 경중을 가리지 못한다면 장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비가 형님을 대접하는 것이 승상보다 못할 리 없는데, 어찌하여 떠날 생각만 하십니까?"

관우가 대답했다. "조조 공이 나를 매우 후하게 대접해 주신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네. 하지만 나는 유비 형님께 큰 은혜를 입었기에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했으니, 그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네. 나는 결국 이곳에 머물지 않을 것이네. 반드시 공을 세워 조조 공께 보답한 뒤에야 떠날 것이네."

장료가 다시 물었다. "만약 유비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형님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관우가 말했다. "그저 저승에서 그를 따를 뿐이네."

장료는 관우를 더는 붙잡아 둘 수 없음을 깨닫고 작별을 고한 뒤, 조조에게 돌아가 모든 사실을 상세히 보고했다. 조조가 탄식하며 말했다

다. "주군을 섬기면서도 그 근본을 잊지 않으니, 참으로 천하의 의사로 다!" 그러자 순욱이 말했다. "저분은 공을 세운 뒤에 떠나겠다고 했으니, 만약 공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대로 떠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조조가 그 말에 옳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유비는 원소의 진영에 머물며 밤낮으로 근심에 잠겨 있었다. 원소가 물었다. "유비는 어찌하여 이토록 자주 근심에 차 있는 것이오?" 유비가 대답했다. "둘째 동생은 소식을 알 길이 없고, 아내와 아이들은 조조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가족을 지키지 못하니,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소가 말했다. "나도 진작부터 군사를 일으켜 허창으로 진격하고 싶었소. 마침 지금은 날씨가 따뜻한 봄이니, 군사를 일으키기에 딱 좋은 때요." 말을 마친 두 사람은 조조를 격파할 계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때 전풍이 간언했다. "전에 조조가 서주를 공격했을 때는 허창이 비어 있었으니 그때 진격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주가 함락되었고 조조의 군사도 기세가 날카로우니, 함부로 적을 앞보아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오래 버티며 기다리다가, 적에게 빈틈이 생겼을 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원소가 말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그러고는 유비에게 물었다. "전풍은 내게 성을 굳게 지키라고 권하던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유비가 대답했다. "조조는 황제를 속인 역적입니다. 만약 명공께서 그를 치지 않으신다면, 천하의 큰 의를 저버리는 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원소가 말했다. "유비의 말이 아주 옳소."

원소가 드디어 군사를 일으키려 하자 전풍이 다시 간언했다. 그러자 원소가 화를 내며 꾸짖었다. "그대들은 글공부만 할 줄 알지 무예는 모르니, 나로 하여금 큰 의리를 저버리게 만드는구나!"

전풍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만약 신의 어진 말을 듣지 않으신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소는 크게 노하여 전풍을 처형하려 했다. 유비가 힘써 만류한 덕분에 전풍은 죽음을 면했으나 옥에 갇히고 말았다. 저수는 전풍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그의 일가친척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집안의 재산을 전부 나누어 주며 전풍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저수가 말했다. "저도 군대를 따라가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위엄을 떨치겠지만, 지게 되면 제 목숨조차 보장할 수 없겠지요!"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저수를 배웅했다.

원소는 대장 안량을 선봉으로 삼아 백마를 공격하게 했다. 저수가 간언했다. "안량은 성격이 좁고 편협하여 아무리 용맹하다 한들, 홀로 임무를 맡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원소가 말했다. "내 휘하의 상장은 너희 같은 자들이 함부로 가늠할 수 있는 이가 아니다."

대군이 여양까지 진격하자, 동군 태수 유연이 허창에 급박한 구원 요청을 보냈다. 조조는 급히 회의를 열어 군사를 일으켜 적을 막기로 결정했다. 관우가 이 소식을 듣고 상부로 찾아가 조조에게 말했다. "승상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조조가 대답했다. "장군을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

다. 조만간 일이 생기면 반드시 다시 청하겠습니다." 관우는 이 말을 듣고 물러났다.

조조는 15만 군사를 이끌고 세 방향으로 나누어 행군했다. 길을 가던 중 유연의 급보를 다시 받은 조조는, 먼저 5만 군사를 직접 이끌고 백마로 달려가 토산에 기대어 진을 쳤다. 산 앞의 넓고 평탄한 벌판을 멀리 바라보니, 안량의 선봉 정예병 10만이 이미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었다. 조조는 깜짝 놀라며, 여포의 옛 부하였던 송헌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대가 여포 휘하의 용맹한 장수라고 들었소. 지금 안량과 한번 싸워보겠소?"

송헌은 명을 받들고 창을 든 채 말을 달려 진영 앞으로 나갔다. 안량이 말 위에 올라 칼을 옆에 차고 문 아래 서 있다가, 송헌의 말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크게 호통을 치며 말을 달려 맞이했다. 둘은 채 세 합도 겨루지 못하고 안량이 칼을 휘두르자, 송헌은 진영 앞에서 목이 잘려 죽고 말았다.

조조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정말 용맹한 장수로구나!"

그러자 위숙이 "저놈이 내 동료들을 죽였으니, 가서 복수하겠습니다!"라고 외쳤다. 조조가 이를 허락하자, 위숙은 말을 타고 창을 든 채 곧장 진영 앞으로 나가 안량을 향해 크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안량은 아무 말도 없이 말 위에서 한 합을 겨루더니, 위숙의 머리를 향해 칼을 내리쳐 그를 말 아래로 떨어뜨려 죽였다.

조조가 다시 물었다. "이제 누가 저 자를 상대하겠느냐?"

그때 서황이 대답하며 앞으로 나아가 안량과 스무 합을 싸웠으나, 결국 패하여 본진으로 돌아왔다. 이를 본 장수들은 모두 겁에 질려 떨어졌다. 조조가 군사를 거두어들이자, 안량 또한 군대를 이끌고 물러갔다.

조조는 장수들이 연달아 패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몹시 무거웠다. 이때 정욱이 말했다. "저에게 안량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조조가 누구냐고 묻자 정욱이 대답했다. "관우가 아니면 안 됩니다." 조조가 걱정하며 말했다. "그가 공을 세우자마자 바로 떠나버릴까 두렵소." 그러자 정욱이 말했다. "만약 유비가 곁에 있다면 관우는 반드시 원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관우가 원소의 군대를 격파한다면, 원소는 분명 유비를 의심하여 죽이려 들 것입니다. 유비가 죽고 나면 관우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사람을 보내 관우를 청했다. 관우는 곧장 들어가 두 형수에게 작별을 고했다. 두 형수가 말했다. "서방님, 가시는 길에 부디 황숙의 소식을 알아봐 주세요."

관우가 약속을 하고는 청룡도를 들고 적토마에 올라타 몇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채 백마로 조조를 찾아갔다. 조조가 정중히 이유를 설명했다. "안량이 장수 두 명을 연달아 베어버리니 그 용맹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관우와 의논하고자 합니다." 관우가 말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조는 술을 차려 관우를 대접했다. 그때 갑자기 안량이 싸움을 걸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조조는 관우를 데리고 토산에 올라가 전황을 살폈다. 조조와 관우가 자리에 앉고 여러 장수가 그 주위를 에워쌌다. 조조가 산 아래 안량이 진을 친 모습을 가리켰다.

깃발은 선명하고 창과 칼이 뻑뻑하게 늘어서 있어 위엄이 넘치고 질서 정연했다. 조조가 관우에게 말했다. "북방의 군사와 말들이 이토록 웅장하구려!" 관우가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저 흙으로 만든 닭이나 기와로 만든 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조조가 다시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깃발 아래에서 빛나는 갑옷을 입고 칼을 든 채 말을 타고 서 있는 자가 바로 안량입니다." 관우가 눈을 들어 한 번 쓱 보더니 조조에게 말했다. "제가 보니 안량은 마치 머리를 팔려고 표식을 세워둔 것과 같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너무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제가 비록 재주가 부족하나, 만군의 진영 속으로 들어가 반드시 그 머리를 베어 승상께 바치겠습니다." 장료가 덧붙였다. "군대에서는 농담을 하지 않는 법이니, 관우께서는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관우는 기세 좋게 말에 올라 청룡언월도를 거꾸로 쥐고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눈을 부릅뜨고 눈썹을 치켜세운 채 적진을 향해 돌진하니, 북방의 군사들이 마치 파도가 갈라지듯 길을 내주었다. 관우는 곧장 안량을 향해 내달렸다. 안량은 막 자신의 깃발 아래에 머물고 있다가 관우가 돌진해 오는 것을 보고 상황을 물으려 했으나, 관우의 적토마가 워낙 빨라 이미 눈앞까지 들이닥친 뒤였다. 안량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관우의 칼날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졌다. 관우는 재빨리 말에서 내려 안량의 머리를 베어 말 안장 아래에 매달고는, 다시 말에 올라 칼을 휘두르며 적진을 누비니 마치 아무도 없는 곳을 다니는 듯했다. 북방의 장수와 병사들은 크게 놀라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다. 조조의 군대는 이 기세를 몰아 공격을 퍼부었고, 죽은 자는 셀 수 없이 많았으며 탈취한 말과 무기도 엄청났다. 관우가 말을 타고 산 위

로 올라오자 모든 장수가 일제히 축하를 보냈다. 관우가 조조 앞에 안량의 머리를 바치자 조조가 감탄하며 말했다.

"장군은 참으로 신인(神人)이십니다!"

관우가 대답했다.

"제 실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 동생 장비는 백만 대군 속에서도 장수의 머리를 베는 것을 마치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처럼 쉽게 해냅니다."

조조는 크게 놀라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앞으로 장비를 만나게 되면 절대 적을 얕보아서는 안 된다."

조조는 이 말을 잊지 않도록 옷소매 안쪽에 적어 두게 했다.

한편, 안량이 패하여 군사를 이끌고 도망치다 도중에 원소를 만났다. 안량은 붉은 얼굴에 긴 수염을 가진 장수가 용맹하게 말을 타고 진영으로 뛰어들어 자신을 베어버리는 바람에 대패했다고 보고했다. 원소가 깜짝 놀라 물었다.

"그자가 누구냐?"

그러자 저수가 대답했다.

"그자는 필시 유비의 의동생인 관우일 것입니다."

원소는 크게 분노하며 유비를 가리켜 말했다.

"네 동생이 나의 아끼는 장수를 베었으니, 너도 분명 미리 짠 것이겠구나! 너를 살려둘 이유가 없다!"

원소는 즉시 칼과 도끼를 든 병사들을 불러 유비를 끌어내어 처형하게 했다.

과연 처음에는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던 유비가, 이제는 죄수와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과연 유비의 목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6회 — 원본초가 군사를 패하고 장수를 잃으며, 관운장이 인장을 걸고 금을 봉한다

袁本初敗兵折將 關雲長掛印封金

한편, 원소는 유비를 죽이려 했다. 그러자 유비가 침착하게 나아가 말했다.

"명공께서는 한쪽 말만 듣고 그간 쌓아온 정을 끊으려 하십니까? 제가 서주에서 흩어진 뒤로 둘째 동생 관우가 살아 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천하에 얼굴이 닮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어찌 얼굴이 붉고 수염이 길다고 해서 모두 관우라고 단정 지으십니까? 명공께서 부디 다시 살펴봐 주십시오."

원소는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이었기에, 유비의 말을 듣자마자沮授를 꾸짖었다.

"네 말을 잘못 믿었다가 하마터면 좋은 사람을 죽일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다시 유비를 장막 안으로 불러 앉히고, 안량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때 장막 아래에 있던 한 사람이 대답하며 앞으로 나아와 외쳤다.

"안량은 저에게 형제와도 같은 분입니다. 이제 조조에게 살해당했으니, 제가 어찌 그 한을 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비가 그 사람을 살펴보니, 키는 8척에 얼굴은 해치(獬豸, 상상의 동물)처럼 용맹하게 생긴 하북의 명장 문초였다. 원소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문초, 자네가 아니면 안량의 원수를 갚을 수 없겠군. 내가 10만 군사를 줄 테니, 즉시 황하를 건너 조조를 추격해 죽여버리게!"

그러자 저수가 만류하며 말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연진에 군사를 머물게 하며 관도를 나누어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경솔하게 강을 건넜다가 변이라도 생기면, 군사들이 모두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원소가 화를 내며 꾸짖었다. "모두 너희가 군심을 늦추고 시간을 끌며 큰일을 방해하려 하는구나! '전쟁에서는 신속함이 가장 귀하다'는 말을 못 들었느냐?"

저수가 물러나며 탄식했다. "윗사람은 뜻만 높고 아랫사람은 공을 세우기에만 급급하니, 저 넓은 황하를 내가 어찌 건널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결국 병을 핑계로 대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비가 말했다. "제가 큰 은혜를 입었으나 보답할 길이 없으니, 문장군과 함께 길을 떠나고 싶습니다. 첫째는 원소 주공의 덕을 기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관우의 생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원소는 이 말이 마음에 들어 문초를 불러 유비와 함께 앞장서서 군사를 이끌게 했다. 그러자 문초가 말했다. "유비는 여러 번 싸워 패한 적이 있는 장수라 군사에 불리합니다. 주공께서 그를 보내려 하시니, 제게 3만 군사를 나누어 주어 그를 후방 부대로 맡기겠습니다."

그리하여 문초는 직접 7만 군사를 이끌고 앞장서 나갔고, 유비에게는 3만 군사를 주어 그 뒤를 따르게 했다.

한편, 조조는 관우가 안량을 빼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더욱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조조는 즉시 조정에 보고하여 관우를 한수정후로 봉하고, 관인을 주조하여 관우에게 보냈다. 이때 원소가 다시 대장 문초를 보내 황하를 건너게 했으며, 문초의 군사가 이미 연진을 점거했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조조는 먼저 사람을 보내 주민들을 서하로 옮기게 한 뒤, 직접 군사를 이끌고 맞서 나갔다. 조조는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려, 후군을 전군으로 삼고 전군을 후군으로 삼으며, 군사보다 식량을 앞세워 이동하게 했다. 여건이 "식량을 앞세우고 군사를 뒤에 두다니, 무슨 뜻입니까?"라고 묻자, 조조가 대답했다. "식량이 뒤에 있으면 약탈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앞에 두는 것이다." 여건이 다시 "만약 적군을 만나 식량을 빼앗기면 어찌합니까?"라고 묻자, 조조는 "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보라. 그때 가서 대처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건은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조조는 명령을 내려 식량과 군수 물자를 황하를 따라 연진까지 옮기게 했다. 조조가 후군에 머물고 있을 때, 전군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조조가 급히 사람을 보내 상황을 살피게 하니, 보고가 올라왔다. "하북의 대장 문초의 군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모두 식량과 군수 물자를 버려둔 채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고 있습니다. 후군은 너무 멀리 있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조조가 채찍으로 두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곳으로 잠시 피하면 된다." 인마가 급히 언덕으로 달려갔다. 조조는 군사들에게 모두 옷과 갑옷을 벗고 잠시 쉬게 하며, 말들을 전부 풀어놓으라고 명령했다. 문초의 군사가 몰려왔다. 장수들이 외쳤다. "적이 왔습니다! 어서 말들을 챙겨서 백마로 후퇴해야 합니다!" 그러자 순유가 급히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적을 유인할 좋은 기회인데, 어찌하여 퇴각하려 하십니까?" 조조가 급히 순유를 향해 눈짓하며 웃어 보였다. 순유는 조조의 뜻을 알아차리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문초의 군사들이 식량 수레와 짐을 차지하려다 말고 이번에는 말까지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군사들이 대열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뒤엎쳐 난리법석을 떨었다. 이때 조조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흙언덕 아래로 일제히 내려가 공격하게 하니, 문초의 군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조조의 군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문초는 홀로 나서서 맞서 싸웠다. 하지만 아군 군사들이 서로 밟고 뭉개며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문초는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말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언덕 위에서 조조가 가리키며 말했다. "문초는 하북의 명장이다. 누가 저 자를 사로잡겠느냐?"

그러자 장료와 서황이 말을 달려 앞장서 나가며 크게 외쳤다. "문초, 거기 서라!"

문초가 고개를 돌려 두 장수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는 철창을 고쳐 잡더니, 활을 들어 화살을 먹이고는 곧장 장료를 향해 쏘았다. 서황이 크게 소리쳤다. "적장을 향해 화살을 쏘지 마라!"

장료가 급히 고개를 숙여 피했으나, 화살 하나가 투구에 명중하여 투구 장식을 날려버렸다. 장료가 힘껏 다시 뒤쫓는데, 이번에는 문초가 쏜 화살이 장료가 타고 있던 말의 얼굴에 맞았다. 그 말이 앞다리를 꿇으며 쓰러지는 바람에 장료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문초가 말을 돌려 다시 돌아오자, 서황이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앞을 가로막고 맞서 싸웠다. 그런데 문초의 뒤를 이어 적군이 일제히 몰려오는 것을 보고, 서황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말을 돌려 후퇴했다. 문초가 강을 따라 추격해 오던 그때, 갑자기 십여 명의 기병이 깃발을 휘날리며 나타났다. 그 선두에서 칼을 든 장수가 말을 타고 번개처럼 달려왔으니, 바로 관우였다. 관우가 크게 호통을 쳤다. "적장을 멈추어라!" 관우가 문초와 맞붙어 싸운 지 채 세 합도 되지 않아 문초는 겁을 먹고 말을 돌려 강가를 따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우의 말이 워낙 빨라 문초를 금방 따라잡았고, 관우가 휘두른 칼날이 문초의 뒷덜미를 내리치자 문초는 그대로 말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조조는 관우가 문초를 베는 것을 보고 즉시 군사를 몰아 적들을 몰아붙였다. 하북군은 대부분 강물에 빠져 죽었고, 식량과 말들마저 조조의 손에 다시 넘어갔다.

관우가 몇 기의 말을 이끌고 동서로 거침없이 돌진하며 싸우고 있을 때, 마침 유비가 삼만 군사를 거느리고 뒤따라 도착했다. 앞서 정찰하던 초병이 유비에게 달려와 보고했다. "이번에도 붉은 얼굴에 긴 수염을 가진 장수가 문초를 베풀었습니다!" 유비가 급히 말을 몰아 달려가 보니, 강 건너편에서 한 무리의 군사들이 날아다니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깃발에는 '한수정후 관우'라는 일곱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유비는 속으로 천지에 감사하며 말했다. "내 동생이 과연 조조의 휘하에 있구나!" 유비가 그들을 불러 만나려 했으나, 조조의 대군이 몰려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야 했다. 한편, 원소는 관도에서 응전하기 위해 진영을 구축했다. 이때 곽도와 심배가 원소를 찾아가 말했다. "이번에도 관우가 문초를 죽였는데, 유비는 모르는 척하며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원소는 크게 노하여 꾸짖었다. "저 대이(大耳) 도둑놈이 감히 나를 이렇게 속이다니!"

잠시 후 유비가 도착하자, 원소는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그를 끌어내 처형하려 했다. 유비가 물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원소가 말했다. "네가 일부러 네 의형제를 시켜 나의 장수 한 명을 또 죽였는데, 어찌 죄가 없단 말이냐?" 유비가 대답했다. "죽기 전에 제 말을 한번만 들어주십시오. 조조는 평소 저를 경계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명공의 휘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제가 명공을 도울까 두려워한 나머지 일부러 관우를 보내 장수 두 명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명공께서 화를 내실 줄 알았기에, 조조가 명공의 손을 빌려 저를 죽이려 한 것이니 부디 명공께서는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원소가 말했다. "유비의 말이 옳다. 너희들이 하마터면 나를 어진 이를 해치는 사람으

로 만들 뻔하지 않았느냐.” 원소는 좌우의 부하들을 꾸짖어 물러나게 한 뒤, 유비를 자신의 막사 안으로 모셔 앉혔다.

유비가 감사하며 말했다. "명공의 너그러운 은혜를 입었으나 이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 밀서를 보내 관우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유비의 소식을 듣는다면 그는 반드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와 명공을 보좌하며, 조조를 함께 물리쳐 안량과 문초의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어떠하옵니까?"

원소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관우를 얻는다면, 안량과 문초를 얻는 것보다 열 배는 더 큰 이득이다."

유비는 서신을 써 내려갔으나, 아직 그것을 전달할 사람이 없었다. 원소는 군대를 무양으로 물러나게 하여 수십 리에 걸쳐 진영을 치고 군사를 움직이지 않은 채 대기하게 했다.

한편, 조조는 하후돈에게 군사를 맡겨 관도의 요충지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군사를 돌려 허도로 돌아갔다. 조조는 모든 관리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며 관우의 공을 축하했다. 그러면서 여건에게 말했다. "예전에 내가 식량을 앞세웠던 것은 적을 유인하기 위한 계책이었다. 오직 순유만이 나의 속마음을 알아주었구나."

모두가 조조의 지략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창 연회가 무르익어가던 그때, 갑자기 급보가 전해졌다. "여남에 황건적 잔당인 유벽과 공도가 나타나 매우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조홍이 여러 번 싸웠으나 승산이 없으니, 부디 병력을 보내 구원해 주십시오."

시오." 이 소식을 들은 관우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제가 힘을 보태 여남의 도적들을 소탕하겠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관우는 큰 공을 세웠음에도 아직 충분히 보답하지 못했는데, 어찌 다시 전쟁터로 내몰 수 있겠소?" 관우가 대답했다. "제가 오랫동안 쉬기만 하면 반드시 병이 생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조조는 그의 용맹함에 감탄하여 병사 5만 명을 내어주고 우금과 악진을 부장으로 삼아 다음 날 바로 출정하게 했다. 이때 순욱이 조조에게 은밀히 말했다. "관우는 유비에게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유비의 소식을 듣게 되면 반드시 떠날 것이니, 너무 자주 출정하도록 시켜서는 안 됩니다." 조조가 말했다. "이번에 공을 세우고 나면 다시는 적을 상대하게 하지 않겠소."

한편, 관우가 군사를 이끌고 여남 근처에 이르러 진영을 구축했다. 그날 밤, 진영 밖에서 첩자 두 명을 붙잡아 왔다. 관우가 살펴보니 그중 한 명은 손건이었다. 관우는 좌우의 부하들을 물려나게 한 뒤 손건에게 물었다.

"자네는 무리가 흩어진 뒤로 소식이 전혀 없었는데, 어찌하여 이곳에 있는 것인가?"

손건이 대답했다.

"피난을 다니며 여남 근처를 떠돌다가 다행히 유백의 도움을 받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조조의 휘하에 계십니까? 감부인과 미부인 두 분은 무사하신지요?"

관우는 앞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손건이 말했다.

"최근 유비께서 원소의 휘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께 가고 싶어 하셨으나 아직 기회를 잡지 못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마침 유벽과 공도 두 사람이 원소에게 귀순하여 조조를 공격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군께서 이곳에 오셨기에, 유벽이 특별히 소수의 군사로 길을 안내하게 하고 저를 첩자로 삼아 장군께 소식을 전하러 보낸 것입니다. 내일 저희가 일부러 패배하는 척하며 후퇴할 테니, 장군께서는 즉시 두 부인을 모시고 원소에게 가서 유비와 재회하십시오."

관우가 말했다.

"형님이 원소의 휘하에 계시다면 나는 반드시 밤을 도와 달려가겠소. 다만 내가 원소의 장수 두 명을 베었으니, 혹시 일이 틀어지지 않을지 걱정이구려."

손건이 대답했다.

"제가 먼저 가서 적의 허실을 살핀 뒤 다시 장군께 보고하겠습니다."

관우가 말했다.

"형님을 한 번 뵈 수만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소. 이번에 허도로 돌아가면 곧바로 조조에게 작별을 고할 것이오."

그날 밤, 관우는 몰래 손건을 떠나보냈다.

다음 날, 관우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자 공도가 갑옷을 갖춰 입고 진을 쳤다. 관우가 말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조정에 반기를 드는 것이

냐?" 공도가 대답했다. "그대야말로 주군을 배신한 자인데, 어찌 나를 꾸짖는단 말시오?" 관우가 다시 물었다. "내가 어찌 주군을 배신했단 말이나?" 공도가 말했다. "유비는 원소의 휘하에 있는데, 그대는 조조를 따르고 있으니 어찌 된 일시오?" 관우는 더 대꾸하지 않고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앞으로 돌격했다. 공도가 달아나자 관우가 뒤쫓았다. 공도가 몸을 돌려 관우에게 말했다. "옛 주군에 대한 은혜는 잊을 수 없소. 그대는 어서 진격하시오. 여남은 내어주겠소." 관우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군사를 몰아 몰아붙였다. 유백과 공도 두 사람은 거짓으로 패배하는 척하며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관우는 주와 현을 탈환하고 백성들을 안심시킨 뒤, 군사를 이끌고 허창으로 돌아갔다. 조조는 성 밖으로 마중 나가 군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상을 내렸다.

연회가 끝나고 관우가 집으로 돌아와 문밖에서 두 형수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다. 그러자 감부인이 물었다.

"아우님, 두 번이나 군사를 이끌고 나가셨는데 혹시 유비의 소식을 아시나요?"

관우가 대답했다.

"아직 모릅니다."

관우가 물러가자, 두 부인은 방 안에서 통곡하며 말했다.

"아무래도 유비에게 큰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관우가 우리 자매가 걱정할까 봐 차마 말을 못 하는 것이 분명해요."

한창 통곡하고 있을 때, 수행하던 한 늙은 병사가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자 문밖에서 이렇게 고했다. "부인, 그만 울음을 거두십시오. 주인님은 지금 하북의 원소 휘하에 계십니다." 부인이 물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병사가 대답했다. "관 장군님을 따라 출정했는데, 진영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감부인은 급히 관우를 불러 꾸짖었다. "황숙께서는 한 번도 당신을 저버린 적이 없는데, 당신은 지금 조조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옛 의리를 단번에 잊어버린 것입니까? 어찌하여 사실대로 내게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관우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형님은 지금 하북에 계십니다. 형수님께서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혹여 소문이 새어 나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일은 천천히 도모해야 하는 법이니,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감부인이 말했다. "서둘러야 합니다."

관우는 물러나서 어떻게 할지 궁리하느라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못했다.

한편, 우금이 유비가 하북에 있다는 소식을 알아내어 조조에게 보고했다. 조조는 장료를 보내 관우의 의중을 살피게 했다. 관우가 근심에 잠겨 앉아 있는데 장료가 들어와 축하하며 말했다.

"형님께서 진영에서 유비의 소식을 들었다기에, 특별히 축하하러 왔습니다."

관우가 말했다.

"옛 주인이 살아 계시다 한들 아직 한 번 만나지도 못했는데, 축하할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장료가 물었다.

"형님께서 유비와 사귀는 정도가, 저와 제 형님이 사귀는 정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관우가 대답했다.

"나와 내 형님은 친구 사이지만, 나와 유비는 친구이자 형제이며, 형제이면서 또한 군신 관계라네. 어찌 이를 한데 묶어 비교할 수 있겠는가?"

장료가 다시 물었다.

"지금 유비가 하북에 있는데, 형님께서도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관우가 말했다.

"예전에 했던 약속을 어찌 저버릴 수 있겠는가? 문원이 가서 반드시 승상에게 내 뜻을 전해주게."

장료는 관우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 조조에게 보고했다. 조조가 말했다.

"내게는 그를 붙잡아 둘 계책이 있다."

한편, 관우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옛 지인이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사람을 불러 안으로 모셨으나, 관우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관우가 물었다. "그대는 누구시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저는 원소 휘하의 남양 사람 진진입니다." 관우는 크게 놀라 급히 좌우의 부하들을 물러나게 한 뒤 물었다. "선생께서 여기까지 오신 것은 필시 무슨 용건이 있어서입니까?" 진진은 서신 한 통을 꺼내 관우에게 건넸다. 관우가 서신을 펼쳐 보니, 그것은 바로 유비가 쓴 글이었다. 서신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유비는 귀하와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으며 죽을 때까지 함께하기로 맹세했소. 그런데 어찌하여 도중에 서로 등을 돌리고 의리를 끊으려 하는 것이오? 만약 귀하가 반드시 공을 세우고 부귀를 누리 고자 한다면, 부디 유비의 머리를 바쳐 그 공을 완성해 주시오! 글로 다 전하지 못하는 마음은 죽어서 소식을 기다리겠소!"

관우는 편지를 다 읽고는 크게 울며 말했다. "내가 형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디 계신지 알 길이 없을 뿐입니다. 어찌 부귀영화를 탐하여 옛 의리를 저버리겠습니까?" 진진이 말했다. "유비 형님께서 관우 형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님께서 옛 의리를 저버리지 않으셨다면 어서 가서 뵈어야 합니다." 관우가 말했다. "사람이 천지 사이에 태어나 처음과 끝이 한결같지 못한 자는 군자가 아닙니다. 올 때 분명했으니 갈 때도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글을 써서, 번거롭겠지만 먼저 당신을 통해 형님께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조조에게 작별을 고하고 두 형수님을 모시고 가서 뵙겠습니다." 진진이 물었다. "만약 조조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관우가 대답했다. "차라

리 죽을지언정 어찌 이곳에 오래 머물겠습니까?" 진진이 말했다. "어서 답장을 써서 유비 형님이 너무 애타게 기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관우는 답장을 다음과 같이 써 내려갔다.

"의리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은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저 관우는 어려서부터 글을 읽으며 예의와 의리를 대략 익혔습니다. 양각애와 좌백도 같은 충절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하비를 지킬 때 안에는 식량이 없고 밖에는 원군도 없었습니다. 당장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하고 싶었으나, 두 형수님을 모셔야 하는 중한 책임이 있어 감히 목숨을 버려 맡겨진 도리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잠시 몸을 묶어두고 훗날 다시 만날 날만을 기약해 왔습니다. 이제 여남에 이르러서야 형님의 소식을 알게 되었으니, 즉시 조조에게 작별을 고하고 두 형수님을 모시고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제가 딴 마음을 품는다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벌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이 글에 다 담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곧 뱃기를 고대하며, 부디 이 마음을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진진이 서신을 전하고 돌아가자, 관우는 안으로 들어가 두 형수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곧장 조조의 관저로 가서 작별 인사를 건넸다. 조조는 관우가 온 목적을 알고는 문 앞에 회피패를 걸어 만남을 피했다. 관우는 불만스러운 마음을 안고 돌아와, 예전부터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명하여 수레와 말을 준비시키고 밤낮으로 시중들게 했다. 또한 집 안에 있는 조조가 하사한 물건들은 모두 남겨두고 단 한 톨도 가져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다음 날 관우가 다시 조조의 관저를 찾아가 작별을 고하려 했으나, 문 앞에는 또다시 회피패가 걸려 있었다. 관우가 연이어 여러 차례 찾아갔으나 끝내 조조를 만나지 못하자, 장료의 집을 찾아가 이 일을 말하려 했으나 장료마저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

관우가 생각했다. '조조 승상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려는 뜻이로구나. 이미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는데 어찌 다시 머물 수 있겠는가?'

이에 관우는 조조에게 작별을 고하는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저는 유비 형님을 모시며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하였고, 하늘과 땅에 대고 이 말을 맹세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하비가 함락되었을 때 청했던 세 가지 부탁을 이미 은혜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옛 주인이 원소의 군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지난날 맺은 의리를 어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새로 받은 은혜가 비록 두텁다 하나 옛 의리를 잊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서신을 올려 작별을 고하오니 부디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갚지 못한 은혜는 훗날을 기약하겠습니다."

편지를 다 써서 봉한 뒤 사람을 시켜 상부로 보내게 했다. 그리고는 그동안 받았던 금과 은을 하나하나 봉하여 창고에 넣어두고, 대청에는 한수정후의 인장을 걸어둔 채 두 부인을 수레에 모셨다. 관우는 적토마에 올라 청룡도를 손에 들고, 예전부터 자신을 따르던 수하들을 거느린 채 수레를 호위하며 곧장 북문으로 나섰다. 문지기들이 앞을 가로막자, 관우는 눈을 부릅뜨고 칼을 옆으로 뉘며 크게 한 번 호통을 쳤다. 그러자 문지기들이 모두 겁을 먹고 물러났다. 문 밖으로 나선 관우가

수행원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수레를 잘 호위하며 앞장서 가거라. 만약 뒤쫓아오는 자가 있다면 내가 직접 상대할 것이니, 두 부인께서는 결코 놀라게 해드리지 마라." 수행원들이 수레를 밀며 대로를 향해 출발했다.

한편, 조조가 막 관우의 일을 논의하던 중 좌우에서 관우가 남긴 서신을 가져왔다. 조조가 서신을 읽자마자 깜짝 놀라며 외쳤다. "관우가 떠났구나!"

그때 갑자기 북문 수비 장수가 달려와 보고했다. "관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레와 말과 수행원을 합쳐 스무 명 남짓이 모두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어 관우의 집에 머물던 사람들이 달려와 보고했다. "관우께서 조조가 하사한 금은보화 등을 모두 그대로 두었습니다. 열 명의 여인 또한 안채에 머물게 했습니다. 한수정후의 인장도 대청에 그대로 걸어두었습니다. 승상께서 붙여준 일꾼들은 데려가지 않고, 오직 원래 따르던 수행원들과 몸에 지닌 짐만 챙겨서 북문으로 나갔습니다."

모두가 어안이병병해져 있을 때, 한 장수가 몸을 나서며 외쳤다. "내가 기병 삼천을 이끌고 가서 관우를 생포해 승상께 바치겠습니다!" 사람들을 둘러보니 바로 장수 채양이었다.

정말로, :: 만 장 깊은 용의 굴을 벗어나려는데, 삼천 마리 이리 호랑이 군사를 만났구나.

채양이 관우를 쫓으려 하니, 과연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7회 — 미염공이 천 리를 홀로 달리고, 한수후가 다섯 관문을 지나 여섯 장수를 베다

美髯公千里走單騎 漢壽侯五關斬六將

한편, 조조의 부하 장수들 중에서 장료를 제외하고 관우와 깊은 친분을 쌓은 이는 서황뿐이었으며, 나머지 장수들도 모두 관우를 경외하며 따르고 있었다. 오직 채양만이 관우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오늘 관우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추격하려 했다.

조조가 말했다. "옛 주인을 잊지 않고 떠나고 오는 것이 분명하니, 참으로 대장부рода. 너희도 모두 그를 본받아야 한다."

조조는 채양을 꾸짖어 물리나게 하고는 추격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정욱이 나아가 말했다. "승상께서 관우를 매우 후하게 대접하셨는데, 그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떠나버리니, 이는 승상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큰 죄입니다. 만약 그를 놓아주어 원소에게 가게 된다면,

이는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차라리 추격하여 죽임으로써 후환을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가 대답했다. "내가 이미 그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어찌 신의를 저버리겠는가? 그는 각자 자신의 주인을 따르는 것이니 추격하지 마라."

그러고는 장료에게 말했다. "관우는 금과 인장을 두고 떠나니, 재물로는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녹봉으로도 그 뜻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깊이 존경한다. 아마 멀리 가지는 않았을 테니, 내가 직접 가서 그와 인연을 맺어두고 싶구나. 네가 먼저 가서 그를 잠시 멈춰 세우거라. 내가 직접 가서 배웅하며 여비와 도포를 선물로 주어, 훗날의 기념으로 삼게 하겠다."

장료가 명을 받들어 홀로 말을 타고 먼저 길을 떠났고, 조조는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그 뒤를 따랐다.

한편, 관우가 타고 있는 적토마는 하루에 천 리를 달릴 만큼 빨라서, 본래대로라면 (뒤쫓는 이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관우는 형수들을 모신 수레를 보호해야 했기에 감히 말을 빨리 몰지 못하고 고삐를 당겨 천천히 나아갔다.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관우, 잠시 멈추시오!”

관우가 고개를 돌려보니 장료가 말을 달려 다가오고 있었다. 관우는 수레를 맡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큰길을 따라 서둘러 가라고 일러두

고, 자신은 적토마를 멈춰 세운 채 청룡도를 쥐고 물었다. “장료, 설마 나를 붙잡아 조조에게 데려가려는 것이오?”

장료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승상께서 형님이 멀리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배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와서 어가를 잠시 멈추게 하라고 보낸 것이니, 다른 뜻은 없습니다.”

관우가 말했다. “만약 승상이 철기군을 이끌고 온다 해도, 나는 기꺼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오!”

말을 마친 관우는 다리 위에 말을 세우고 앞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조조가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뒤로는 허저, 서황, 우금, 이전 등이 뒤따르고 있었다.

조조는 관우가 칼을 가로로 쥐고 말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고, 장수들에게 말을 멈추고 좌우로 길을 열라고 명령했다. 관우는 장수들의 손에 무기가 없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안심했다. 조조가 물었다. “관우, 어찌 이리 서둘러 가려 하는가?” 관우가 말 위에서 몸을 살짝 굽히며 대답했다. “제가 전에 승상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옛 주군께서 하북에 계시니, 서둘러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관아를 찾아갔으나 뵈 기회가 없어, 이렇게 편지로 작별을 고하고 승상께서 주신 금과 관인을 돌려드리고 떠납니다. 부디 승상께서는 예전에 하신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조조가 말했다. “나 또한 천하에 신의를 지키고자 하는데, 어찌 예전의 말을 저버리겠는가? 장군이 가는 길에 쓸 비용이 부족할까 염려되어 특별히 여비를 준비했네.” 그러자 한 장수가 말 위에서 황금이 담긴 쟁반을 건넸다. 관우가 말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지만, 아직 여비가 충분합니다. 이 황금은 장수들에게 상으로 주십시오." 조조가 말했다. "장군의 큰 공에 비하면 아주 작은 보답일 뿐인데, 어찌 사양하는가?" 관우가 말했다. "미천한 일일 뿐인데 입에 담을 가치도 없습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관우는 천하의 의사라네. 내 복이 없어 붙잡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구려. 이 비단 도포 한 벌로 내 작은 마음을 대신하겠네." 조조가 장수에게 명령하여 말에서 내려 도포를 두 손으로 받들어 오게 했다. 관우는 혹시 모를 변고가 생길까 두려워 말에서 내리지 않고, 청룡언월도 끝으로 비단 도포를 살짝 들어 올려 몸에 걸쳤다. 그리고는 말을 돌려 머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승상께서 도포를 내려주시니, 훗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말을 몰아 다리를 건너 북쪽으로 떠나갔다. 허저가 말했다. "저 자는 예의가 너무 없는데, 어찌 잡지 않으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저 자는 말 한 필과 혼자뿐이지만 우리는 수십 명이나 되는데,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미 내뱉은 말이 있으니 더는 쫓지 말라." 조조는 직접 장수들을 이끌고 성으로 돌아가면서도, 길 위에서 관우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탄식했다.

한편, 조조가 돌아간 뒤의 이야기다. 관우가 수레와 마차를 따라 30리쯤 달려왔으나, 어느 순간 마차들이 보이지 않았다. 관우는 마음이 초조해져 말을 몰아 사방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 문득 산등성이에서 한 사람이 “관 장군님, 잠시 멈추십시오!”라고 크게 외치는 것을 보았다. 관우가 눈을 들어 살펴보니, 황건을 두르고 비단옷을 입은 한 소년이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있었다. 그런데 말 목 아래에는 머리 하나가 매달려 있었고, 그 뒤로 백여 명의 병사가 뒤따라 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관우가 물었다. “너는 누구냐?” 소년은 창을 버리고 말에서 내려 땅에 엎

드려 절했다. 관우는 혹시 함정일까 싶어 말을 멈춰 세우고 칼을 든 채 물었다. “장사, 네 이름을 말해 보아라.” 소년이 대답했다. “저는 본래 양양 사람입니다. 성은 료, 이름은 화이며 자는 원검이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워 강호를 떠돌다 오백여 명의 무리를 모아 도적질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동료인 두원이 산을 내려가 정찰을 하던 중, 실수로 두 부인님을 납치해 산 위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부하들에게 물어보니 대한 황숙 유비님의 부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장군께서 이곳으로 모시고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산 아래로 모셔 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원이 무례한 말을 내뱉기에 제가 그를 죽였습니다. 이제 그 머리를 장군께 바치며 죄를 청하고자 합니다.” 관우가 물었다. “두 부인은 어디 계시느냐?” 료화가 답했다. “지금 산속에 계십니다.” 관우가 즉시 모셔 내려오라고 명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여 명의 사람이 마차를 에워싸고 앞장서 달려왔다. 관우는 말에서 내려 칼을 거두고 마차 앞에서 손을 모아 예를 갖추며 물었다. “두 형수님, 놀라지는 않으셨습니까?” 두 부인이 말했다. “료 장군이 아니었다면 벌써 두원에게 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관우가 곁에 있던 부하에게 료화가 어떻게 부인들을 구했는지 묻자, 부하가 대답했다. “두원이 부인들을 납치해 산으로 올라가더니, 료화와 각자 한 명씩 아내로 삼자고 했습니다. 료화가 사정을 묻고 정중히 권했으나 두원이 따르지 않자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관우는 그 말을 듣고 료화에게 절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료화는 부하들을 보내 관우를 호위하고 싶어 했으나, 관우는 이 사람이 결국 황건적의 잔당이니 동행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하여 정중히 거절했다. 료화가 다시 금과 비단을 바치며 배웅하려 했으나 관우 역시 받지 않았다. 료화는 작별 인사를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산골짜기 쪽으로 돌아갔다.

관우는 조조가 선물한 도포를 받은 일을 두 형수에게 알리고, 서둘러 수레를 몰아 길을 떠났다. 날이 저물자 어느 마을에 도착해 하룻밤 묵기로 했다. 마을 주인은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센 노인이었는데, 그가 마중 나와 물었다.

"장군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관우가 예를 갖추며 대답했다.

"나는 유비의 동생 관우라고 합니다."

노인이 깜짝 놀라 물었다.

"혹시 안량과 문추를 베었다는 그 관우 장군님이십니까?"

관우가 그렇다고 답하자 노인은 매우 기뻐하며 어서 안으로 모셨다. 관우가 "수레에 두 부인께서 계십니다"라고 말하자, 노인은 즉시 아내와 딸들을 불러 마중 나오게 했다. 두 형수가 초가집에 도착하자 관우는 그들 곁에 공손히 서 있었다. 노인이 관우에게 앉으라고 권했으나 관우는 이렇게 말했다.

"형수님들이 저 위에 계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편히 앉겠습니까?"

이에 노인은 아내와 딸들에게 두 형수를 안채로 모셔 정성껏 대접하도록 하고, 자신은 초가집에서 관우를 대접했다. 관우가 노인의 이름을 묻자 노인이 대답했다.

"제 성은 호이고 이름은 화입니다. 환제 시절에 의랑을 지내다가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 호반은 지금 형양 태수 왕식의 휘하에서 종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혹시 이 근처를 지나가게 되신다면, 제 편지를 아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우는 흔쾌히 그러겠노라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친 관우는 두 형수를 수레에 태우고, 호화가 부탁한 편지까지 챙긴 뒤 작별 인사를 나누고 길을 떠났다. 관우는 낙양 방향으로 길을 잡고 나아가다 동령관이라는 관문에 이르렀다. 그곳을 지키는 장수는 성은 공, 이름은 수로, 오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언덕 위에서 관문을 지키고 있었다.

관우가 수레를 몰고 언덕을 오르자 군사들이 공수에게 보고했고, 공수는 관문을 나와 관우를 맞이했다. 관우가 말에서 내려 공수에게 예를 갖추자, 공수가 물었다.

“장군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관우가 대답했다.

“승상께 작별을 고하고, 형님을 찾으러 하북으로 가는 길이라요.”

공수가 말했다.

“하북의 원소는 승상의 숙적 아닙니까? 장군께서 그곳으로 가시려면 반드시 승상의 통행증이 있어야 합니다.”

관우가 말했다.

“길을 떠나는 마음이 급해 미처 챙기지 못했소.”

공수가 다시 말했다.

“통행증이 없다면 제가 사람을 보내 승상께 보고를 올린 뒤에야 길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관우가 말했다.

“보고를 올리고 기다리다가는 내 여정이 늦어지고 말 것이요.”

공수가 딱딱하게 대답했다.

“법도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관우가 다시 물었다.

“그럼 나를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는 말ियो?”

공수가 말했다.

“정 지나가고 싶다면, 가솔을 인질로 남겨두시오.”

관우는 크게 분노하여 칼을 들어 즉시 공수를 베어버렸다. 공수는 관문 안으로 도망쳐 북을 쳐서 군사를 모으더니, 갑옷을 갖춰 입고 말을 타고 내려오며 크게 외쳤다.

“네놈이 감히 이곳을 지나가려 하느냐!”

관우는 수레를 뒤로 물러나게 한 뒤, 말을 달려 칼을 뽑아 들고는 한 마디 말도 없이 곧장 공수를 향해 돌진했다. 공수도 창을 겨누며 맞서 나갔다. 두 말이 맞부딪치며 한 차례 합을 겨루는 사이, 관우의 칼이 휘둘러지자 공수는 말 아래로 고꾸라져 죽고 말았다. 이를 본 군사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관우가 외쳤다.

“군사들은 도망가지 마라! 내가 공수를 죽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 너희와는 상관이다. 대신 너희의 입을 빌려 조 승상께 전하라. 공수가 나를 해치려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말이다!”

군사들은 모두 관우의 말 앞에서 머리를 숙여 절했다.

관우는 즉시 두 부인에게 수레를 준비하게 하여 낙양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이때 이미 군사들이 낙양 태수 한복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한복은 급히 장수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장수 맹탄이 말했다. "승상의 통행증도 없이 움직이는 것은 사사로운 행차입니다. 만약 막지 않는다면 반드시 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복이 말했다. "관우는 용맹하기로 유명하여 안량과 문추를 모두 죽이지 않았는가. 지금은 정면으로 맞서기 어려우니, 계책을 써서 그를 사로잡아야 한다." 맹탄이 말했다. "제게 계책이 있습니다. 먼저 관문에 사슴뿔 모양의 장애물을 세워 길을 막아둡시다. 관우가 도착하면 제가 소수의 병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는 척하다가, 패배한 것처럼 꾸며 그를 유인하겠습니다. 그때 관우가 쫓아오면 숨겨둔 화살로 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관우를 말에서 떨어뜨려 사로잡는다면 반드시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의논을 마쳤을 때, 관우의 수레 행렬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한복은 활을 당겨 화살을 메고 천 명의 군사를 이끌어 관문에 배치한 뒤 물었다. "오는 자는 누구냐?" 관우가 말 위에서 몸을 굽히며 말했다. "나는 한수정후 관우라고 하오. 길을 좀 지나가겠소." 한복이 물었다. "조 승상의 통행증이 있느냐?" 관우가 대답했다. "번거로운 일 때문에 아직 받지 못했소." 한복이 말했다. "나는 승상의 명을 받들어 이곳을 지키며, 오가는 간첩들을 엄격히 심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통행증이 없다면 도망치는 자로 간주하겠다." 관우가 분노하며 말했다. "동령관의 공수는 이미 내 손에 죽었다. 너 또한 죽고 싶은 것이냐?" 한복이 말했다. "누가 나를 도와 저놈을 잡겠느냐?"

그러자 맹탄이 말에 올라 쌍도(두 자루의 칼)를 휘두르며 관우를 공격하러 나섰다. 관우는 수레 행렬을 물러나게 한 뒤 말을 달려 맞서 싸웠다. 맹탄은 세 합도 채 되지 않아 밀리자 즉시 말을 돌려 달아났다. 관우가 뒤쫓아오자 맹탄은 관우를 유인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관우의 말이 워낙 빨라 순식간에 따라잡혔고, 결국 단칼에 몸이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관우가 말을 멈추고 돌아오자, 한복이 성문 앞에 숨어 있다가 힘껏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우의 왼쪽 팔에 정통으로 맞았다. 관우가 입으로 화살을 뱉아내자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다. 관우는 곧장 말을 달려 한복에게 돌진하며 군사들을 흠어놓았다. 한복이 미처 피하기도 전에 관우의 칼이 내리쳐졌고, 한복은 머리부터 어깨까지 베여 말 아래로 떨어졌다. 관우는 군사들을 격파하고 수레 행렬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관우는 베어낸 비단으로 화살 상처를 동여맸다. 길 위에서 누군가 암습할까 두려워 차마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밤을 도와 사수관으로 향했다. 관문을 지키는 장수는 병주 출신의 변희라는 자로, 유성추를 잘 다루는 무인이었다. 본래 황건적의 잔당이었으나 나중에 조조에게 귀순하여 관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변희는 관우가 곧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를 하나 내었다. 관문 앞 진국사에 도끼와 칼을 든 무사 200여 명을 매복시킨 뒤, 관우를 절로 유인하여 잔을 부딪치는 소리를 신호로 습격해 해치려 한 것이다. 매복을 마친 변희는 관문을 나와 관우를 맞이하러 나갔다. 관우는 변희가 마중 나오는 것을 보고 말에서 내려 그를 맞이했다.

변희가 말했다. "장군의 명성이 천하에 떨치니, 그를 우러르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황숙님께 돌아가시니 그 충의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관우가 공수와 한복을 베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변희가 맞장구치며 말했다. "장군께서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승상님을 뵈게 되면 이 사정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우는 매우 기뻐하며 변희와 함께 말을 타고 사수관을 통과했다. 진국사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리자 승려들이 종을 치며 마중 나왔다. 본래 이 진국사는 한나라 명제가 직접 관리하던 사찰로, 서른 명 남짓한 승려가 있었다. 그중 한 명은 관우와 고향이 같은 보정이라는 승려였다. 보정은 이미 변희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관우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었다.

"장군께서는 포동을 떠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관우가 대답했다. "거의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보정이 물었다. "이 초라한 승려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관우가 말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어 알아

보지 못하겠습니다." 보정이 말했다. "저희 집은 장군 댁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변희는 보정이 고향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고 혹여 비밀이 새 나 같까 두려워 크게 꾸짖었다. "내가 장군을 연회에 모시려는데, 네놈이 어찌 감히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느냐!" 그러자 관우가 말했다. "아니다. 고향 사람을 만났는데 어찌 옛 정을 나누지 않을 수 있겠느냐?"

보정은 관우에게 방장으로 들어와 차를 드시라고 청했다. 관우가 말했다. "두 부인께서 수레에 계시니, 먼저 부인들께 차를 올리도록 하시오." 보정이 차를 먼저 부인들에게 올리게 한 뒤 관우를 방장으로 모셨다. 보정은 허리에 찬 계도를 손으로 들어 올리며 눈짓으로 관우에게 신호를 보냈다. 관우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좌우 부하들에게 칼을 들고 바짝 따르라고 명했다.

이윽고 변희가 법당에 연회를 마련하여 관우를 청했다. 관우가 물었다. "변 군이 나를 청한 것이 호의인가, 아니면 해치려는 악의인가?" 변희가 대답하기도 전에 관우는 벽 뒤에 칼과 도끼를 든 자들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관우가 크게 호통을 쳤다. "내가 그대를 좋은 사람으로 믿었거늘, 어찌 이토록 무도하게 구는가!"

변희는 일이 잘못된 것을 알고 크게 소리쳤다. "좌우는 어서 저 자를 처라!" 좌우 부하들이 막 움직이려 할 때, 관우가 이미 칼을 뽑아 그들을 베어 넘겼다. 변희는 법당을 내려와 복도를 따라 도망쳤고, 관우는 칼을 버리고 큰 도를 들고 뒤쫓았다. 변희가 몰래 철퇴를 꺼내 관우에

게 던졌으나, 관우는 도로 철퇴를 쳐내고 달려들어 변희를 단칼에 두 토막 내버렸다. 그러고는 즉시 몸을 돌려 두 형수를 살폈다.

이미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었으나, 관우가 오는 것을 보고는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관우는 군사들을 물리친 뒤 보정에게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스님께서 아니었더라면 이미 이 도적에게 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보정이 말했다. “이곳은 더 머물기 어려우니, 가사 장구를 챙겨 다른 곳으로 떠나려 합니다. 나중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장군께서는 몸 조심하십시오.” 관우가 거듭 감사를 표한 뒤 부인들이 탄 수레를 호송하여 형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형양 태수 왕식은 한복과 사돈 관계였다. 왕식은 관우가 한복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관우를 암살할 계획을 세워 사람들에게 관문을 굳게 지키라고 명령했다. 관우가 도착하자 왕식은 직접 관문 밖으로 나가 웃으며 반갑게 맞이했다. 관우가 형을 찾고 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자 왕식이 말했다.

"장군께서 길 위에서 쉬지 않고 달려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부인들께서도 수레 안에서 무척 피곤하실 것입니다. 우선 성 안으로 들어가 객주에서 하룻밤 묵어가시지요. 그래야 내일 길을 떠나셔도 늦지 않습니다."

관우는 왕식이 매우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처럼 보여, 두 형수와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객주에는 머물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었다. 왕식이 관우에게 연회에 참석해 달라고 청했으나 관우는 거절했다. 그러자 왕식은 사람을 시켜 연회 음식을 객주로 보내주

었다. 관우는 길 위에서 고생한 탓에 두 형수에게 식사를 마친 뒤 안방에서 쉬라고 일렀다. 그리고 수행원들에게도 각자 휴식을 취하게 하고 말들에게 먹이를 넉넉히 주라고 명했다. 관우 또한 갑옷을 벗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한편, 왕식은 부하인 호반을 은밀히 불러 명령했다. “관우가 승상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데다, 길에서 태수와 수비 장수들을 죽였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그자의 무용은 대적하기 어려우니, 그대는 오늘 밤 군사 천 명을 뽑아 역참을 포위하라. 병사들에게 횃불을 하나씩 들게 했다가 삼경이 되면 일제히 불을 지르도록 해라. 상대가 누구든 상관 말고 모조리 태워 죽여야 한다. 나 또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돕겠다.”

호반은 명령을 받들고 즉시 군사를 소집했다. 그리고 몰래 마른 땔감과 불을 붙일 물건들을 역참 문 앞에 가져다 놓으며 약속된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호반은 속으로 생각했다. ‘관우라는 자의 명성은 익히 들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구나. 한번 가서 살펴봐야겠다.’

호반은 역참 안으로 들어가 역관에게 물었다. “관 장군은 어디에 계십니까?” “정청에서 책을 읽고 계십니다.”

호반이 몰래 정청 앞으로 다가가 보니, 관우가 등불 아래 책상에 기대어 앉아 왼손으로 수염을 만지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호반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뿜었다.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 같구나!”

관우가 누구냐고 묻자, 호반은 다가가 절을 하며 말했다. “형양 태수 휘하의 종사 호반이라 합니다.” 관우가 물었다. “혹시 허도 성 밖에서 살던 호화의 아들인가?” “그렇습니다.”

관우는 부하를 불러 짐 속에서 편지를 꺼내게 한 뒤 호반에게 건네 주었다. 편지를 다 읽은 호반은 탄식하며 말했다. “하마터면 충직한 장군을 잘못 죽일 뻔했습니다!”

호반은 곧바로 은밀히 말했다. “왕식이 불의한 마음을 품고 장군을 해치려 합니다. 몰래 사람들을 시켜 역참을 사방에서 포위하게 한 뒤, 삼경에 불을 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 성문을 열어둘 테니, 장군께서는 서둘러 성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관우는 크게 놀라 급히 갑옷을 입고 칼을 든 채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 두 형수를 수레에 태워 역참을 빠져나왔다. 과연 밖에는 군사들이 횃불을 하나씩 들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관우가 급히 성벽 근처에 다다르니 마침 성문이 열려 있었다. 관우는 수레를 몰아 서둘러 성을 빠져나갔고, 호반은 뒤에 남아서 불을 질렀다.

관우가 몇 리쯤 갔을 때, 뒤쪽에서 횃불 빛이 번쩍이며 군마들이 쫓아왔다. 앞장선 왕식이 크게 소리쳤다. “관우, 거기 서라!”

관우가 말의 고삐를 당겨 멈춰 서며 호통을 쳤다. “이 무도한 놈아! 나는 너와 원한도 없는데 어찌 사람을 시켜 나를 불태워 죽이려 하느냐?”

왕식이 말을 몰아 창을 내지르며 관우에게 달려들었으나, 관우가 허리를 가로질러 칼을 휘두르자 단숨에 두 동강이 났다. 그제야 추격하던 군사들이 흩어졌다. 관우는 수레를 몰아 서둘러 길을 떠나며, 길에서 자신을 도와준 호반에게 깊이 고마워했다.

관우가 활주 경계에 이르자, 누군가 유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유연은 수십 명의 기병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관우를 맞이했다. 관우가 말 위에서 몸을 약간 굽히며 인사했다.

"태수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유연이 물었다.

"장군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관우가 대답했다.

"승상께 작별을 고하고, 형님을 찾아가려 합니다."

유연이 말했다.

"유비는 원소의 휘하에 있지 않습니까? 원소는 승상의 원수인데, 그곳으로 가시겠다니 어찌 장군을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까?"

관우가 말했다.

"예전에 반드시 가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유연이 다시 말했다.

"지금 황하 나루터의 요충지를 하후돈의 부하 진기가 지키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관우가 물었다.

"태수께서 배를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연이 답했다.

"배가 있기는 하나, 감히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우가 말했다.

"내가 예전에 안량과 문추를 베었을 때도 태수님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배 한 척 빌려주지 않으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연이 말했다.

"하후돈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저를 죄인으로 삼을까 두렵습니다."

관우는 유연이 쓸모없는 사람임을 알고는, 스스로 수레와 군사를 재촉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황하 나루터에 도착하자 진기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물었다.

"누구냐?"

관우가 말했다.

"한수정후 관우다."

진기가 물었다.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관우가 대답했다.

"하북으로 가서 형님 유비를 찾으려 하니, 배를 좀 빌려달라."

진기가 말했다.

"승상께서 내리신 공문은 어디 있느냐?"

관우가 말했다.

"나는 승상의 통제를 받지 않는데, 무슨 공문이 필요하단 말이냐?"

진기가 외쳤다.

"나는 하후돈 장군의 명령을 받들어 이곳을 지키고 있다. 네놈이 날
개가 달렸다 한들 이곳을 지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관우가 크게 노하며 말했다.

"네놈이 내가 길을 막아서는 자들을 베어 넘긴 것을 아느냐?"

진기가 맞받아쳤다.

"이름 없는 장수 몇 명을 죽인 것 가지고, 감히 나를 죽이겠느냐?"

관우가 분노하며 꾸짖었다.

"네놈이 안량과 문추에 비하면 어떠하냐?"

진기가 크게 화를 내며 말을 몰아 칼을 들고 관우에게 달려들었다. 두 말이 맞부딪치고 단 한 합 만에 관우가 칼을 휘두르니, 진기의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 관우가 말했다.

"나를 막아서는 자는 이미 죽었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놀라 달아나지 마라. 어서 배를 준비하여 내가 강을 건널 수 있게 하라."

군사들이 급히 배를 저어 강가로 다가왔다. 관우는 두 형수님을 배에 모시고 강을 건넜다. 황하를 건너자 바로 원소의 영토였다. 관우가 거쳐 간 다섯 곳의 관문에서 여섯 명의 장수를 베었다. 후세 사람들이 시로 그를 찬양하기를 다음과 같았다.

"인장을 걸어두고 금을 봉하며 한나라 승상을 떠나니, 형님을 찾아 먼 길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적토마 타고 천 리 길을 달리며, 청룡언월도 휘둘러 다섯 관문을 돌파하네. 충의로운 기개가 온 세상에 가득하니, 영웅의 이름이 강산을 뒤흔드는구나. 홀로 장수들을 베어 적수가 없으니, 그 이름 오늘날까지 역사에 길이 남으리라."

관우는 말 위에서 스스로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길을 가며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조조 공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분명 나를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라 여기시겠지."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북쪽에서 한 기병이 달려오며 크게 외쳤다.
“관우 장군님, 잠시 멈추십시오!” 관우가 말의 고삐를 당겨 살펴보니
바로 손건이었다. 관우가 물었다. “여남에서 헤어진 뒤로 그간 소식이
어찌 되었소?”

손건이 대답했다. “유벽과 공도가, 장군이 군사를 거두어 돌아간 뒤
다시 여남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하북으로 보내 원소와 친분
을 맺고, 유비 장군께 조조를 물리칠 계책을 함께 세우자고 청하려 했
습니다. 그런데 하북의 장수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람에 일이
꼬였습니다. 전풍은 옥에 갇혔고, 저수는 밀려나 쓰이지 못하고 있습
니다. 심배와 곽도 역시 각자 권력을 다투고 있으며, 원소는 의심이 많
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비 장군과 상의하여
우선 몸을 피할 방도를 찾기로 했습니다. 지금 유비 장군께서는 이미
여남에 가서 유벽과 합류하셨습니다. 혹시 장군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원소에게 가셨다가 해를 입으실까 염려되어, 제가 특별히 길목에서 장
군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뵙게 되었으니, 장군께서는
어서 여남으로 가서 유비 장군과 만나셔야 합니다.”

관우는 손건에게 부인들을 뵙게 했다. 부인들이 근황을 묻자 손건이
자세히 설명했다. “원소가 두 번이나 유비 장군을 죽이려 했으나, 다행
히 몸을 빼내어 여남으로 가셨습니다. 부인들께서도 유비 장군과 함께
그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두 부인은 모두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
다.

관우는 손건의 말에 따라 하북으로 가지 않고 곧장 여남으로 향했다. 한창 길을 가는데, 등 뒤에서 먼지가 일더니 한 무리의 군마가 달려왔다. 앞장선 하후돈이 크게 외쳤다. “관우, 거기 서라!”

여섯 장수가 관문을 막아서다 헛되이 죽임을 당하고, 한 무리 군사가 길을 가로막아 다시금 칼끝을 겨루는구나.

결국 관우는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8회 — 채양 형제를 베어 의심을 풀고, 고성에서 주신이 의를 모으다

斬蔡陽兄弟釋疑 會古城主臣聚義

한편, 관우가 손건과 함께 두 형수를 보호하며 여남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하후돈이 이백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뒤쫓아왔다. 손건이 수레와 짐을 앞장서서 이끌자, 관우가 몸을 돌려 말을 멈춰 세우고 칼자루를 누르며 물었다.

"그대가 나를 쫓아오다니, 이는 조조 승상의 넓은 도량을 잃는 일이 아니요?"

그러자 하후돈이 대답했다.

"승상께서 따로 명령을 내리신 적도 없는데, 그대가 길에서 사람을 죽이고 우리 부하 장수까지 베었으니 그 무례함이 너무도 심하도다! 나는 그대를 생포하여 승상께 바치고 처분을 받게 하려고 특별히 온 것이다!"

말을 마치자마자 하후돈은 말에 올라 창을 내지르며 싸우려 했다. 그런데 뒤에서 한 기병이 급히 달려오며 "관우와 싸우지 마시오!"라고 크게 외쳤다. 관우는 고삐를 잡은 채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았다. 달려온 사절은 품 안에서 공문을 꺼내 하후돈에게 말하며 설명했다. "승상께서 관 장군의 충의를 깊이 아끼고 존경하십니다. 혹여 길목에서 가로막히는 일이 생길까 염려되어, 저에게 공문을 들려 이곳저곳을 다니게 하셨습니다." 하후돈이 물었다. "관우가 길을 가다 우리 장수들을 죽인 것을 승상께서 알고 계시는가?" 사절이 대답했다. "그것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자 하후돈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관우를 생포하여 승상께 데려가겠다. 승상께서 직접 놓아주라고 말씀하시게 하겠다." 이를 들은 관우가 분노하며 외쳤다. "내가 어찌 너 따위를 두려워하겠느냐!" 하고는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하후돈을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하후돈이 창을 휘두르며 맞서 싸웠다. 두 말이 서로 부딪치며 열 함도 채 되지 않아 싸우던 중, 갑자기 다른 기병 하나가 날아오듯 달려오더니 크게 외쳤다.

“제2장군께서는 잠시 멈추십시오!”

하후돈이 창을 멈추고 사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승상께서 관우를 붙잡으라고 명하셨는가?”

사자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승상께서는 관우 장군이 지나가는 길을 지키는 장수들이 길을 막을까 걱정되어, 길을 열어주라는 공문을 전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후돈이 다시 물었다.

“승상께서 관우가 길에서 사람을 죽였는지 아시는가?”

“그것은 모릅니다.”

하후돈이 말했다.

“사람을 죽였는지조차 모른다면 보내줄 수 없다.”

그러고는 즉시 부하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관우를 에워싸게 했다. 관우는 크게 분노하며 칼을 휘두르며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이 막 싸우려던 찰나, 진영 뒤쪽에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오며 크게 외쳤다. "운장(관우), 원양(하후돈)! 싸움을 멈추시오!" 사람들이 바라보니 바로 장료였다. 두 사람은 각자 말 고삐를 당겨 멈춰섰다. 장료가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승상의 명령을 전하러 왔소. 관우가 관문을 돌파하며 장수를 베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는 길에 방해가 될까 염려되어 승상께서 특별히 나를 보내 각 관문에 마음대로 길을 열어주라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하후돈이 말했다. "진기는 채양의 조카요. 그가 진기를 내게 맡겼는데, 이제 관우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소?" 장료가 말했다. "채 장군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설명할 테니 걱정 마시오. 승상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우를 보내주라 하

셨으니, 여러분은 승상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오." 하후돈은 하는 수 없이 군사들을 거두어 물러났다. 장료가 물었다. "관우, 이제 어디로 가려 하오?" 관우가 대답했다. "형님이 아직 원소의 휘하에 있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소. 이제 천하를 뒤져서라도 형님을 찾아낼 것이오." 장료가 말했다. "유비의 행방을 아직 모르니, 일단 승상께 돌아가 보고하는 게 어떻겠소?" 관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럴 수는 없소! 장료, 그대는 돌아가 승상께 내 대신 사죄를 드려주시오." 말을 마친 관우는 장료와 포권하며 작별했다.

한편, 장료와 하후돈은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갔다. 관우는 수레를 따라잡아 손건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나란히 말을 타고 길을 떠났다. 그렇게 며칠을 가던 중 갑자기 큰비가 쏟아져 행장을 모두 적시고 말았다. 멀리 언덕 너머로 장원 하나가 보이기에, 관우는 수레를 이끌고 그곳으로 가서 하룻밤 묵기를 청했다. 장원의 주인인 노인이 마중을 나와 관우가 찾아온 목적을 상세히 듣더니 말했다. "제 성은 곽이고 이름은 상이라 합니다. 대대로 이곳에 살아왔지요. 명성은 익히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노인은 즉시 양을 잡아 술을 차려 대접하며, 두 부인에게는 후당에서 잠시 쉬시라고 안내했다. 곽상은 관우를 모시고, 손건은 초당에서 술을 마시며 젖은 짐을 말리고 말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황혼 무렵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한 소년이 여러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장원에 들어오더니 곧장 초가집으로 올라갔다. 곽상이 소년을 불러 말했다. "내 아들이, 장군께 인사드려라." 그러고는 관우에게 "이 아이는 제 못난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다. 관우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곽

상이 "사냥을 다녀오는 길입니다"라고 답했다. 소년은 관우를 보고 인사를 올린 뒤 바로 방에서 내려가 버렸다. 곽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늙은 저는 대대로 농사짓고 글을 읽으며 가문을 이어왔는데, 오직 이 아이 하나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본업에는 뜻이 없고 오로지 사냥놀이에만 빠져 있으니, 참으로 가문의 불행입니다!" 관우가 말했다. "지금처럼 어지러운 세상에는 무예를 익혀 공을 세울 수도 있는 법인데, 어찌 불행이라 하시겠습니까?" 곽상이 말했다. "만약 저 아이가 무예를 배우려 한다면 뜻이 있는 사람이라 하겠으나, 지금은 그저 돌아다니며 놀기만 하고 못 하는 짓이 없으니, 제가 근심하는 것입니다!"

관우 역시 깊은 탄식을 내뿜었다. 밤이 깊어지자 곽상이 작별 인사를 하고 물러갔다. 관우와 손건이 막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뒷마당에서 말 울음소리와 사람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관우가 급히 부하들을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손건과 함께 칼을 들고 확인하러 나갔다. 가보니 곽상의 아들이 땅에 쓰러져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하들은 장원의 하인들과 한창 싸우는 중이었다. 관우가 그 이유를 묻자 부하가 대답했다. "이자가 적토마를 훔치려다 말에게 차여 쓰러졌습니다. 저희가 비명 소리를 듣고 순찰하러 나왔더니, 오히려 장원의 하인들이 몰려와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관우가 크게 노하여 꾸짖었다. "취새끼 같은 도둑놈이 감히 내 말을 훔치려 들다니!"

마침 사건이 터지자 곽상이 달려와 고했다. "제 불효자식이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만 제 아내가 이 아이를 너무나 애지중지하니, 부디 장군께서 인자하게 너그러이 용서

해 주십시오!" 관우가 말했다. "이 아이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군요. 방금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자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역시 아버지라는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어르신의 체면을 봐서 이번 한 번만 일단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부하들에게 말을 잘 보살피라고 일렀다. 이어 장원의 하인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뒤, 손건과 함께 초가집으로 돌아가 쉬었다. 다음 날, 곽상 부부는 대청 앞으로 나와 절을 올리며 말했다. "저희 못난 자식이 장군님의 위엄을 범했으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용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우가 그를 불러내라고 명령하며 말했다. "내가 직접 엄하게 꾸짖어 가르치겠다." 그러자 곽상이 대답했다. "그놈이 사경 무렵(새벽 1시에서 3시경)에 불량배 몇 명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관우는 곽상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두 형수를 수레에 모신 뒤 장원을 나섰다. 그는 손건과 나란히 말을 타고 수레를 호위하며 산길로 향했다. 길을 간 지 채 삼십 리도 되지 않아, 산등성이 너머에서 백여 명의 무리가 떼를 지어 나타났는데 그 선두에는 두 명의 기병이 있었다. 앞선 자는 머리에 황건을 쓰고 전포를 입었으며, 그 뒤를 따르는 이는 곽상의 아들이었다. 황건을 쓴 자가 외쳤다. "나는 천공장군 장각의 부장이다! 오는 자는 어서 적토마를 내놓아라. 그러면 지나가게 해주마!" 관우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무지한 도적놈 같으니! 네가 장각을 따라 도적질을 한다면, 유비와 나, 그리고 장비 세 형제의 이름은 들어보았느냐?" 황건을 쓴 자가 되물었다. "얼굴이 붉고 수염이 긴 자가 관우라는 이름은 들어보았으나, 그 얼굴은 본 적이 없다. 너는 대체 누구냐?"

관우는 칼을 멈추고 말을 세운 채, 수염을 담은 주머니를 풀어 길게 늘어진 수염을 보여주었다. 그 사람은 안장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곽상의 아들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말 앞에 엎드려 바쳤다. 관우가 이름을 물었다. "제 성은 배요, 이름은 원소라 합니다. 장각이 죽은 뒤로 주인이 없어 산속에 모여 살며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숨어 지내왔습니다. 오늘 아침 이놈이 '천리마를 탄 손님이 우리 집에 묵으러 왔다'고 보고 하기에, 저를 불러 이 말을 뺏으려 했던 것인데 뜻밖에 장군님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곽상의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다. 관우가 말했다. "네 부친의 얼굴을 보니, 네 목숨만은 살려주마!"

곽씨는 머리를 감싸 쥐고 쥐새끼처럼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관우가 원소에게 물었다. "너는 내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이름을 알았느냐?" 원소가 대답했다. "여기서 20리 떨어진 곳에 와우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는 성은 주요, 이름은 창이라 하는 관서 출신의 사내가 있는데, 두 팔에 천 근의 힘을 지녔습니다. 굶이치는 수염과 늠름한 풍채가 매우 위엄이 넘치지요. 원래 황건적 장보의 휘하에서 장수로 있었으나, 장보가 죽은 뒤 산림에 모여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그가 예전부터 저에게 장군님의 명성을 자주 이야기하며, 만날 길이 없음을 한스러워했습니다." 관우가 말했다. "도적 떼 속에서는 영웅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만 나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십시오. 스스로를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원소는 관우에게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멀리서 한 무리의 인마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원소가 말했다. "저 사람은 분명 주창일

것이오." 관우가 말을 멈추고 서서 기다리니, 과연 얼굴이 검고 키가 큰 사내가 창을 들고 말을 탄 채 무리를 이끌고 나타났다. 그는 관우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기뻐하며 외쳤다. "아니, 관 장군님이 아니십니까!" 그는 급히 말에서 내려 길가에 엎드리며 말했다. "주창, 관 장군님께 인사 올립니다." 관우가 물었다. "장사께서는 어디서 저를 아시는지요?" 주창이 대답했다. "예전에 황건적의 장보를 따를 때 장군님의 얼굴을 뵈 적이 있습니다. 도적 떼에 몸을 맡기는 바람에 장군님을 모시지 못한 것이 한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부디 저를 버리지 마시고 보졸로 거두어 주십시오. 아침저녁으로 말의 등자 옆에서 채찍을 잡으며 모실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관우가 그의 뜻이 매우 정성스러운 것을 보고 말했다. "만약 나를 따른다면, 그대의 부하들은 어찌할 것인가?" 주창이 답했다. "따르고자 하는 자는 모두 함께 따를 것이나, 따르고 싶지 않은 자는 뜻대로 하게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관우는 말에서 내려 수레 앞으로 다가갔다며 두 형수에게 뜻을 물었다. 감부인이 말했다. "숙부께서 허도를 떠난 뒤로 길 위에서 홀로 여기까지 오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그동안 군사나 말을 거느리려 한 적도 없으셨지요. 예전에 요화가 따르려 했을 때도 거절하셨는데, 이제 어찌하여 주창의 무리를 거두어들이려 하십니까? 저희 여인들의 식견이 짧으니 숙부께서 직접 판단하십시오." 관우가 말했다. "형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고는 주창에게 말했다. "내가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 부인께서 따르지 않으려 하시니 어쩔 수 없다. 너희는 일단 산으로 돌아가 있거라. 내가 형님을 찾게 되면 반드시 다시 불러오마."

주창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저는 미천한 사내로 도적이 되어 살고 있었으나, 이제 장군을 만난 것은 마치 다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어찌 다시 이 기회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이 불편하다면, 모두 배원소와 함께 가게 하십시오. 저만 몸 하나로 장군을 따라가겠습니다. 설령 만 리 길이라 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관우가 다시 이 말을 형수들에게 전하자, 감부인이 말했다. "한두 사람이 따르는 것 정도는 일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관우는 즉시 주창에게 사람들을 나누어 배원소를 따르게 했다. 그러자 배원소가 "저도 관 장군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주창이 대답했다. "네가 지금 가면 일행들이 다 흩어질 터이니, 나중에 세력을 잡았을 때 다시 불러 모으자꾸나. 나는 관 장군을 따라갈 테니, 머무를 곳이 생기면 바로 너를 데리러 오마."

원소는 불만스러운 기색을 보이며 작별을 고했다. 주창은 관우를 따라 여남을 향해 길을 떠났다. 며칠을 가니 멀리 산성 하나가 보였다. 관우가 그곳 토박이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디인가?" 토박이가 대답했다. "이곳은 고성이라 합니다. 몇 달 전 장비라는 장군이 수십 기의 기병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현령을 쫓아내고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를 모으고 말을 사며 풀과 곡식을 비축해 두었지요. 지금은 삼사천 명의 군마를 거느리고 있어 주변에 감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관우가 기뻐하며 말했다. "내 동생이 서주에서 헤어진 뒤로 줄곧 소식을 몰랐는데, 설마 이곳에 있을 줄이야!" 관우는 즉시 손건을 먼저 성안으로 보내 소식을 전하고, 두 형수를 맞이하러 나오라고 일렀다. 한편, 장비는 망탕산에서 한 달 넘게 머물다가 유비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밖으

로 나갔다가 우연히 고성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현청에 들러 식량을 빌리려 했으나 현령이 거절하자, 화가 난 장비가 현령을 쫓아내고 현의 관인을 빼앗아 성을 차지한 뒤 임시로 거처를 삼은 것이었다. 마침 손건이 관우의 명을 받들어 성안으로 들어가 장비를 만났다. 손건은 예를 갖추어 뒤 상세히 말했다. "유비께서 원소를 떠나 여남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관우께서 허도에서 두 부인을 모시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장군께서는 어서 나가 맞이하십시오."

장비는 말을 다 듣고도 아무 대답 없이 즉시 무기를 갖추고 장팔사모를 든 채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 천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곧장 북쪽 성문을 나섰다. 손건은 깜짝 놀랐지만 감히 묻지 못하고 그저 뒤따라 성 밖으로 나왔다.

관우는 장비가 오는 것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들고 있던 칼을 주창에게 건네주고는 말을 달려 마중 나갔다. 그런데 장비는 부릅뜬 눈에 호랑이 같은 수염을 거꾸로 세운 채, 천둥 같은 고함을 지르며 장팔사모를 휘둘러 관우를 향해 찔러왔다.

관우는 깜짝 놀라 급히 몸을 피하며 외쳤다. "아우야, 어찌하여 이러느냐? 우리가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은 일을 벌써 잊었던 말이냐!"

장비가 호통을 쳤다. "형님께서 의리가 없으시니, 대체 무슨 낯으로 저를 보러 오셨습니까!"

관우가 말했다. "내가 어찌 의리가 없단 말이냐?"

장비가 맞받아쳤다. "형님께서는 형님을 배신하고 조조에게 항복하여 작위까지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또 저를 속이려 드시다니, 오늘이야말로 형님과 생사를 가려야겠습니다!"

관우가 말했다. "네가 원래 사정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나도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 여기 두 형수님이 계시니, 아우 네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두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발을 드리운 휘장을 걷어 올리며 외쳤다. "삼촌, 어찌하여 이리 행동하십니까?" 장비가 말했다. "형수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저 배신자를 먼저 처단한 뒤에 형수님들을 성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감부인이 말했다. "둘째 숙부님께서 너희들의 행방을 알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잠시 조조의 밑에 머물렀던 것이란다. 이제 네 오라버니가 여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준 것이니 삼촌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거라." 미부인도 거들었다. "둘째 숙부님께서 예전에 허도에 계셨던 것도 본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였단다." 장비가 말했다. "형수님들, 저 사람의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충신은 죽을지언정 욕될 일은 하지 않는 법입니다. 대장부가 어찌 두 주군을 섬기는 법이 있겠습니까!" 관우가 말했다. "아우님, 나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게." 손건이 말했다. "관우께서 특별히 장군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장비가 호통을 쳤다. "네 이놈, 어찌 그리 함부로 말하느냐! 저자가 무슨 선한 마음으로 왔겠느냐? 분명 나를 잡으러 온 것이 틀림없다!" 관우가 말했다. "내가 만약 너를 잡으러 왔다면, 당연히 군사와 말을 거느리고 왔을 것이다."

장비가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보아라, 내 눈에는 군사와 말이 보이지 않는다!"

관우가 뒤를 돌아보니, 과연 먼지가 일어나는 곳에서 한 무리의 군마가 달려오고 있었다. 바람에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니 바로 조조의 군대였다. 장비가 크게 노하여 외쳤다. "이제야 겨우 꾸물거리는 것이냐!" 그러고는 장팔사모를 곧장 내지르며 달려들려 했다. 관우가 급히 그를 말리며 말했다. "아우님, 잠시 멈추게. 내가 저 적장을 베어 나의 진심을 보여줄 테니 지켜보게나." 장비가 말했다. "정말로 진심이라면, 내가 여기서 북을 세 번 울리기도 전에 저 적장을 베어 넘겨야 할 것이오!" 관우가 대답했다.

잠시 후 조조의 군대가 도착했다. 앞장선 장수는 채양이었는데, 그는 칼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크게 외쳤다. "네놈이 내 외조카 진기를 죽이고 이곳으로 도망쳐 숨어 있었구나! 나는 승상님의 명을 받들어 너를 잡으러 왔다!" 관우는 대꾸도 하지 않고 곧장 칼을 휘둘렀다. 장비가 직접 북을 두드리며 기세를 올렸다. 북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관우가 칼을 내리치자 채양의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군사들은 모두 겁에 질려 달아났다. 관우는 깃발을 들고 있던 졸병 한 명을 생포하여 끌고 와 사정을 물었다. 졸병이 대답했다. "채양이 장군께서 자신의 외조카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 몹시 분노하여, 하북으로 가서 장군과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승상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를 여남으로 보내 유벽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여기서 장군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관우는 이 말을 듣고 장비에게 가서 그 사정을 알려주었다. 장비는 관우가 허도에 있을 때의 일을 졸병에게 자세히 물

있고, 줄병이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하고 나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다.

한편, 성안에서 군사들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성 남문 밖에 기병 열댓 명이 아주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장비는 의구심이 들어 남문 밖으로 나가 살펴보았다. 과연 기병 열댓 명이 가벼운 활과 짧은 화살을 든 채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장비를 보자마자 말에서 뛰어내렸다.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미축과 미방이었다. 장비 역시 말에서 내려 그들을 맞이했다.

미축이 말했다. “서주에서 헤어진 뒤, 저희 형제는 피난길에 올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을 시켜 멀리까지 수소문해 보니, 관우가 조조에게 항복했고 주공께서는 하북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옹 또한 하북으로 갔다는 말도 들었지요. 다만 장군께서 어디 계신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길 위에서 손님들을 만났는데, 성이 장 씨인 장군이 이런 모습으로 고성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형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분명 장군이실 것이라 믿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 정말 다행입니다!”

장비가 대답했다. “관우 형님이 손건과 함께 두 형수님을 모시고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제 형님의 소식을 알게 되었으니 걱정 마십시오.”

미씨 형제는 크게 기뻐하며 함께 관우를 찾아가 뵈었고, 두 부인도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장비는 즉시 두 형수를 성 안으로 정중히 모셨다. 관청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두 부인은 그동안 관우가 겪어온 일들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장비는 그제야 큰 소리로 울

며 관우에게 절을 올렸다. 미씨 형제 또한 깊은 슬픔과 감동에 젖었다. 장비도 헤어진 뒤의 일을 이야기하며, 한편으로는 잔치를 베풀어 이 기쁜 만남을 축하했다.

다음 날, 장비는 관우와 함께 여남으로 가서 유비를 만나고자 했다. 관우가 말했다. "아우님은 두 형수님을 잘 보살피며 잠시 이곳 성에 머물러 주게. 나와 손건이 먼저 가서 형님의 소식을 알아보고 오겠네." 장비가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관우와 손건은 기병 몇을 이끌고 여남으로 달려갔다. 유벽과 공도가 그들을 맞이하자 관우가 물었다. "유비 형님은 어디 계시는가?" 유벽이 대답했다. "형님께서는 이곳에 며칠 머무셨으나, 군사가 적은 것을 보시고 다시 하북에 있는 원소에게 의논하러 가셨습니다." 관우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자 손건이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고생스럽더라도 다시 하북으로 가서 유비 형님께 소식을 전한 뒤, 함께 고성으로 모이면 됩니다."

관우는 그 말대로 유벽과 공도에게 작별을 고하고 고성으로 돌아와 장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장비는 당장이라도 함께 하북으로 가겠다고 나섰다. 관우가 말했다. "이 성만 있으면 우리가 몸을 의탁할 곳이 되니,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네. 나는 손건과 함께 원소를 찾아가 형님을 만난 뒤,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자네와 합류하겠네. 자네는 이곳 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게." 장비가 물었다. "형님께서 안량과 문추를 베셨는데, 어떻게 그곳까지 가시려는 겁니까?" 관우가 대답했다. "괜찮네. 그곳에 가면 상황을 봐서 움직이면 될 것이야." 이어 관우는 주창을 불러 물었다. "와우산의 배원소가 거느린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주창이 대답했다. "대략 사오백 명 정도 됩니다." 관우가 말했다. "나는

지금 지름길로 가서 형님을 찾아뵙겠네. 자네는 와우산으로 가서 그 무리를 불러 모은 뒤, 큰길을 따라 이쪽으로 데려오게나."

명령을 받은 이는 물러갔다. 관우는 손건과 함께 스무 명 남짓한 기병만을 데리고 하북으로 향했다. 경계에 다다르자 손건이 말했다.

"장군님,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곳에서 잠시 쉬시지요. 제가 먼저 들어가 유비님을 뵙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관우가 그 말에 따라 손건을 먼저 보냈다. 멀리 앞 마을에 장원이 하나 보이는 것을 보고, 관우는 수행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서 숙박하기로 했다. 장원의 주인인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관우에게 예를 갖추었다. 관우가 자신의 신분을 사실대로 밝히자 노인이 말했다.

"제 성도 관씨이고 이름은 정이라 합니다. 장군님의 명성은 익히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노인은 곧 두 아들을 불러 관우를 맞이하게 하고, 관우와 일행 모두를 장원에 정중히 머물게 했다.

한편, 이야기는 이러하다. 손건이 말을 타고 기주로 들어가 유비를 만나 그간의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유비가 말했다. "간옹도 이곳에 있으니, 몰래 불러와 함께 의논해 보자." 잠시 후 간옹이 도착하여 손건과 인사를 나눈 뒤, 두 사람은 함께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간옹이 말했다. "주공께서 내일 원소를 만나실 때, 유표와 힘을 합쳐 조조를 격파하러 형주로 가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회를 틈타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참으로 묘책이로다! 그런데 자네도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는가?" 간옹이 대답했다. "저에게도 따로 빠져나갈 방도가 있습니다."

의논을 마친 다음 날, 유비가 원소를 찾아가 말했다. "유표가 형주의 야호 군을 지키고 있는데, 병력이 정예하고 군량도 풍족하니, 마땅히 그와 약조를 맺어 조조를 함께 공격해야 합니다." 원소가 대답했다. "나도 이미 사신을 보내 약속을 제안해 보았으나, 그가 응하지 않더군요." 유비가 말했다. "그는 저와 같은 종친이니, 제가 가서 설득한다면 반드시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소가 말했다. "만약 유표를 얻을 수 있다면, 유벽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오." 이에 원소는 유비가 길을 떠나도록 명했다. 원소가 덧붙여 말했다. "최근 들으니 관우가 이미 조조를 떠나 하북으로 오려 한다는데, 나는 그를 죽여서 안량과 문추의 원수를 갚고 싶소!" 유비가 말했다. "명공께서 예전에 그를 쓰려 하셨기에 제가 그를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찌하여 죽이려 하십니까? 게다가 안량과 문추는 사슴 두 마리에 불과하지 만, 관우는 호랑이와 같습니다. 사슴 두 마리를 잃고 호랑이 한 마리를 얻는 것인데, 어찌 원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원소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원래 그를 아끼기에 농담을 해본 것이오. 공이 다시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 속히 오게 하시오." 유비가 말했다. "그럼 손건을 보내 그를 불러오겠습니다." 원소는 크게 기뻐하며 그 뜻을 따랐다.

유비가 떠나자 간옹이 나아가 말했다. "유비가 이번에 떠나면 반드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가서 유표를 설득하는 일도 돕고, 유비의 곁을 지키며 살피기도 하겠습니다." 원소가 그 말을 옹계 여겨, 즉시 간옹을 유비와 함께 보내기로 명령했다. 그

러자 곽도가 원소에게 간언했다. "유비가 예전에 유벽을 설득하러 갔을 때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간옹과 함께 형주로 보내신다면, 그는 분명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원소가 말했다. "그대는 너무 의심하지 말게. 간옹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곽도는 탄식을 내뱉으며 물러갔다.

한편, 유비는 먼저 손건을 성 밖으로 보내 관우의 소식을 물어보게 했다. 그러고는 간옹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원소를 떠나 말을 타고 성을 나섰다. 유비가 경계 지역에 이르자 손건이 마중 나왔고, 두 사람은 함께 관정의 장원으로 향했다. 관우는 문 앞까지 마중 나와 유비에게 절을 올리며 두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관정은 두 아들을 데리고 초가집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다. 유비가 그들의 이름을 묻자 관우가 말했다. "이 사람은 저와 성이 같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관녕은 글공부를 하고 작은아들 관평은 무예를 배웁니다." 관정이 말했다. "이제 제 뜻으로는 작은아들을 관 장군을 따라가게 하고 싶은데, 혹시 받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비가 물었다. "나이가 몇인가?" 관정이 대답했다. "열여덟 살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어른의 두터운 뜻을 입었으니, 제 동생에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이 어린 아이를 양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관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관평에게 관우를 아버지라 부르며 절하게 하고, 유비를 백부라 부르게 했다. 유비는 원소가 추격해 올까 걱정되어 서둘러 채비를 하고 길을 떠났다. 관평도 관우를 따라 함께 길을 나섰다. 관정은 길을 배웅하고 돌아왔다. 관우는 와우산 방향으로 가는 길을 물어 길을 잡았다.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주창이 수십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몸에 상처를 입은 채 나타났다. 관우는 그들을 유비에게 데려가 소개했다. 유비가 왜 상처를 입었는지 묻자 주창이 대답했다.

"와우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떤 장수가 말을 타고 홀로 나타나 배원소와 맞붙었습니다. 단 한 합 만에 배원소를 찢어 죽이고는, 그 부하들을 모두 항복시켜 산채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제가 가서 부하들을 끌어내려 했으나, 겨우 몇 명만 따라왔을 뿐 나머지는 모두 겁에 질려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분한 마음에 그 장수와 싸웠으나, 그에게 연거푸 몇 번을 패하며 창에 세 번이나 찔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군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유비가 물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느냐?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이냐?"

주창이 대답했다.

"기세가 매우 웅장하고 당당했으나, 이름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관우가 앞장서서 말을 달리자 유비가 그 뒤를 따라 와우산으로 향했다. 주창이 산 아래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갑옷을 온몸에 갖추 입고 창을 든 한 장수가 말을 몰아 무리를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왔다. 유비가 얼른 채찍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는 저 장수가 혹시 조운 아니냐?" 그 장수는 유비를 보자마자 말에서 굴러 떨어지듯 내려와 길가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알고 보니 정말로 조운이었다. 유비와 관우도 모두 말에서 내려 조운과 만나, 어찌하

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물었다. 조운이 대답했다. "제가 사군(유비님)을 떠난 뒤, 공손찬이 남의 말을 듣지 않아 결국 군사를 잃고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 원소가 여러 번 저를 불러들였으나, 원소 역시 사람을 쓸 줄 모르는 자 같아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서주로 가서 사군을 뵙고자 했으나, 서주가 함락되고 관운장께서 이미 조조에게 돌아갔으며 사군께서는 원소의 휘하에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사군을 찾아가려 했으나 원소가 의아하게 여길까 두려워 차마 가지 못했습니다. 천하를 떠돌며 몸 둘 곳을 찾지 못하던 차에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 배원소가 제 말을 빼앗으려 하기에 그를 죽이고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최근 장비가 고성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려 했으나 사실인지 알 수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군을 뵙게 되니 정말 다행입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관우 역시 지난 일을 들려주었다. 유비가 말했다. "내가 처음 조운을 보았을 때부터 마음속으로 깊이 아끼며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참으로 다행이오!" 조운이 대답했다. "저는 사방을 떠돌며 모실 주군을 찾아 헤맸으나, 유비님 같은 분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곁에서 모실 수 있게 되었으니 평생의 소원을 이룬 기분입니다. 설령 간과 뇌가 땅에 쏟아지는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한스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바로 산채를 불태운 뒤, 사람들을 이끌고 유비가 있는 고성으로 달려갔다. 장비와 미축, 미방이 마중을 나와 그들을 성 안으로 맞이하며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고했다. 두 부인 또한 관우에게 있었던 일

을 모두 이야기하니, 유비는 감격하여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유비는 곧 소와 말을 잡아 제사를 지내며 먼저 천지에 감사의 예를 올린 뒤, 모든 군사에게 노고를 치하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유비는 형제들이 다시 모이고 장수들이 모두 무사히 돌아온 데다, 조운을 새로 얻고 관우 또한 관평과 주창 두 사람을 얻은 것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며칠 동안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후대의 어떤 이가 이 상황을 시로 찬양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그때는 형제들이 멜론 조각처럼 갈라져, 소식마저 끊겨 아득히 들리지 않더니, 오늘날 군신과 형제가 의리로 다시 모이니, 마치 용과 호랑이가 풍운을 만나 만나는구나."

한편, 유비는 관우, 장비, 조운, 손건, 간웅, 미축, 미방, 관평, 주창과 함께 보병과 기병 등 군사 사오천여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유비는 고성을 버리고 여남으로 가서 그곳을 지키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유벽과 공도가 사람을 보내 그를 청해 왔다. 이에 유비는 즉시 군사를 일으켜 여남으로 이동해 주둔하였고, 군사를 모집하고 말을 사들이며 천천히 진격할 계획을 세웠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일단락된다.

한편, 원소는 유비가 돌아오지 않자 크게 노하여 군사를 일으켜 그를 치려 했다. 그러자 곽도가 말했다. "유비는 걱정할 가치도 없는 인물입니다. 오히려 조조가 강력한 적이니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유표가 형주를 차지하고 있다 하나 그리 대단한 세력은 아닙니다. 다만 강동의 손책이 삼강 일대에 위세를 떨치며 여섯 군을 다스리고 있고, 모사들과 무장도 매우 많으니, 사람을 보내 그와 손을 잡게 하여 함께

조조를 공격하게 해야 합니다." 원소는 이 말을 따랐다. 곧바로 편지를 써서 진진을 사신으로 보내 손책을 만나게 했다.

하북의 영웅들이 떠나자, 강동의 호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연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9회 — 소패왕이 노하여 우길을 베고, 벽안아가 강동을 다스리다

小霸王怒斬于吉 碧眼兒坐鎮江東

한편, 손책은 강동을 평정하고 군사와 식량을 넉넉히 갖추었다. 건안 4년, 손책은 노강을 습격하여 유훈을 패배시키고 우번을 통해 예장으로 격문을 보내게 하니, 예장 태수 화흠이 투항해 왔다. 이때부터 손책의 기세는 크게 떨쳐졌고, 장흥을 허창으로 보내 승전보를 전하게 했다. 조조는 손책이 매우 강성해진 것을 알고 탄식하며 말했다. "사자의 새끼라, 참으로 맞서 싸우기 어렵겠구나!" 그러고는 조인의 딸을 손책의 어린 동생 손광에게 시집보내 두 집안이 혼인하게 했다. 장흥은 허창에 머물게 되었다. 손책은 대사마라는 관직을 요구했으나 조조가 허락하지 않자, 이를 원망하며 늘 허창을 습격할 마음을 품었다. 이때 오군 태수 허공이 몰래 사신을 허창으로 보내 조조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

"손책은 용맹함이 마치 항우와도 같습니다. 조정에서는 마땅히 밖으로 영예와 총애를 보여 그를 수도로 불러들여야 하며, 지방에 머물며 세력을 키우게 하여 나중에 근심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신이 서신을 가지고 강을 건너려다 강을 지키던 장병들에게 붙잡혀 손책에게 압송되었다. 손책이 그 서신을 읽고 크게 노하여 사신을 베어버린 뒤, 겉으로는 허공을 불러 의논할 일이 있다고 예우하며 불러들였다. 허공이 도착하자 손책은 서신을 꺼내 보여주며 꾸짖었다. "네놈이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하느냐!" 그러고는 무사들에게 명령하여 그를 목 졸라 죽이게 했다. 허공의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그의 집에 머물던 세 명의 손님은 허공의 원수를 갚고 싶어 했으나, 마땅한 기회를 잡지 못해 한스러워했다.

어느 날, 손책이 군사를 이끌고 단도 서쪽 산에서 사냥을 나갔다. 커다란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자, 손책은 말을 달려 산 위로 쫓아 올라갔다. 한창 사슴을 뒤쫓던 중, 숲속에서 창과 활을 든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손책이 말을 멈춰 세우고 물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한당의 군사들이다. 여기서 사슴을 쏘러 왔다."

손책이 막 고삐를 당겨 떠나려는데, 한 사람이 창을 내질러 손책의 왼쪽 다리를 공격했다. 손책은 깜짝 놀라 급히 허리춤의 칼을 뽑아 말 위에서 내리쳤으나, 칼날이 갑자기 툭 떨어져 나가고 손에는 칼자루만

남게 되었다. 그때 다른 한 사람이 활을 당겨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손책의 뺨에 정통으로 맞았다. 손책은 즉시 뺨에 박힌 화살을 뽑아낸 뒤, 활을 집어 들어 화살을 쏜 자를 향해 쏘아 맞혔고, 그자는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나머지 두 사람이 창을 휘두르며 손책에게 달려들어 난폭하게 찌르며 소리쳤다.

"우리는 허공의 가객들이다! 주인님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손책은 다른 무기가 없었기에 오직 활로 몸을 방어하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두 사람은 물러서지 않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다. 결국 손책은 몸에 여러 차례 창을 맞았고, 말 또한 부상을 입고 말았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정보가 몇 명의 부하를 이끌고 달려왔다. 손책이 크게 외쳤다. "도적을 죽여라!" 정보가 부하들과 함께 일제히 달려들어 허공의 가객들을 베어 흔적도 없이 짓뭇개버렸다. 손책은 얼굴에 피가 가득 흐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정보는 칼로 옷자락을 잘라 상처 부위를 감싼 뒤, 손책을 구출하여 오회로 데려가 치료하게 했다. 훗날 사람들이 허공의 가객 세 명을 기리며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손책은 지혜와 용맹이 강가에서 으뜸이었으나, 산속에서 사냥하다 위기에 빠졌네. 허씨 가문의 세 가객은 의리를 위해 죽음을 택했으니, 몸을 던져 복수한 예양이라 해도 그리 놀랍지 않으리."

한편, 손책은 부상을 입은 채 돌아오자마자 사람을 보내 화타를 불러 치료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타는 이미 중원으로 떠나

고 없었고, 오나라에는 그의 제자만이 남아 있어 대신 치료를 맡게 되었다. 제자가 말했다.

"화살촉에 약을 발라두었으나, 이미 독이 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반드시 백 일 동안은 안정을 취하며 요양해야 뒤탈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화를 내어 기운이 격해지면 상처를 고치기 매우 어렵습니다."

손책은 성격이 매우 급하여 상처가 하루라도 빨리 낫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렇게 이십여 일을 쉬며 요양하던 중, 문득 장흥이 허창에서 보낸 사신을 데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손책이 그 내용을 물었다. 사신이 대답했다.

“조조가 주공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휘하의 모사들도 모두 주공을 경외하고 따르지만, 오직 곽가만은 따르지 않습니다.”

손책이 물었다.

“곽가가 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러느냐?”

사신은 감히 입을 떼지 못했다. 손책이 화를 내며 끈질기게 캐묻자, 사신은 결국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곽가가 조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공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경계심이 없고 준비가 허술하며, 성격이 급하고 꾀가 부족하니 그저 필부의 용맹일 뿐입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소인의 손에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손책은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그까짓 필부가 감히 나를 함부로 판단하다니! 내 반드시 허창을 함락시키고 말겠다!”

손책은 상처가 다 낫기도 전에 곧장 출병할 공리를 했다. 그러자 장소가 간언했다.

“의원은 주공께 백 일 동안은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찌하여 일시적인 분노 때문에 이 귀한 몸을 가볍게 여기려 하십니까?”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원소가 사신 진진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손책이 그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으니, 진진은 원소가 동오와 손을 잡고 외부에서 힘을 보태어 조조를 함께 공격하고자 한다는 뜻을 상세히 전했다. 손책은 크게 기뻐하며 그날 즉시 성루 위에서 장수들을 불러 모아 진진을 대접하는 연회를 베풀었다. 한참 동안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장수들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더니 너도나도 성루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손책이 이상하게 여겨 이유를 물으니, 곁에 있던 이들이 대답했다. "신선의 기운을 가진 분이 방금 성루 아래를 지나가고 있어, 장수들이 그분을 뵈러 가려는 것입니다."

손책이 일어나 난간에 기대어 살펴보니, 한 도인이 학의 깃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갈대 지팡이를 든 채 길 한복판에 서 있었다. 백성들은 모두 향을 피우며 길에 엮드려 절을 하고 있었다. 손책이 화가 나서 말했다. "저 요망한 자는 누구냐? 어서 잡아 오너라!" 곁에 있던 부하들이 말했다. "저분은 성은 우 씨이고 이름은 길이라 합니다. 동방에 거처하며 오나라와 회계 지역을 오가는데, 부적과 신비한 물을 베풀어 사람들

의 만병을 고쳐주니 효험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선이라 부르니 함부로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손책은 더욱 화가 나서 호통을 쳤다. "어서 잡아 오너라! 명령을 어기는 자는 목을 베겠다!"

손책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결국 아래층으로 내려가 우길을 붙잡아 다시 위층으로 끌고 올라갔다. 손책이 꾸짖으며 말했다. "미친 도사 놈이 감히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다니!" 우길이 대답했다. "소도는 낭야궁의 도사입니다. 순제 시절에 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다가 곡양의 샘물 위에서 《태평청령도》라는 신비로운 책을 얻었습니다. 백여 권에 달하는 그 책에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비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소도는 이 책을 얻은 뒤 오직 하늘을 대신해 교화를 펴고 만인을 구제하는 데만 힘써왔을 뿐,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물건 하나라도 취한 적이 없는데 어찌 사람들을 현혹했다고 하십니까?" 손책이 말했다. "남에게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면, 네 옷과 음식은 어디서 났느냐? 너는 황건적 장각 무리와 다를 바 없다. 지금 너를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될 것이다!" 그러고는 곁에 있던 부하들에게 우길을 참하라고 호령했다. 장소가 간언했다. "우 도사는 강동에서 수십 년을 지내며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니, 죽여서는 안 됩니다." 손책이 대꾸했다. "이런 요물 같은 놈을 죽이는 것이 돼지나 개를 잡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여러 신하가 고통스럽게 만류하고 진진 또한 권했으나, 손책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일단 우길을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신하들은 모두 흩어졌고, 진진은 스스로 관역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손책이 관저로 돌아오자, 이미 내시들이 이 일을 손책의 어머니인 오태부인에게 전했다. 오태부인은 손책을 후당으로 불러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 네가 신선과 같은 사람을 옥에 가두려 한다는데, 그 사람은 예전에 많은 이의 병을 고쳐주어 군사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이다. 함부로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손책이 말했다. "그자는 요사스러운 자로, 요술을 부려 사람들을 현혹하니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오태부인이 거듭 간곡히 권했으나, 손책은 "어머니께서는 남의 망령된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옥사리를 불러 우길을 데려와 문초하게 했다. 알고 보니 옥사리들이 모두 우길을 경외하고 믿고 있었기에, 우길이 옥에 있을 때는 모두가 그에게 칼과 수갑을 풀어주었으나 손책이 불러내라고 명령하자 그제야 비로소 칼과 수갑을 찬 채로 나왔다.

손책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옥졸들을 호되게 꾸짖고, 우길을 그대로 옥에 가두게 했다. 그러자 장소를 비롯한 수십 명의 신하가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우길이 신선이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손책에게 간곡히 청했다.

손책이 말했다. “그대들은 모두 글을 읽는 선비들이면서 어찌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가? 옛날 교주 자사 장진이 사악한 가르침을 믿고 거문고를 타며 향을 피우고, 늘 붉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며 자신은 군대의 위세를 높여줄 수 있다고 떠벌리다가 결국 적군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일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늘, 그대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우길을 죽이려는 것은 바로 이런 사악한 가르침을 금하여 사람들의 미혹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자 여범이 말했다. “우길이 비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침 요즘 가뭄이 심하니, 그에게 기우제를 지내게 하여 죄를 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책이 말했다. “좋다, 저 요물이 어떤지 한번 보겠다.”

손책은 즉시 명령을 내려 옥에 있는 우길을 끌어내게 하고, 그를 묶고 있던 형구를 풀어준 뒤 제단에 올라 기우제를 지내게 했다.

우길은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스스로 몸을 밧줄로 묶고 뜨거운 태양 아래 섰다. 이 광경을 구경하려는 백성들이 거리와 골목마다 가득 메웠다. 우길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만백성을 구하기 위해 단비가 내리기를 빌었으나,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구나.” 사람들이 말했다.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면, 주공께서도 반드시 당신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우길이 대답했다. “운명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아마도 피하기 어려울 듯하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손책이 직접 제단에 이르러 명령을 내렸다. “만약 오시(午時)까지 비가 오지 않는다면, 즉시 우길을 불태워 죽여라!” 그러고는 미리 사람을 시켜 마른 땔나무를 쌓아두게 했다. 마침 오시가 다가올 무렵,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바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방의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들었다. 손책이 말했다. “벌써 오시가 다 되어가는데, 먹구름만 가득할 뿐 단비는 내리지 않으니, 저놈이 바로 요물임이 틀림없다!” 손책이 좌우 장수들에게 호통을 쳐 우길을 땔나무 더미 위로 메쳐 놓게 한 뒤, 사방에 불을 붙이자 불길이 바람을 타고 치솟았다. 그때 갑자기 검은 연기 한 줄기가 하늘로 솟구치

더니, 우렁찬 소리와 함께 천둥번개가 동시에 몰아치며 단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저잣거리는 강처럼 변하고 시냇물은 넘쳐흘러, 내린 비가 자그마치 석 자나 되었다. 우길은 땀나무 더미 위에 하늘을 보고 누운 채 크게 한 번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구름이 걷히고 비도 멎으며 다시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관리들과 백성들이 함께 우길을 땀나무 더미 아래로 내려놓고, 묶여 있던 밧줄을 풀어준 뒤 두 손 모아 절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손책은 관리와 백성들이 옷이 젖는 것도 개의치 않고 물속에서 일제히 절을 하는 모습을 보자, 불같이 화를 내며 꾸짖었다. "맑고 흐린 날씨는 하늘과 땅의 정해진 이치거늘, 요사스러운 자가 잠시 그 기회를 틈탄 것 뿐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토록 미혹되어 어지럽게 구느냐!" 손책은 보검을 뽑아 들고 좌우의 병사들에게 우길을 어서 베라고 명령했다. 관리들이 힘써 간언했으나, 손책은 노하여 외쳤다. "너희도 모두 우길을 따라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관리들은 감히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책은 무사에게 호통을 쳐 우길의 목을 단칼에 베어 떨어뜨리게 했다. 그러자 푸른 기운 한 줄기가 나타나더니 동북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손책은 우길의 죄가 요사스럽고 망령됨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그의 시신을 시장에 내걸어 죄를 꾸짖으라고 명령했다.

그날 밤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우길의 시신이 사라졌다. 시신을 지키던 군사들이 이 소식을 손책에게 보고하자, 손책은 크게 노하여 지키던 군사들을 죽이려 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대청 앞으로부터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바로 우길이었다. 손책이 크게 분노하여 칼을 뽑아 베려던 찰나, 갑자기 정

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좌우의 부하들이 급히 손책을 침상으로 옮겨 눕히고 간호하자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오태부인이 병세를 살피러 와서 손책에게 말했다. "내 아들이, 네가 신선을 억지로 죽였으니 이와 같은 재앙을 불러들인 것이로구나." 손책이 웃으며 말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사람을 죽여왔는데, 어찌 재앙을 불러올 리 있겠습니까? 이번 에 요물을 죽인 것은 오히려 큰 화를 끊어낸 것이거늘, 어찌 그것이 저에게 화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태부인이 말했다. "네가 믿지 않고 함부로 대했기에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제라도 좋은 일을 하여 재앙을 달래야 한다." 손책이 대답했다. "제 목숨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요물이 결코 화를 입힐 리 없습니다. 굳이 재앙을 달래려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태부인은 권해도 듣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몰래 좌우 부하들에게 명하여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재앙을 물리치도록 했다.

그날 밤 삼경 무렵, 손책이 내실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더니 등불이 꺼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등불 그림자 아래를 보니 우길이 앞에 서 있었다. 손책이 크게 꾸짖으며 외쳤다. "나는 평생 요망한 것들을 처단하여 천하를 평온하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내가 이미 귀신이 되었으면서 어찌 감히 내 곁에 다가오느냐!" 그러고는 침상 머리에 있던 칼을 집어 던졌는데, 갑자기 우길의 모습이 사라졌다. 이 소식을 들은 오태부인은 근심이 깊어졌다. 손책은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려 병중임에도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어머니가 손책에게 말했다.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베푸는 덕이 참

으로 성대하다'고 하였고, 또 '하늘과 땅의 신령에게 빌라'고도 하셨다. 귀신의 일은 믿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 내가 선생을 억울하게 죽였으니 어찌 응보가 없겠느냐? 내가 이미 사람을 시켜 군의 옥청관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니, 내가 직접 가서 빌고 기도한다면 자연히 안정을 찾을 것이다."

손책은 어머니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마지못해 가마를 타고 옥청관으로 향했다. 도사가 마중 나와 손책에게 향을 피우라고 청했으나, 손책은 향을 피우기만 할 뿐 고맙다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향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흩어지지 않고 커다란 뿔개 모양을 만들더니, 그 위에 우길이 단정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손책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우길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전각을 뛰쳐나갔다. 그런데 전각 문 앞을 보니 우길이 다시 서서 매서운 눈으로 손책을 노려보고 있었다. 손책이 좌우를 둘러보며 "너희들, 저 요괴나 귀신을 보았느냐?"라고 물었으나, 부하들은 모두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할 뿐이었다. 손책은 더욱 화가 나서 허리에 찬 칼을 뽑아 우길을 향해 던졌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칼에 맞아 쓰러졌다. 사람들이 살펴보니 그는 며칠 전 우길을 죽이려 했던 졸병이었는데, 칼이 머리에 박힌 채 일곱 구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손책은 그를 밖으로 메어 나가 장사 지내라고 명령했다.

밖을 내다보니 우길이 도관 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손책이 말했다. "저 도관 또한 요물을 숨겨두는 곳이로구나!" 손책은 도관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무사 500명에게 명령하여 도관을 허물어뜨리게 했다. 무사들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뜯어내려 하자, 갑자기 우

길이 지붕 위에 서서 기와를 땅으로 던져대는 것이 아닌가. 손책이 크게 노하여 도관의 도사들을 모두 쫓아내고 전각에 불을 질러 태워버리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불길이 치솟는 곳을 보니, 우길이 다시 불길 속에서 있었다. 화가 난 손책이 집으로 돌아가니, 이번에는 우길이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손책은 차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곧바로 삼군을 불러 모아 성 밖으로 나가 진을 쳤다. 그리고 장수들을 불러 모아 원소를 도와 조조를 협공할 방도를 논의하려 했다. 그러자 장수들이 모두 말했다. "주공의 몸이 아직 불편하시니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병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군사를 일으켜도 늦지 않습니다."

그날 밤 손책이 진영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우길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다시 나타났다. 손책은 막사 안에서 우길을 향해 끊임없이 호통을 쳤다. 이튿날, 오태부인이 전령을 보내 손책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손책이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뵈니, 태부인은 아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울며 말했다. "아들아, 네 물골이 말이 아니구나!" 손책이 즉시 거울을 가져와 비춰보니, 과연 얼굴이 몹시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좌우를 둘러보고는 탄식했다. "어찌하여 내 모습이 이토록 초췌해졌단 말인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거울 속에 우길이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손책이 거울을 내리치며 크게 비명을 지르자, 얼굴의 상처가 터져 나가며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오태부인은 사람들을 시켜 손책을 부축해 침상에 눕혔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손책이 스스로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이제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구나!”

손책은 즉시 장소 등 신하들과 동생 손권을 침상 앞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천하가 혼란스러운 이때, 오월의 군사력과 삼강의 험준한 지형을 활용한다면 큰일을 도모할 수 있다. 자포(장소의 자)와 너희들은 부디 내 동생을 잘 보살펴 다오.”

이어 손책은 인장과 관인을 손권에게 건네며 말했다.

“만약 네가 강동의 군사를 일으켜 두 진영 사이에서 결단력을 발휘하며 천하와 세력을 다룬다면 나보다 못할 것이 없고, 인재를 등용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각자가 힘을 다해 강동을 지키게 한다면 내가 너보다 못할 것이다. 너는 마땅히 부형이 일궈놓은 사업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스스로 잘 도모해야 한다!”

손권은 크게 통곡하며 인수를 받았다. 손책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제 천명이 이미 다하여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수를 동생에게 넘겨주니, 어머니께서는 아침저녁으로 동생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와 형님의 옛 신하들을 대할 때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네 동생이 아직 어리니 큰일을 맡기기에 부족할까 두렵구나. 이제 어찌하면 좋겠느냐?” 손책이 대답했다. “동생의 재능은 저보다 열 배는 뛰어나니 충분히 큰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살림을 결정하기 어려우면 장소에게 묻고, 바깥일을 결정하기 어려우면 주유에게 물으십시오. 다만 주유가 이곳에 없어 직접 얼굴을 보고 당부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그러고는 또 동

생들을 불러 당부했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는 모두 손권을 도와야 한다. 만약 종족 중에서 감히 판마음을 품는 자가 있다면 모두 힘을 합쳐 처단하라. 혈육이라 할지라도 반역을 꾀한다면 조상 묘에 들어와 안장될 수 없을 것이다." 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명을 받들었다. 이어 아내 고 부인을 불러 말했다. "나와 당신이 불행히도 도중에 헤어지게 되었구려. 당신은 마땅히 시어머니를 효성으로 모셔야 하오. 아침저녁으로 당신 여동생이 나를 찾아오면, 주유에게 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내 동생을 정성껏 도와 우리 사이의 깊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말ियो." 말을 마친 손책은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다. 향년 스물여섯이었다. 후대의 사람들이 시로 그를 찬양하기를 다음과 같았다. "동남쪽 땅을 홀로 호령하니 사람들은 그를 소패왕이라 부르네. 계책을 세움은 호랑이가 웅크린 듯하고, 결단함은 매가 날아오르는 듯하구나. 그 위세는 세 강을 진정시키고 이름은 온 세상에 향기로웠건만, 임종의 순간 큰일을 남기며 오직 주유에게만 마음을 맡겼도다."

손책이 죽자 손권은 침상 앞에 엎드려 통곡했다. 장소가 말했다. "지금 금은 장군께서 슬퍼하고만 계실 때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장례를 치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와 국사를 돌보셔야 합니다." 그제야 손권은 눈물을 닦았다. 장소는 손정에게 장례를 맡기고, 손권을 강당으로 모셔 문무백관의 인사를 받게 했다. 손권은 턱이 넓고 입이 컸으며, 푸른 눈에 보랏빛 수염을 가진 풍채가 당당한 모습이었다. 예전에 한나라 사신 유완이 오나라에 왔을 때, 손씨 형제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손씨 형제들을 두루 살펴보니, 비록 저마다 재능과 기개가 뛰어나긴 하나 모두 복이 오래가지 못하더군. 오직 손권만이 생김새

가 기이하고 위엄이 있으며 골격이 비범하니, 이는 크게 귀해질 관상일 뿐만 아니라 장수할 상이니 다른 형제들이 모두 미치지 못하네."

한편, 당시 손권은 손책의 유언을 받들어 강동의 대사를 맡게 되었다. 아직 모든 일을 안정시키기도 전에, 주유가 파구에서 군사를 이끌고 오나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손권이 말했다. "주유가 돌아왔으니 이제 걱정이 없구나."

본래 주유는 파구를 지키고 있었는데, 손책이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안을 드리러 오던 길이었다. 하지만 오군에 도착하기 전 손책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와 상을 치르게 된 것이었다. 주유는 손책의 영구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절을 올렸다. 이때 오태부인이 나와 주유에게 손책이 남긴 유언을 전했다. 주유는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충성을 다해 대업을 잇겠습니다!"

잠시 후 손권이 들어왔다. 주유가 예를 갖추어 인사를 마치자 손권이 말했다. "공께서는 형님의 유명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유가 머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다. "간과 뇌를 땅에 쏟아 붓는 한이 있더라도, 저를 알아주신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손권이 다시 물었다. "이제 형님의 가업을 이어받았으니, 이를 지켜내기 위해 어떤 방책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주유가 말했다. "예로부터 '사람을 얻는 자는 번창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반드시 식견이 높고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인재를 보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강동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손권이 말했다. "형님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르면, 안으로는 자포(장소)에게 일을 맡기고 밖으로는

모든 일을 공근(주유)에게 의지하라 하셨습니다." 주유가 말했다. "자포(장소)는 어질고 재능이 뛰어난 선비이니 큰 책임을 맡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저의 재주가 부족하여 저를 믿고 맡겨주신 그 무거운 기대를 저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장군을 보좌할 인물을 한 명 추천하고자 합니다."

손권이 누구냐고 묻자, 주유가 대답했다. "성은 노이고 이름은 숙이며, 자는 자경입니다. 임회동천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가슴 속에 깊은 도락을 품고 있고, 뱃속에는 기묘한 계책을 숨기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를 여의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며, 집안이 매우 부유하여 일찍이 재물을 나누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거소(居巢)의 현장으로 있을 때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임회를 지나다가 식량이 부족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숙의 집에 공간 두 채에 각각 삼천 곡의 쌀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노숙은 즉시 공간 하나를 가리키며 통째로 내주었는데, 그 호탕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칼싸움과 말타기, 활쏘기를 즐기며 곡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동성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친구인 유자양은 그에게 함께 초호로 가서 정보(鄭寶)를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노숙은 망설이며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군께서 속히 그를 부르셔야 합니다."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주유를 보내 노숙을 초빙하게 했다. 주유는 명을 받들어 직접 찾아갔고, 예를 갖추어 인사를 마친 뒤 손권이 그를 흠모하고 있다는 뜻을 상세히 전했다. 그러자 노숙이 말했다. "최근 유자양이 저를 초호 쪽으로 부르고 있으니, 저는 그쪽으로 가려 합

니다." 주유가 대답했다. "옛날 마원이 광무제에게 말하기를, '요즘 세상은 임금이 신하를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신하 또한 임금을 고르는 시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손 장군께서는 어진 이를 친히 대접하고 인재를 아끼시며, 세상에 보기 드문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대는 다른 방도를 찾으실 필요 없이, 그저 저와 함께 동오로 가서 뜻을 함께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노숙이 그의 말을 따르기로 하여, 마침내 주유와 함께 손권을 찾아왔다. 손권은 그를 매우 공경하며 하루 종일 지칠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모든 관리가 물러가고 손권은 노숙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밤이 깊어서야 나란히 누워 발을 맞대고 휴식을 취했다. 한밤중이 되자 손권이 노숙에게 말했다. "지금 한나라 왕실은 위태롭고 천하는 사방에서 소란스럽구나. 나는 부형(父兄)의 유업을 이어받아 제 환공과 진 문공 같은 패업을 이루고 싶은데,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는가?" 그러자 노숙이 대답했다. "옛날 한나라 고조가 의제를 받들어 모시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항우가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조조는 항우에 비견될 만하니, 장군께서 어찌 제 환공이나 진 문공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생각건대, 한나라 왕실은 다시 일으키기 어렵고 조조 또한 한꺼번에 제거하기는 힘듭니다. 장군을 위한 유일한 방책은 강동에 술밭처럼 굳건히 자리 잡아 천하의 정세를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북방에 일이 많아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황조를 소탕하고 유표를 공격하십시오. 마침내 장강이 끝나는 곳까지 세력을 넓혀 그곳을 근거지로 삼으십시오. 그런 뒤에 황제의 호를 세워 천하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고조가 이룩한 업적입니다."

손권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옷을 걸치고 일어나 감사를 표했다. 이튿날 노숙에게 두둑한 선물을 내리고, 옷과 휘장 등 여러 물품을 노숙의 어머니에게도 선물했다. 노숙은 다시 한 사람을 손권에게 추천했는데, 그는 학식이 넓고 재주가 뛰어나며 어머니를 지극히 효도로 섬기는 사람이었다. 성은 제갈이고 이름은 근이며, 자는 자유로, 낭야와 남양 출신이었다. 손권은 그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다. 제갈근은 손권에게 원소와는 통하지 말고 조조의 뜻을 따르며 때를 기다려 도모하라고 권했다. 손권이 이 말에 따라 사신 진진을 돌려보내 원소와 절교한다는 서신을 전하게 했다.

한편, 조조는 손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 강동으로 내려가려 했다. 그러자 시어사 장홍이 간언했다. "사람의 상종을 틈타 공격하는 것은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 공격했다가 패하기라도 하면, 맺어두었던 화친 관계가 원수로 변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 기회에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조는 이 말이 옳다고 여겨, 즉시 손권을 장군으로 봉하고 회계 태수를 겸임하게 했다. 또한 장홍을 회계 도위로 삼아 인장을 가지고 강동으로 가게 했다. 손권은 매우 기뻐하며 장홍이 오나라로 돌아오자, 그에게 장소와 함께 정사를 돌보게 했다. 장홍은 손권에게 또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성은 고이고 이름은 용이며 자는 원탄으로, 중랑 채옹의 제자였다. 그는 말수가 적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성품이 엄격하고 대쪽 같았다. 손권은 그를 군승(郡丞)으로 삼아 태수의 업무를 대행하게 했다. 이때부터 손권의 위세는 강동을 뒤흔들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얻었다.

한편, 진진이 원소에게 돌아가 보고하기를, "손책이 이미 죽고 손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조는 손권을 장군으로 봉하여 외부의 협력자로 삼으려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소는 크게 분노하여, 즉시 기주, 청주, 유주, 병주 지역의 군사 70여 만을 일으켜 다시 허창을 공격하러 나섰습니다.

강동의 전쟁이 겨우 잦아들려는데, 북방에는 다시 전쟁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과연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0회 — 관도를 전투하여 본초가 패하고, 오소를 습격하여 맹덕이 군량을 태우다

戰官渡本初敗績 劫烏巢孟德燒糧

한편, 원소가 군사를 일으켜 관도를 향해 진격하자 하후돈이 급보를 보냈다. 조조는 7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적을 맞으러 나섰으며, 순욱을 허도에 남겨 성을 지키게 했다. 원소의 군대가 출정하려 할 때, 옥에 갇혀 있던 전풍이 상소를 올려 간언했다. "지금은 잠시 조용히 굳게 지키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함부로 대군을 일으켰다가는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봉기가 원소에게 참소했다. "주군께서는 인의를 갖춘 군대를 일으키시는데, 전풍이 어찌하여 이토록 불길한 말을 내뱉는단 말입니까?"

원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전풍을 처형하려 했다. 그러자 여러 관리들이 나서서 전풍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원소는 분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내가 조조를 격파한 뒤에 반드시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그러고는 즉시 군사를 몰아 진격하라고 명령했다. 들판에는 깃발이 가득했고, 칼과 창은 숲을 이룬 듯 장관을 이루었다. 군대가 양무에 이르자 그곳에 진영을 치고 머물렀다.

이때 저수가 말했다. "우리 군사는 비록 수가 많으나 용맹함이 저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저들 군사는 비록 정예이나 군량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저들은 군량이 부족하니 급히 싸우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우리 군사는 군량이 충분하니 천천히 수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시간을 끌며 버틸 수만 있다면, 저들은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원소가 노하여 소리쳤다. "전풍은 우리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니, 내가 돌아오는 날 반드시 처형하겠다! 너는 어찌 감히 또 이와 같이 말하느냐!" 원소는 좌우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저수를 군중에 가두어 버렸다. "조조를 물리친 뒤에 전풍과 함께 엄히 다스릴 것이다!"

이후 원소는 70만 대군에게 명령을 내려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영을 치게 하니, 그 연결된 길이가 90여 리에 달했다.

첩자가 적의 형세를 살핀 뒤 관도에 그 소식을 전했다. 조조의 군대가 새로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원소의 군사들은 모두 겁을 먹었다. 조조는 여러 책사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순유가 말했다. "원소의 군사가 아무리 많다 한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 군사들은 모두 정예병이라 한 사람이 열 명의 적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패는 얼마나 빨리 싸움을 끝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 만약 싸움이 길어져 군량과 군수품이 바닥나게 되면 그때는 정말 큰 걱정이 될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그대의 말이 내 생각과 딱 맞는구려."

말을 마친 조조는 즉시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려 북을 치며 진격하게 했다. 원소의 군대가 이를 맞으러 나왔고, 양측은 진을 치고 대치했다. 심배는 노수 만 명을 양 날개에 배치하고, 궁수 오천 명을 군기 안쪽에 매복시켜 신호가 떨어지면 일제히 공격하기로 약속했다.

북소리 세 번이 울리자, 원소는 금빛 투구와 갑옷을 입고 비단 도포에 옥띠를 두른 채 말을 타고 진영 앞에 나타났다. 그 좌우로는 장합, 고람, 한맹, 순우경 등 여러 장수가 줄지어 늘어섰는데, 깃발과 군기들이 위엄 있게 휘날려 그 기세가 매우 엄정했다. 한편 조조의 진영에서는 문을 여는 깃발이 올라가더니 조조가 말을 타고 나왔다. 허저, 장료, 서황, 이전 등이 각자 무기를 든 채 앞뒤에서 조조를 호위했다. 조조가 채찍으로 원소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천자님을 대신하여 그대를 대장군으로 천거하였거늘, 어찌하여 반역을 꾀하는가?" 원소가 노하여 외쳤다. "그대는 한나라의 상국이라는 이름을 빌려 쓰고 있지만, 실상은 한나라의 도적일 뿐이다!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니 왕망이나 동탁보다도 더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반역자로 몰아세우는가!" 조조가 대답했다. "나는 지금 조서를 받들어 그대를 토벌하러 왔다!" 원소가 맞받아쳤다. "나는 황제의 옷띠에 담긴 밀지를 받들어 도적을 토벌하러 왔다!"

조조가 노하여 장료를 출전시켰다. 이에 장합이 말을 달려 맞이했다. 두 장수가 마주하여 사오십 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조조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감탄했다. 허저가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직접 싸움을 도우러 나가자, 고람이 창을 내질러 이를 막아섰다. 네 명의 장수가 서로 맞붙어 격렬하게 싸웠다. 조조는 하후돈과 조홍에게 각각 삼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적진을 향해 일제히 돌격하라고 명령했다. 심배는 조조의 군사가 진영을 향해 돌격해 오는 것을 보고 즉시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했다. 양쪽에서 수만 발의 화살이 쏟아졌고, 수레 안의 궁수들도 일제히 진영 앞으로 나와 화살을 퍼부었다. 조조의 군사는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남쪽으로 급히 후퇴했다. 원소가 병사들을 몰아 추격하자 조조의 군사는 크게 패하여 모두 관도까지 물러났다. 원소는 군대를 옮겨 관도 근처까지 압박하며 진을 쳤다. 심배가 말했다. "지금 십만 병력을 뽑아 관도를 지키게 하고, 조조의 진영 앞에 토산을 쌓아 병사들이 위에서 진영 안을 내려다보며 화살을 쏘게 합시다. 조조가 이를 버리고 떠난다면 우리가 이 요충지를 차지할 수 있으니, 허창도 곧 함락될 것입니다."

원소가 그 명령을 따랐다. 원소는 각 진영에서 정예 병사들을 뽑아 철갑과 흙 바구니를 들려 조조의 진영 근처로 보내게 했다. 병사들은 흙을 쌓아 올려 거대한 산을 만들었다. 조조의 진영에서는 원소군이 토산을 쌓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맞서 싸우려 했으나, 심배가 배치한 궁수들이 길목을 꼭 틀어쥐고 막아선 탓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열흘 만에 토산은 쉼 개가 넘게 쌓였고, 산 위에는 높은 망루가 세워졌으며 그 위에는 궁수들이 배치되어 화살을 쏘아댔다. 조조의 군사들은 크게 겁에 질려 모두 화살을 막는 방패를 앞세우고 수비에만 급급했다.

토산 위에서 북소리나 신호가 울릴 때마다 화살이 비 오듯 쏟아졌다. 조조의 군사들이 방패를 덮고 땅에 엎드려 있으면, 원소군은 함성을 지르며 비웃었다.

조조는 군대가 혼란에 빠진 것을 보고 책사들을 불러 모아 계책을 물었다. 유엽이 나아가 말했다. "발석차를 만들어 저 토산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조조는 즉시 유엽에게 설계도를 만들게 하여, 밤을 새워 수백 대의 발석차를 제작하게 했다. 이 발석차들을 진영 벽을 따라 배치하고 토산의 사다리 쪽을 정면으로 겨냥하게 했다. 궁수들이 화살을 쏘는 타이밍에 맞춰 진영 안에서 일제히 발석차를 작동시키자, 커다란 돌들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 토산 위로 마구 쏟아졌다. 피할 곳이 없던 궁수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 나갔다. 원소군은 이 무시무시한 기계를 보고 '벽력차'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이로 인해 원소의 군대는 높은 곳에 올라 화살을 쏘지 못했다. 이때 심배가 또 다른 계책을 내놓았다. 군사들에게 철삽을 들려 땅을 파게 하여 조조의 진영 안까지 통로를 뚫으라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굴착군'이라 불렀다. 조조의 군사들이 산 뒤편에서 원소의 군대가 땅을 파는 것을 보고 조조에게 보고했다. 조조가 유엽에게 대책을 묻자 유엽이 말했다.

"원소의 군대는 정면 공격 대신 몰래 땅을 파서 통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영 밑을 뚫고 들어오려는 것입니다."

조조가 "그것을 어떻게 막겠느냐?"라고 묻자 유엽이 대답했다.

"진영 주변을 따라 깊은 참호를 파면, 저들이 만든 땅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조조는 즉시 밤을 새워 군사를 보내 참호를 팠다. 원소의 군대가 땅굴을 파서 참호 근처까지 도달했으나, 참호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애꿎은 군사력만 낭비하게 되었다.

한편, 조조는 관도에서 수비 중이었는데, 8월부터 9월 말까지 군사력이 점점 줄어들고 식량과 풀도 떨어지자 관도를 버리고 허도로 후퇴할까 고민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던 차에, 사람을 허도로 보내 순욱에게 물어보게 했다. 순욱은 서신을 보내 답했다. "명령하신 대로 나아갈지 물러날지를 결정하기 위해 답을 올립니다. 지금 원소가 모든 군사를 이끌고 관도에 모여 명공과 승부를 겨루려 하고 있습니다. 명공께서는 아주 적은 병력으로 거대한 세력에 맞서고 계시니, 만약 제압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상대에게 빈틈을 보이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천하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기회입니다. 원소의 군사는 비록 많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공의 신묘한 무력과 밝은 지혜라면 어찌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비록 군량이 부족하더라도, 과거 초나라와 한나라가 형양과 성고에서 대치하던 때만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명공께서 지금 땅을 그어 지키며 적의 목을 조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니, 적의 실정이 드러나고 세력이 고갈되면 반드시 번고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발한 계책을 써야 할 때이니, 절대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디 명공께서 깊이 살피어 결정하시옵소서."

조조는 서신을 받고 크게 기뻐하며, 장병들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성을 지키라고 명했다. 원소의 군대는 약 30여 리쯤 물러갔고, 조조는 장수들을 보내 진영 밖을 순찰하게 했다. 이때 서황의 부장인 사환이 원소군의 첩자를 붙잡아 서황에게 데려왔다. 서황이 그 첩자에게 군의 허실을 묻자, 첩자가 대답했다. "아침저녁으로 대장 한맹이 군량미를 실어 우리 진영 앞까지 보급하러 오는데, 그전에 먼저 우리에게 길을 살피라고 시켰습니다." 서황은 즉시 이 사실을 조조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순유가 말했다. "한맹은 그저 힘만 센 무부일 뿐입니다. 만약 가벼운 기병 수천 명을 이끌고 사람을 보내 길목에서 습격해 군량을 끊어버린다면, 원소의 군대는 스스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조조가 물었다. "누가 갈 수 있겠느냐?" 순유가 답했다. "서황을 보내시면 됩니다."

조조는 곧 서황에게 부하 사환과 병사들을 거느리고 먼저 나가게 하고, 뒤이어 장료와 허저에게 병력을 이끌고 가서 지원하라고 명했다. 그날 밤, 한맹은 수천 대의 식량 수레를 몰고 원소의 진영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한창 이동하던 중, 산골짜기에서 서황과 사환이 이끄는 군사가 길을 가로막자 한맹은 말을 달려 맞서 싸웠다. 서황이 맞붙어 싸우는 사이, 사환은 군사들을 흩어놓고 식량 수레에 불을 질렀다. 한맹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말을 돌려 도망쳤다. 서황은 군사들을 재촉해 남은 군수 물자를 모두 태워버렸다. 한편 원소의 진영에서는 북서쪽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의아해하고 있는데, 패배하여 도망쳐 온 군사가 달려와 "식량이 약탈당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원소는 급히 장합과 고람을 보내 큰길을 가로막게 했으나, 마침 서황이 군량을 불태우고 돌아오던 길에 마주치고 말았다. 두 군대가 막

맞붙으려는 찰나, 뒤쪽에서 장료와 허저의 군대가 도착했다. 양쪽에서 협공을 가하자 원소의 군사들은 흩어져 달아났고, 네 장수는 군사를 하나로 모아 관도 진영으로 돌아갔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상을 두둑이 내렸고, 진영 앞에 군사를 나누어 배치하여 서로를 보조할 수 있는 형세를 갖추었다.

한편, 한맹이 패하여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자 원소는 크게 노하여 한맹을 베려 했으나, 여러 신하가 만류하였다. 심배가 말했다. "군사를 움직일 때는 식량이 가장 중요하니,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소는 군량을 쌓아둔 곳이니, 반드시 정예 병력을 보내 지키게 해야 합니다." 원소가 말했다. "내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으니, 그대는 엽도로 돌아가 군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감독하십시오." 심배는 명을 받들어 떠났다. 원소는 대장 순우경을 보내 부장 수원진, 한거자, 여위황, 조예 등과 함께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소를 지키게 했다. 그런데 순우경은 성격이 강직한 데다 술을 무척 좋아하여 군사들이 그를 두려워했는데, 오소에 도착하자마자 온종일 여러 장수와 모여 술만 마셔댔다.

한편, 조조군의 군량이 바닥나자 조조는 급히 사자를 허도로 보내 순욱에게 서둘러 군량을 마련하여 밤낮을 가리지 말고 군영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자가 서신을 품고 길을 떠난 지 채 30리도 못되어 원소군의 포로가 되었고, 모사 허유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허유의 자는 자원인데, 그는 젊은 시절 조조와 친구 사이였으나 지금은 원소의 휘하에서 모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원소군이 사자가 가져온 조조의 서신을 뒤져보니 군량을 재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허유는 곧장 원소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조조가 관도에 진을 치고 우리와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으니, 허도는 분명 비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군사 일부를 나누어 밤을 틈타 허도를 기습한다면 허도를 함락시키고 조조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조조의 군량이 다 떨어졌으니, 바로 이 기회를 틈타 두 갈래 길로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자 원소가 말했습니다.

"조조는 궤계가 매우 많은 자다. 이 서신은 적을 유인하기 위한 속임수일 것이다."

허유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도리어 우리가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업군에서 사자가 와서 심배가 보낸 서신을 올렸다. 서신에는 먼저 군량 운반에 관한 일이 적혀 있었고, 뒤이어 허유가 기주에 있을 때 민간의 재물을 함부로 받아 챙겼으며, 조카와 자식들을 시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과 식량을 갈취하게 하여 지금 그 자식과 조카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원소는 서신을 읽고 크게 노하며 외쳤다. "이런 천박한 놈 같으니! 네가 감히 내 앞에서 계책을 내놓겠다고 얼굴을 들이밀다니! 너는 조조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더니, 지금도 그놈의 재물을 받고 첩자가 되어 우리 군대를 속이며 뒷구멍으로 빼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마땅히 목을 베어야 하나, 이번에는 일단 목숨만은 살려두겠다. 당장 물러가라!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허유가 밖으로 나와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했다.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니, 이런 자와는 도저히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없구나! 내 자식과 조카마저 이미 심배에게 해를 입었는데, 내가 무슨 낮으로 다시 기주 사람들을 보겠는가!" 말을 마친 허유가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베려 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칼을 빼앗으며 만류했다. "공께서 어찌 이토록 목숨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원소가 곧은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중에는 반드시 조조에게 패할 것입니다. 공께서는 이미 조조와 구면이시니, 어찌 어둠을 버리고 밝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이 말에 허유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곧장 조조에게로 향했다. 후세의 사람들이 시를 지어 다음과 같이 탄식했다.

"원소의 호기가 중원을 뒤덮을 듯했으나, 관도에서 대치하며 탄식만 남겼구나. 만약 허유의 계책을 귀하게 썼더라면, 어찌 천하가 조조의 손에 넘어갔겠는가?"

한편, 허유는 몰래 진영을 빠져나와 곧장 조조의 진영으로 향했다. 길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붙잡히자 허유가 말했다. "나는 조조 승상의 옛 친구이니, 어서 남양에서 온 허유가 찾아왔다고 전해주시오." 병사들은 서둘러 진영 안으로 이 소식을 보고했다. 마침 조조는 옷을 갈아 입고 잠시 쉬려던 참이었다. 허유가 몰래 진영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자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미처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마중을 나갔다. 멀리서 허유가 보이는 것을 보자 조조는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었고, 허유와 손을 맞잡고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조조가 먼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자, 당황한 허유가 급히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그대는 한나라의 승상인데, 나는 일개 평민일 뿐이니 어찌 이리도 겸손하게

대하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그대는 나의 옛 친구인데, 어찌 명예나 관직 따위로 높고 낮음을 따지겠소!" 허유가 말했다. "제가 주인을 잘 가리지 못해 원소 밑에 몸을 두었습니다만,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계책을 따르지도 않기에, 이제 그를 버리고 옛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조조가 말했다. "자원이 그대처럼 와주었으니 이제 내 일이 성사되겠구려. 어서 원소를 격파할 계책을 알려주시오." 허유가 말했다. "제가 전에 원소에게 경기병을 이용해 허도를 빈틈없이 습격하여 앞뒤로 공격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조조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만약 원소가 그대의 말을 따랐다면 내 일이 이미 망했을 것ियो!" 허유가 물었다. "지금 군량은 얼마나 남아 있소?" 조조가 답했다. "일 년은 버틸 수 있소." 그러자 허유가 웃으며 말했다.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반년 정도는 있을 것ियो."

허유는 소매를 뿌리치며 일어나 급히 막사 밖으로 나가며 외쳤다.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믿고 찾아왔거늘, 공께서 나를 이토록 속이려 하시다니, 어찌 내가 바랐던 일이겠소!"

조조가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자원,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오. 아직 사실대로 말할 기회가 있소이다. 군량은 아직 석 달은 버틸 수 있소."

허유가 비웃으며 말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맹덕을 간사한 영웅이라 하더니, 과연 틀린 말이 아니구려."

조조 역시 웃으며 말했다. "병법에 속임수를 마다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 못했소?" 그러고는 허유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군량은 사실 이번 달 분량뿐ियो."

허유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나를 속이지 마시오! 군량은 이미 바닥났소!"

조조가 깜짝 놀라 물었다. "그걸 어찌 아시오?"

허유는 조조와 순욱이 주고받은 서신을 꺼내 보여주며 물었다. "이 편지는 누가 쓴 것이요?"

조조가 경악하며 물었다. "그걸 어디서 얻었소?"

허유는 첩자를 잡아낸 일을 말해주었다. 조조는 허유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원, 그대가 옛 인연을 생각해서 찾아왔으니, 부디 내게 가르침을 주시오."

허유가 말했다. "명공께서는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대군을 상대하먼서도, 단번에 승기를 잡을 방도를 구하지 않으시니 이는 죽음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는데, 사흘도 채 걸리지 않아 원소의 백만 대군을 싸우지도 않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명공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조조가 기뻐하며 말했다. "어서 그 좋은 계책을 들려주시오."

허유가 말했다. "원소의 군량과 군수물자는 모두 오소에 쌓여 있고, 지금 순우경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우경은 술을 좋아하여 경계가 허술합니다. 명공께서는 정예병을 선발하여, 원소의 장수 장기(蔣奇)가 군량을 보호하러 왔다고 거짓으로 속여 그곳을 습격하십시오.

그 틈을 타 군량과 수레들을 모두 불태워버리면, 원소의 군대는 사흘도 안 되어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허유를 정중히 대접하고 그를 진영에 머물게 했다.

다음 날, 조조는 정예병 오천 명을 직접 선발하여 오소를 습격해 군량을 빼앗을 준비를 했다. 장료가 말했다.

"원소가 군량을 쌓아둔 곳인데 어찌 대비가 없겠습니까? 승상께서는 가볍게 움직이셔서선 안 됩니다. 혹시 허유가 속임수를 쓰는 것일까 두렵습니다."

조조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허유가 온 것은 하늘이 원소를 패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군의 식량이 부족해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허유의 계획을 쓰지 않는다면 그저 앉아서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꼴밖에 안 된다. 만약 그에게 속임수가 있었다면 어찌 우리 진영에 머물겠느냐? 게다가 나 역시 오소를 습격하고 싶어 한 지 오래되었다. 이번 군량 습격은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계획이니, 그대는 의심하지 말게나."

장료가 다시 말했다.

"그래도 원소가 빈틈을 타 공격해올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이미 철저히 준비해 두었네."

조조는 즉시 순유, 가후, 조홍에게 허유와 함께 본진을 지키게 했다. 하후돈과 하후연에게는 한 부대를 맡겨 왼쪽에 매복시키고, 조인과 이 전에게는 한 부대를 맡겨 오른쪽에 매복시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게 했다. 장료와 허저를 앞세우고 서황과 우금을 뒤에 배치했으며, 조조 본인이 여러 장수와 함께 중앙에 섰다. 총 오천 명의 군사가 원소군의 깃발을 내걸고 행군했다. 군사들은 모두 짚을 묶어 등에 지고, 입에는 재갈을 물었으며 말에도 재갈을 물렸다. 황혼 무렵, 이들은 오소를 향해 진군했다. 그날 밤은 별빛이 하늘 가득히 빛나고 있었다.

한편, 저수는 원소에 의해 군중에 갇혀 있었다. 그날 밤, 저수는 밤 하늘에 별들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감시관에게 명하여 자신을 중정으로 데려오게 한 뒤 하늘의 형상을 살폈다. 그러다 문득 금성(태백성)이 거꾸로 움직이며 우수와 두수 별자리를 침범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외쳤다.

"재앙이 곧 닥치겠구나!"

저수는 밤을 도와 원소를 만나기를 간청했다. 당시 원소는 이미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으나, 저수가 긴히 보고할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물었다. 저수가 말했다.

"방금 하늘의 형상을 보니, 금성이 유성(柳星)과 귀성(鬼星) 사이를 거꾸로 지나며 우수와 두수 별자리로 빛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적군이 쳐들어와 약탈할 징조이니, 오소의 군량 창고를 반드시 경계해

야 합니다. 어서 정예병과 용맹한 장수를 보내 산길과 좁은 길목을 순찰하게 하여 조조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 원소가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이미 죄를 지은 자인데, 어찌 감히 망령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느냐!"

이어 원소는 감시관을 향해 호통을 쳤다.

"내가 너에게 저수를 가두라고 명했는데, 어찌 감히 밖으로 내보내느냐!"

원소는 감시관을 처형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 저수를 다시 압송하게 했다. 저수는 밖으로 나오며 눈물을 닦고 탄식했다.

"우리 군이 곧 망할 터인데, 내 시신이 어디에 떨어질지조차 모르겠구나!"

훗날 사람들이 저수의 처지를 두고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탄식했다.

"귀에 거슬리는 충언을 하다 도리어 원수가 되었으니, 독단적인 원소는 지략이 부족하구나. 오소의 군량이 다하면 근간이 뿔힐 것을, 아직도 기주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구나."

한편,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밤을 틈타 행군하며 원소의 다른 진영들을 차례로 지나갔다. 진영의 병사들이 어느 군대의 말인지 물으면,

조조는 사람을 보내 "장기가 명령을 받고 오소의 군량을 지키러 가는 길이다"라고 대답하게 했다. 원소의 군사들은 자기 부대의 깃발인 것을 보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 곳을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장기의 군사라고 속였더니 아무런 방해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오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네 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조조는 군사들에게 짚단을 가져다 주변에 쌓고 불을 붙이게 한 뒤, 장수들에게 북을 치며 요란하게 진격하라고 명령했다. 마침 순우경은 장수들과 술을 마시고 막 장막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북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자 급히 일어나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라고 물었다. 그러나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갈고리에 걸려 진영 밖으로 끌려 나가고 말았다.

한편, 군량을 운반하고 돌아오던 수원진과 조예는 진영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급히 구하러 달려왔다. 조조의 군사가 이를 보고 조조에게 보고하며 "뒤에서 적군이 오고 있으니 군사를 나누어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조조가 크게 호통을 쳤다. "장수들은 오직 힘을 다해 앞으로 전진하라! 적이 등 뒤에 닥쳐야 그때 싸울 것이냐!" 이 말에 모든 군사가 앞다투어 적을 베기 위해 돌격했다.

순식간에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수원진과 조예 두 장수가 병사를 몰고 구하러 왔으나, 조조가 말을 돌려 맞서 싸우는 바람에 적의 기세를 이기지 못하고 모두 조조의 군사에게 죽임을 당했다. 결국 군량은 모조리 불타 없어졌다. 포로로 잡힌 순우경을 조조가 보자, 조조는 그의 귀와 코, 손가락을 잘라 말에 묶은 뒤 다시 원소의 진영으로 돌려보내 망신을 주었다.

한편, 원소는 막사 안에서 북쪽 하늘이 불길로 가득하다는 보고를 듣고, 오소가 함락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급히 막사 밖으로 나가 문무백관을 불러 모은 뒤, 군사를 보내 구원할 방법을 논의했다. 장합이 말했다. "제가 고람과 함께 가서 구원하겠습니다." 그러자 광도가 가로막았다. "안 됩니다. 조조군이 군량을 약탈하러 나갔으니 조조가 직접 움직였을 것입니다. 조조가 자리를 비웠다면 본진은 비어 있을 테니, 차라리 군사를 보내 조조의 진영을 먼저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조조가 소식을 듣고 반드시 급히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빈이 썼던 '위나라를 공격하여 조나라를 구한다(위위구조)'는 계책입니다." 장합이 반박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조조는 책략이 많아 밖으로 나갈 때도 반드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안을 빈틈없이 지켜둘 것입니다. 지금 조조의 진영을 공격했다가 함락시키지 못하면, 순우경 등이 사로잡히고 우리 모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광도가 다시 말했다. "조조가 오로지 군량을 빼앗는 데만 정신이 팔렸을 텐데, 어찌 진영에 병사를 남겨두었겠습니까?"라며 몇 번이고 조조의 진영을 공격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원소는 장합과 고람에게 군사 5천 명을 주어 관도에 있는 조조의 진영을 치게 했고, 장기에게는 군사 1만 명을 주어 오소를 구하러 가게 했다.

한편, 조조는 순우경의 부하들을 흩어지게 하고 죽인 뒤, 그들이 입었던 갑옷과 깃발을 모두 빼앗았다. 그러고는 마치 순우경의 부대 일부가 패하여 본진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꾸며 산속의 외진 길로 향했다. 마침 그곳에서 장기 군사들과 마주치자, 조조의 부하들은 자신들이 오소에서 패해 도망치는 군사들이라고 거짓으로 말했다. 장기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말을 몰아 지나가려 했다. 이때 장료와 허저가 갑자기

나타나 "장기, 거기 서라!" 하고 크게 외쳤다. 장기는 미처 손쓸 새도 없이 장료의 칼에 말 아래로 떨어져 죽었고, 그의 부하들도 모두 몰살 당했다. 또한 조조는 사람을 앞세워 "장기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오소의 병사들을 흩어놓았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게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원소는 오소로 지원군을 더 보내지 않고, 그저 관도로 보낼 병력만 조금 더 보탬을 뿐이다.

한편, 장합과 고람이 조조의 진영을 공격하자 왼쪽에서는 하후돈이, 오른쪽에서는 조인이, 가운데로는 조홍이 일제히 달려 나와 세 차례나 몰아붙였다. 이에 원소의 군대는 크게 패퇴했다. 뒤이어 지원군이 도착했을 때 조조마저 뒤쪽에서 습격해 들어오니, 사방에서 적들을 에워싸고 몰살하기 시작했다. 장합과 고람은 겨우 길을 뚫고 도망쳤다. 원소는 오소에서 패하여 흩어진 군사들과 말들을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순우경을 보니 코와 귀가 잘려 나가고 팔다리마저 모두 잘린 처참한 모습이었다. 원소가 "어찌하여 오소를 잃었느냐?"라고 묻자, 패한 군사가 대답했다. "순우경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바람에 적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원소는 크게 노하여 그를 즉시 베어버렸다. 곽도는 장합과 고람이 본진으로 돌아가 시시비비를 가릴까 두려워져, 먼저 원소 앞에 나아가 참소했다. "장합과 고람은 주군께서 패배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분명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소가 물었다.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곽도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평소 조조에게 항복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진영을 공격하라고 보내놓고도 일부러 힘을 쓰지 않아 병사들의 피해만 키웠습니다." 원소는 크게 분노하여 즉시 사자를 보

내 두 사람을 급히 불러들여 죄를 묻게 했다. 광도가 먼저 사람을 보내 두 사람에게 "주군께서 너희를 죽이려 하신다"라고 전했다. 원소의 사자가 도착하자 고람이 물었다. "주군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시는가?" 사자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답하자, 고람은 즉시 칼을 뽑아 사자를 베어버렸다. 이를 보고 장합이 크게 놀라자 고람이 말했다. "원소가 참소하는 말을 믿었으니, 분명 우리를 조조에게 잡히게 할 것이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죽기만을 기다리겠는가? 차라리 조조에게 가서 항복하는 게 낫다." 장합이 대답했다. "나 또한 오래전부터 그럴 마음이 있었다."

이에 두 사람은 각자 부하를 이끌고 조조의 진영으로 가서 투항했다. 하후돈이 말했다. "장합과 고람 두 사람이 항복하러 왔으나, 참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나는 그들을 은혜로 대할 것이니, 설령 판마음을 품었더라도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조조는 곧 진영의 문을 열고 두 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두 사람은 무기를 내려놓고 갑옷을 벗은 뒤 땅에 엎드려 절했다. 조조가 말했다. "만약 원소가 두 장군의 말을 따랐더라면 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두 장군이 나에게 투항하니, 이는 마치 미자가 은나라를 떠난 것이나 한신이 한나라로 귀순한 것과 같다." 그러고는 장합을 편장군 겸 도정후로, 고람을 편장군 겸 동래후로 봉했다. 두 사람은 크게 기뻐했다.

한편, 원소는 허유를 잃고 장합과 고람마저 잃었으며, 오소의 군량미까지 탈취당하자 군사들의 마음이 건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이때 허유가 조조에게 서둘러 진격하라고 권하자, 장합과 고람이 앞장서겠다고 자원하여 조조가 이를 받아들였다. 조조는 즉시 장합과 고람에게 군

사를 맡겨 원소의 진영을 습격하게 했다. 그날 밤 삼경 무렵, 세 갈래 길로 군사를 나누어 진영을 공격했다. 밤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다 날이 밝자 각자 군사를 거두어들였는데, 원소의 군사 중 태반이 쓰러졌다. 이때 순유가 계책을 내며 말했다. "지금 인마를 움직이는 척하며 소문을 퍼뜨려야 합니다. 한 갈래는 산조를 점령하고 업군을 공격하며, 다른 한 갈래는 여양을 점령하여 원소 군대의 퇴로를 끊는 것입니다. 원소가 이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당황하여 군사를 나누어 우리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 군사가 분산된 틈을 타 공격하면 원소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조조는 순유의 계책을 사용하여 대군과 소군을 나누어 사방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원소의 군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진영으로 돌아와 보고했다. "조조가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업군을 치러 가고, 다른 한쪽은 여양을 치러 갑니다." 원소는 크게 놀라 급히 아들 원상을 보내 5만 명의 군사로 업군을 구하게 하고, 신명에게도 5만 명의 군사를 나누어 여양을 구하게 하여 밤을 도와 길을 떠나게 했다. 조조는 원소의 군사가 움직인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대부대를 나누어 여덟 갈래로 동시에 출격시켜 원소의 진영을 정면으로 몰아쳤다. 원소의 군사들은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기에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고, 결국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원소는 갑옷을 제대로 갖춰 입을 겨를도 없이 홀옷에 머리띠만 두른 채 말에 올라탔고, 장남 원담이 그 뒤를 따랐다. 장료, 허저, 서황, 우금 네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원소를 뒤쫓았다. 원소는 급히 강을 건너면서 책과 수레, 금은보화를 모두 버려둔 채, 수행하던 800여 명의 기병만을 데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갔다.

조조의 군대가 뒤쫓았으나 이미 늦어, 버려진 물건들을 모두 거두어들였다. 전장에서 죽은 자는 8만여 명에 달해 피가 도랑을 가득 채웠고, 물에 빠져 죽은 자는 셀 수조차 없었다. 조조는 완벽한 승리를 거둔 뒤, 전리품으로 얻은 금은보화와 비단들을 군사들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러다 책더미 속에서 서신 한 묶음을 발견했는데, 모두 허도와 군중에 있는 여러 사람이 원소와 내통하며 주고받은 편지들이었다. 곁에 있던 장수들이 "하나하나 이름을 대조하여 찾아낸 뒤 모두 죽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조조가 말했다. "원소의 세력이 저토록 강하니 나조차도 몸을 보전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하고는 결국 그 편지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더는 묻지 않았다.

한편, 원소는 싸움에서 패해 도망쳤고, 저수는 간혀 있다가 급히 탈출하려다 조조의 군사들에게 붙잡혀 조조 앞에 끌려왔다. 조조와 저수는 본래 서로 아는 사이였다. 저수는 조조를 보자마자 크게 외쳤다. "나는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 조조가 말했다. "원소는 지략이 부족하여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어찌하여 아직도 미련하게 집착하고 있는가? 만약 내가 진작 그대를 얻었더라면 천하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네." 조조는 저수를 정중히 대접하며 군중에 머물게 했다. 그러자 저수는 진영에서 몰래 말을 훔쳐 원소에게 돌아가려 했다. 이에 화가 난 조조가 저수를 죽였으나, 저수는 죽는 순간까지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조조가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충의로운 선비를 잘못 죽였구나!" 조조는 저수를 위해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러주고 황하 나루터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무덤에 '충렬 저군지묘(충의로운 저군의 무덤)'라고 적었다. 후세에 사람들은 그를 찬양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하북에 명사가 많으나 충절은 저군이 으뜸이라. 눈빛만 보아도 진법을 꿰뚫고, 하늘을 우러러 천문을 알았도다. 죽는 순간까지 마음은 철처럼 굳건했고, 위기 앞에서도 기개는 구름처럼 드높았네. 조공께서 그 의로움과 열렬함을 높이 사, 홀로 외로운 무덤을 세워 주었도다."

조조는 기주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상황을 시로 읊자면 이러하다. "세력이 약해도 치밀한 계산이 있으면 승리하고, 병력이 강해도 지략이 부족하면 망하는 법이다."

과연 승패가 어떻게 갈릴지, 다음 회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제31회 — 조조가 창정에서 본초를 격파하고, 유현덕은 형주에서 유표에게 의탁하다

曹操倉亭破本初 玄德荊州依劉表

한편, 조조는 원소의 패배를 틈타 군마를 정비하고 줄지어 추격해 나갔다. 원소는 머리띠만 두르고 홀옷 차림으로 팔백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려양 북안까지 달려갔다. 그곳에서 대장 장의거가 진영을 나와 원소를 맞이했다. 원소가 지난 일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하자, 장의거는 흩어졌던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병사들은 원소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개미 떼처럼 다시 모여들었고, 군세가 다시 살아나자 기주로 돌아가기로 의논했다. 군대가 이동하던 중 어느 날 밤, 황량한 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원소가 장막 안에 있는데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려와 몰래 다가가 들어보니, 패배한 병사들이 모여 형제와 동료들을 잃고 가족과 헤어진 슬픔을 토로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저마다 "전풍의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이런 화를 당했겠는가!"라며 울부짖었다. 원소는 크게 후회하며 말했다. "내가 전풍의 말

을 듣지 않아 군사도 잃고 장수들도 죽게 되었구나. 이번에 돌아가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를 보겠는가!"

다음 날, 원소가 말을 타고 길을 떠나려 할 때 봉기가 군사를 이끌고 마중을 나왔다. 원소가 봉기에게 말했다.

"내가 전풍의 말을 듣지 않아 이토록 참패하고 말았구나. 이제 돌아가려니 그를 볼 면목이 없다."

그러자 봉기가 원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거짓으로 고해바쳤다.

"전풍은 옥에 갇혀 있다가 주군께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더니,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예상대로 되었구나!'"

이 말을 들은 원소가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저 비열한 놈이 감히 나를 비웃다니!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원소는 즉시 사자를 보내 보검을 지니게 하여, 먼저 기주의 옥에 있는 전풍을 찾아가 죽이라고 명령했다.

한편, 전풍은 옥에 갇혀 있었다. 어느 날 옥졸이 전풍을 찾아와 말했다. “별가(別駕)님,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전풍이 물었다. “무슨 축하할 일이 있단 말인가?” 옥졸이 대답했다. “원 장군께서 대패하여 돌아 오셨으니, 장군께서는 반드시 다시 중용되실 것입니다.” 전풍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옥졸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남들은 모두 장군을 위해 기뻐하는데, 어찌하여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전풍이 말했다. “원 장군은 겉으로는 너그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시기

심이 많아 충성스러운 이를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전쟁에서 이겼다면 기뻐하며 나를 사해주었을지도 모르나, 지금은 싸움에 져서 부끄러움이 가득하니 내가 살아남기를 기대할 수 없구나.”

옥졸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전풍이 칼을 가지고 나타나 원소의 명을 전하며 전풍의 목을 가져가라 이르니, 그제야 옥졸들은 깜짝 놀랐다. 전풍이 말했다.

"나는 원래 죽을 줄 알고 있었다."

옥졸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전풍이 다시 말했다.

"대장부가 천지 사이에 태어나서 주군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모셨으니, 이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 한들 무엇이 아깝겠느냐!"

그러고는 옥중에서 스스로 목을 베었다. 후세 사람들이 시를 지어 다음과 같이 읊었다.

"어제는 저수가 군중에서 죽더니, 오늘은 전풍이 옥사하였네. 하북의 기둥들이 모두 꺾이니, 원소는 어찌 나라를 잃지 않겠는가?"

전풍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하며 탄식했다. 원소는 기주로 돌아왔으나 마음이 번잡하고 어지러워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 유씨가 후계자를 세울 것을 권했다. 원소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원담은 자가 현충으로 청주를 지키러 나가 있었고, 차남 원희는 자가 현혁으로 유주를 지

키러 나가 있었다. 삼남 원상은 자가 현보로, 원소의 후처인 유씨가 낳은 아들인데 용모가 준수하고 위엄이 있어 원소가 매우 아꼈기에 곁에 머물고 있었다. 관도에서 패배한 이후, 유씨는 원상을 후계자로 세우고 권했다. 이에 원소는 심배, 봉기, 신평, 곽도 네 사람과 함께 의논했다. 본래 심배와 봉기 두 사람은 원상을 지지했고, 신평과 곽도 두 사람은 원담을 지지하고 있었다. 네 사람은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주인을 위해 움직였다.

원소가 네 사람에게 말했다. "지금 밖으로는 환란이 가시지 않았으니, 안으로는 후계자 문제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내가 장차 후사를 세우는 일을 논의하고자 한다. 장남 원담은 성격이 강직하고 살생을 즐기는 편이며, 차남 원희는 성품이 유약하여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 셋째 원상은 영웅의 기질이 있고 어진 이를 예우하며 선비를 공경하니, 나는 원상을 후계자로 세우고 싶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러자 곽도가 말했다. "세 아들 중에 원담이 맏이인 데다 지금 또 밖에 나가 있습니다. 주공께서 만약 맏이를 폐하고 어린 아들을 세우려 하신다면, 이는 곧 난리가 일어날 불씨가 됩니다. 지금은 군대의 위세가 꺾이고 적군이 국경까지 압박해 오는 위급한 상황인데, 어찌 부자 형제끼리 서로 다투게 하여 혼란을 초래하시겠습니까? 주공께서는 우선 적을 막아낼 대책부터 세우시고, 후계자를 세우는 일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원소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원희가 유주에서 6만 군사를 이끌고 왔고, 원담은 청주에서 5만 군사를 이끌고 왔으며, 외조카 고간 역시 병주에서 5만 군사를

이끌고 와 기주로 합류하여 전쟁을 돕겠다는 소식이었다. 원소는 기뻐하며 다시 군사를 정비하여 조조와 맞서 싸우려 했다.

이때 조조는 승리한 군대를 이끌고 강가에 진을 쳤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소박한 음식과 술을 준비해 그를 맞이하러 나왔다. 조조가 보니 마을 어르신 몇 분이 머리와 수염이 온통 하얗게 센 노인이었다. 조조는 그들을 막사 안으로 모셔 자리를 권하고는 물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르신이 대답했다.

"모두 백 살에 가까워졌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우리 군사들이 어르신의 마을을 놀라게 하고 어지럽혔으니, 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말했다.

"환제 시절, 초와 송의 분야(分野)에 황색 별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동 사람인 은규라는 자가 천문을 잘 보았는데, 이곳에서 밤을 지내며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황색 별이 하늘의 형상에 나타나 바로 이곳을 비추고 있다. 50년 뒤에 양과 패 사이에서 진인(眞人)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세월을 따져보니 딱 50년이 되었습니다. 원본초는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 모두가 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상께서는 인의의 군대를 일으켜 백성을 위로하

고 죄지은 자를 벌하고 계십니다. 관도에서의 한 전투로 원소의 백만 대군을 격파하셨으니, 이는 바로 그 시절 은규가 했던 말에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제 만백성이 태평성대를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의 말씀을 어찌 감히 제가 감당하겠습니까?"

조조는 즉시 술과 음식, 비단 등을 어르신들에게 선물로 내리고 돌려보냈다. 그러고는 삼군에 엄중히 명령하기를, "만약 마을로 내려가 백성의 닭이나 개를 함부로 죽이는 자가 있다면, 사람을 죽인 죄와 같이 다스리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군사와 백성들이 모두 감복하였다. 조조 또한 마음속으로 내심 기뻐하였다.

원소가 사방의 주에서 모은 20~30만 대군을 이끌고 창정에 진을 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조도 군사를 이끌고 전진하여 이미 진영을 갖추고 막사를 세웠다. 이튿날, 양측 군대가 서로 마주하며 각자 진형을 갖추었다. 조조가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출전하자, 원소 역시 세 아들과 외조카, 그리고 문무백관을 이끌고 진영 앞으로 나왔다. 조조가 외쳤다.

“본초, 그대의 계책도 다했고 힘도 다하였으니, 어찌 아직도 항복할 생각을 하지 않는가? 칼날이 목에 닿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을 것이오!”

원소가 크게 노하여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누가 감히 나가서 맞서겠느냐?”

이때 원소의 셋째 아들 원상이 아버지 앞에서 공을 세우고 싶어 두 자루의 칼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진영 밖으로 달려 나가 이리저리 누비며 기세를 뽐냈다. 조조가 장수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자는 누구인가?”

사정을 아는 장수가 대답했다.

“저 자는 원소의 셋째 아들 원상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수 한 명이 창을 앞세워 먼저 달려 나왔다. 조조가 살펴보니 서황의 부장인 사환이었다. 두 기병이 맞붙어 세 합을 채 겨루기도 전에, 원상이 말을 돌려 비스듬히 달아났다. 사환이 뒤쫓아오자 원상이 활을 들어 화살을 먹이고는 몸을 돌려 뒤로 쏘았다. 화살은 정확히 사환의 왼쪽 눈에 박혔고, 사환은 말에서 떨어져 즉사했다. 원소는 아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채찍으로 가리키며 명령을 내렸고, 대군이 몰려와 뒤섞여 싸우기 시작했다. 한바탕 큰 전투가 벌어진 뒤, 각 진영에서는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갔다. 조조는 장수들과 모여 원소를 격파할 계책을 논의했다. 이때 정욱이 '십면매복'의 계책을 내놓으며 조조에게 권했다. "군사를 강가로 몰려나게 한 뒤, 열 갈래로 매복을 배치하십시오. 그리고 원소가 강가까지 쫓아오도록 유인하는 겁니다. 우리 군사들이 퇴로가 없음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니, 그러면 원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조조는 즉시 계책을 세워 좌우에 각각 다섯 부대씩 나누었다. 왼쪽 부대는 첫째 하후돈, 둘째 장료, 셋째 이전, 넷째 악진, 다섯째 하후연으로 편성했고, 오른쪽 부대는 첫째 조홍, 둘째 장합, 셋째 서황, 넷째 우금, 다섯째 고람으로 나누었다. 중앙군은 허저가 선봉을 맡았다.

다음 날, 열 부대가 먼저 전진하여 좌우에 매복을 마쳤다. 한밤중에 이르자 조조는 허저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적의 진영을 습격하는 척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원소의 다섯 진영에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허저는 곧바로 군사를 돌려 달아났다. 원소가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오며 외치는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날이 밝아 강가에 다다르자 조조의 군대는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었다.

조조가 크게 외쳤다. "앞에는 퇴로가 없으니, 장수들이여 어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않겠는가!"

그러자 모든 군사가 몸을 돌려 힘껏 앞으로 달려들었다. 허저가 앞장서서 말을 달리며 장수 십여 명을 단칼에 베어 넘기니, 원소의 군대는 큰 혼란에 빠졌다. 원소가 급히 군사를 돌려 후퇴하려 했으나, 이미 뒤에서는 조조의 군대가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었다.

전투가 한창 이어지던 중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왼쪽에서는 하후연이, 오른쪽에서는 고람이 이끄는 두 군대가 튀어나왔다. 원소는 세 아들과 외조카를 모아 피비린내 나는 혈로를 뚫으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채 열 리도 못 가 다시 왼쪽에서는 이전이, 오른쪽에서는 우금이 나타나 몰아붙이니, 원소의 군대는 시체가 들판을 뒤덮고 피가 도랑처럼 흐를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다. 다시 몇 리를 더 달렸을 무렵, 이번

에는 왼쪽에서 이전이, 오른쪽에서 서황이 나타나 한 차례 더 몰아쳤다. 원소와 그 아들들은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겁에 질려 옛 진영으로 도망쳐 들어가 군사들에게 밥을 지으라고 명령했다. 이제 막 식사를 하려는데, 이번에는 왼쪽에서 장료가, 오른쪽에서 장합이 진영을 향해 거침없이 돌격해 왔다. 원소는 황급히 말에 올라타 창정으로 도망쳤으나, 사람과 말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쉬어가려던 찰나 뒤에서 조조의 대군이 무섭게 추격해 오자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전투가 한창일 때, 왼쪽에는 조홍이, 오른쪽에는 하후돈이 길을 막아섰다. 원소가 크게 외쳤다. "죽기로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붙잡히고 말 것이다!" 원소는 온 힘을 다해 돌파를 시도한 끝에 겨우 포위망을 벗어났다. 그러나 원희와 고간은 모두 화살을 맞았고, 군마도 거의 다 죽어 나갔다. 원소는 세 아들을 끌어안고 한바탕 통곡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사람들이 급히 구호했으나 원소는 선혈을 계속 내뿜으며 탄식했다. "내가 수십 번의 전투를 겪어왔건만, 뜻밖에 오늘 이토록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었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너희는 각자 본래 다스리던 주로 돌아가 조조 저놈과 반드시 승부를 가리자꾸나!" 원소는 조조가 쳐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신평과 광도를 급히 보내 원담을 따라 청주로 가서 군사를 정돈하게 했다. 그리고 원희에게는 유주로, 고간에게는 병주로 돌아가 군사와 말을 수습하여 언제든 부를 수 있도록 대비하게 했다. 그 후 원소는 원상을 데리고 기주로 들어가 병을 돌보게 했으며, 원상이 심배, 봉기와 함께 잠시 군무를 맡도록 했다.

한편, 조조는 창정에서 크게 승리한 후 삼군에 큰 상을 내리고, 기주의 형편이 어떠한지 살피라고 사람을 보냈다. 첩자가 돌아와 보고하기를, "원소는 병이 들어 누워 있고, 원상과 심배가 성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원담, 원희, 고간은 모두 자신들의 근거지로 돌아갔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모두가 조조에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주를 급히 공격하자고 권했다.

조조가 말했다. "기주는 식량이 매우 풍부하고 심배 또한 지략이 있는 자이니, 서둘러 공격해서는 안 된다. 지금 논밭에 곡식이 익어가고 있는데, 무리하게 공격했다가는 백성들의 생업을 망칠까 걱정되니, 일단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난 뒤에 취해도 늦지 않다."

조조가 의논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순욱에게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비가 여남에서 유벽과 공도 등 수만 명의 군사를 얻었습니다. 승상께서 북쪽으로 군사를 몰아 출정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비는 유벽에게 여남을 지키게 한 뒤 직접 군사를 이끌고 허점을 찔러 허창으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승상께서는 속히 군사를 돌려 이를 막으셔야 합니다."

조조가 크게 놀라 조홍을 남겨 강가에 군사를 주둔시키게 하여 허세로 적을 속이게 한 뒤, 직접 대군을 이끌고 유비를 맞이하기 위해 여남으로 향했다.

한편, 유비는 관우, 장비, 조운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허도를 습격하려 했다. 양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마침 조조의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유비는 양산 아래에 진을 쳤다.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

관우는 동남쪽 모퉁이에, 장비는 서남쪽 모퉁이에 배치하였고, 유비와 조운은 정남쪽에 진을 쳤다. 조조의 군대가 도착하자 유비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출격했다. 조조가 진형을 갖추고 유비에게 대화를 나누자고 외치자, 유비는 문기(門旗) 아래로 말을 몰아 나갔다. 조조가 채찍으로 가리키며 꾸짖었다. "내가 너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거늘, 어찌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었느냐!" 유비가 말했다. "너는 한나라 승상의 이름을 빌리고 있으나 실상은 나라를 망치는 역적일 뿐이다! 나는 한나라 황실의 종친으로서, 천자의 밀지를 받들어 반역자를 토벌하러 왔다!" 그러고는 말 위에서 의대조를 낭독했다.

조조가 크게 노하여 허저를 내보내 싸우게 했다. 유비의 뒤에 있던 조운이 창을 앞세워 말을 타고 나갔다. 두 장수가 맞붙어 서른 합을 겨루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더니, 동남쪽 모퉁이에서 관우가 몰려왔고 서남쪽 모퉁이에서는 장비가 군사를 이끌고 달려들었다. 세 방향에서 한꺼번에 몰아치며 공격하자, 멀리서 달려와 지친 조조의 군사들은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크게 패하여 달아났다. 유비는 승리를 거두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유비는 다시 조운을 보내 싸움을 걸었다. 하지만 조조는 열흘 동안이나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다. 유비가 다시 장비를 보내 싸움을 걸었으나, 조조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유비는 더욱 의구심이 생겼다.

그때 갑자기 공도가 식량을 운반해 오다 조조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었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유비는 급히 장비에게 가서 구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또다시 하후돈이 군사를 이끌고 뒤를 돌아 여남을 곧장 치고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유비는 크게 놀라며 외쳤다.

"상황이 이렇다면 나는 앞뒤로 적을 맞아 갈 곳이 없구나!"

유비는 급히 관우를 보내 그곳을 구하게 했다. 그러자 양쪽 군대 모두 물러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급보가 날아들었다. 하후돈이 이미 여남을 격파했으며, 유벽은 성을 버리고 도망쳤고, 관우가 지금 포위당했다는 소식이었다. 유비는 크게 놀랐다. 이어 장비가 공도를 구하러 갔다가 그 역시 포위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비는 급히 군사를 돌려 구하러 가고 싶었으나, 조조가 그 틈을 타 습격할까 두려웠다. 그때 갑자기 진영 밖에서 허저가 싸움을 걸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유비는 감히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린 유비는 군사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을 주고, 보병을 먼저 출발시킨 뒤 기병이 그 뒤를 따르게 했다. 진영 안에서는 거짓으로 야경(夜更)을 알리는 북과 딱따기 소리를 울려 군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꾸몄다. 유비 일행이 진영을 떠나 몇 리쯤 가다가 흙산을 돌아서는 순간, 사방에서 횃불이 밝아지며 산 위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비를 놓치지 마라! 승상께서 여기서 기다리고 계신다!"

유비는 당황하여 길을 찾아 헤맸다. 이때 조운이 말했다.

"주공,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십시오."

조운은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길을 열었고, 유비는 쌍검을 뽑아 들고 그 뒤를 따랐다.

전투가 한창일 때 허저가 쫓아와 조운과 격렬하게 싸웠고, 그 뒤를 이어 우금과 이전까지 도착했다. 유비는 형세가 위태로운 것을 보고 황급히 도망쳤다. 뒤에서 들려오던 함성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유비는 깊은 산속 외진 길을 따라 홀로 말을 타고 탈출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군사 한 무리가 달려 나왔다. 유비가 깜짝 놀라 살펴보니, 유벽이 패잔병 천여 명을 이끌고 유비의 가족들을 호송하며 오고 있었다. 이어 손건, 간옹, 미방도 도착하여 이렇게 보고했다. "하후돈의 군세가 너무 매서워 어쩔 수 없이 성을 버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조조의 군사가 뒤쫓아올 때 다행히 관우가 앞을 막아준 덕분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유비가 물었다. "관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유벽이 대답했다. "장군께서는 일단 길을 가십시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몇 리쯤 가자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앞에서 한 무리의 군마가 들이닥쳤다. 앞장선 대장은 장합이었는데, 그가 크게 외쳤다. "유비는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유비가 막 뒤로 물러나려는데, 이번에는 산등성이에서 붉은 깃발이 휘날리더니 산채 안에서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선두에 선 대장은 바로 고람이었다. 유비는 앞뒤로 길이 막히자 하늘을 우러러보며 통곡했다. "하늘은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곤경에 빠뜨리시는가!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유비가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베려 하자, 유벽이 급히 가로막으며 말했다. "제게 한 번 싸워볼 기회를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군을 구

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유벽이 고람과 맞붙어 싸웠으나, 세 합을 채 버티지 못하고 고람의 칼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졌다.

유비는 정신없이 당황하여 막 직접 싸우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고람의 후군이 흐트러지더니, 한 장수가 진영을 뚫고 달려왔다. 그가 창을 휘두르자 고람이 말에서 떨어져 나뒹굴었다. 자세히 보니 바로 조운이었다. 유비는 크게 기뻐했다. 조운은 말을 몰아 창을 내치르며 후방의 적들을 흩어놓고, 다시 전방으로 달려가 장합과 단독으로 맞붙었다. 장합과 조운이 서른 합 넘게 싸운 끝에 장합은 말을 돌려 패하며 달아났다. 조운이 기세를 몰아 추격했으나, 장합이 미리 매복시킨 병사들이 산길의 좁은 길목을 지키고 있는 바람에 길을 찾지 못해 나아가지 못했다.

막 퇴로를 찾아 달아나던 중, 관우와 관평, 주창이 이끄는 300명의 군사가 나타났다. 양측에서 협공을 퍼붓자 장합은 결국 패하여 물러났다. 관우 일행은 요충지인 험한 길목들을 차례로 점령한 뒤 그 아래에 진을 쳤다. 유비는 관우에게 장비를 찾아오라고 명했다. 알고 보니 장비는 공도를 구하러 갔으나, 공도는 이미 하후연에게 죽임을 당한 뒤였다. 장비는 온 힘을 다해 하후연을 물리치고 추격했으나, 도리어 악진이 이끄는 군사들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관우가 패퇴하는 군사들을 따라가 흔적을 쫓다가 악진의 군사를 격퇴한 뒤, 장비와 함께 유비에게 돌아왔다.

조조의 대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비는 손건에게 노약자들을 보호하여 먼저 피신하라고 일렀다. 유비는 관우, 장비, 조운과 함께 뒤를 따르며 싸우면서도 계속 후퇴했다. 조조는 유비가 멀리 달아

나는 것을 보고 군사를 거두어 굳이 쫓지 않았다. 유비는 패배하여 남은 병력이 천 명도 되지 않았고, 매우 낭패한 모습으로 도망쳤다. 한참을 달려 강가에 이르자, 유비는 현지인에게 길을 물었는데 그곳이 바로 한강이었다. 유비는 우선 진영을 치고 머물기로 했다. 현지인들은 유비가 누구인지 알고 양과 술을 대접해 왔고, 유비는 모래사장에 모여 앉아 술을 마셨다. 유비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나라를 다스릴 만한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행히도 나 유비를 따르고 있구려. 나의 운수가 이토록 기구하니 여러분에게까지 짐이 되고 말았소. 오늘 나는 발붙일 곳조차 없는 처지라, 혹여 여러분의 앞길을 망치게 될까 진심으로 두렵소. 여러분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밝은 임금을 찾아가 공을 세우려 하지 않는 것이요?"

모두가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관우가 말했다. "형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옛날 고조 유방께서 항우와 천하를 다룰 때 여러 번 패하기도 했으나, 나중에 구리산 전투에서 승리하여 400년 사직의 기틀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승패는 병가에서 흔히 있는 일이니, 어찌 스스로 뜻을 꺾으려 하십니까?"

손건이 말했다. "성패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곳을 형주와 멀지 않습니다. 유표는 형주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군사도 강하고 식량도 풍족합니다. 게다가 유표와 주공은 모두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니, 어찌 그곳으로 가서 의탁하지 않으십니까?"

유비가 말했다. "다만 그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두렵네."

손건이 대답했다. "제가 먼저 가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유표가 직접 나와 주공을 맞이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손건에게 밤을 도와 형주로 가라고 명했다. 손건이 형주에 도착해 유표를 알현하자, 유표가 예를 마친 뒤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유비를 따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손건이 대답했다.

"유비 사군은 천하의 영웅이라, 비록 군사도 적고 장수도 적으나 뜻만큼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여남의 유벽과 공도 역시 유비와 아무런 친분이 없음에도 목숨을 바쳐 그를 도왔습니다. 명공과 유 사군은 모두 한나라 황실의 후손으로서 뜻을 같이하는 사이입니다. 지금 유 사군이 새로이 패하여 강동의 손권에게 가고자 하는데, 제가 간곡히 말리기를 '가까운 친족을 등지고 먼 친척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형주의 유 장군은 어진 이를 예우하고 인재를 아끼기로 유명하여 선비들이 물이 동쪽으로 흐르듯 그에게 모여드는데, 하물며 같은 종친인 명공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 사군이 특별히 저를 먼저 보내 인사를 올리게 하였으니, 오직 명공의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유표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유비는 내 동생이나 다름없소.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었지. 이제 유비가 나를 찾아와 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오."

그러자 채모가 고해했다. "안 됩니다. 유비는 예전에 여포를 따르다가 나중에는 조조를 섬겼고, 최근에는 원소에게 붙었습니다. 끝까지 한곳에 머물지 못하는 것을 보니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유비를 받아들인다면 조조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니, 헛되이 전쟁을 일으키는 꼴이 됩니다. 차라리 손건의 목을 베어 조조에게 바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면 조조가 반드시 주공을 극진히 대접할 것입니다."

손건이 정색하며 말했다. "나는 죽음이 두려워 비겁하게 구는 사람이 아니오. 유비 장군은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분이니, 조조나 원소, 여포 같은 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소. 예전에 그들을 따랐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이었소. 이제 유비 장군이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라는 소식을 듣고, 의리가 같은 종친으로서 천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것이오. 그대는 어찌하여 참소하며 어진 이를 시기하는 데 이토록 몰두하는 것이오!"

유표는 그 말을 듣고 채모를 꾸짖으며 말했다.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그대는 더 이상 말하지 말게." 채모는 부끄러움과 원망을 품은 채 물러났다.

유표는 곧바로 손건을 먼저 보내 유비에게 소식을 알리게 하고, 자신은 직접 성 밖 삼십 리까지 나가 유비를 맞이했다. 유비는 유표를 만나자 매우 공손하게 예를 갖추어 인사했다. 유표 역시 유비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다. 유비가 관우와 장비 등을 데리고 유표에게 인사를 올리자, 유표는 유비와 함께 형주로 들어가 머물 집과 저택을 나누어 배정해 주었다.

한편, 조조는 유비가 이미 형주로 가서 유표에게 의탁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려 했다. 그러자 정욱이 말했다.

"원소를 아직 제거하지도 못했는데 급히 형주를 공격하신다면, 만약 원소가 북쪽에서 치고 올라올 경우 승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군사를 돌려 허창으로 돌아가 군사력을 기르며 내년 봄을 기다리십시오. 그 후에 군사를 이끌고 먼저 원소를 격파한 뒤 형주를 취한다면, 남북의 이득을 한꺼번에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군사를 거두어 허창으로 돌아갔다. 건안 8년正月, 조조는 다시 군사를 일으킬 방도를 논의했다. 먼저 하후돈과 만총을 보내 유표를 막기 위해 여남을 지키게 했고, 조인과 순욱을 허창에 남겨 성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조조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관도로 나아가 진을 쳤다.

한편, 원소는 지난 해부터 감기에 걸려 피를 토하는 증세가 있었는데 이제야 겨우 몸을 추스르고 허창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자 심배가 간언했다. "지난해 관도와 창정에서 패한 이후로 아직 군심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성벽을 높이 쌓고 해자를 깊게 파서, 군사와 백성들의 힘을 기르는 데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한창 의논하던 중에 갑자기 조조가 관도로 군사를 몰아 기주를 공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원소가 말했다. "적군이 성 아래까지 들이닥치고 강가에 다다랐을 때야 비로소 맞서 싸우려 한다면 이미 때가 늦었다. 내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나가 적을 맞이해야겠다." 그러자 원상이 말했다. "아버님은 아직 병환이 다 낫지 않으셨으니 멀리 원정을 나가

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적을 막겠습니다." 원소가 이를 허락하고는 곧 사람을 보내 청주에서는 원담을, 유주에서는 원희를, 병주에서는 고간을 불러들여 네 갈래 길로 조조를 격파하게 했다.

여남에서 막 전쟁의 북소리가 울리나 싶더니, 이번에는 기주 북쪽에서도 군사들이 움직인다. 승패가 어떻게 갈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진다.

제32회 — 기주를 빼앗으려 원상이 다투 고, 장하에서 허유가 계책을 바치다

奪冀州袁尚爭鋒 決漳河許攸獻計

한편, 원상은 사환을 베고 난 뒤 자신의 용맹을 과신했다. 원담 일행의 군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양으로 나가 조조군의 선봉대와 맞섰다. 장료가 앞장서서 말을 몰아 나오자 원상이 창을 들고 싸웠으나, 세 합을 채 버티지 못하고 공격을 막아내지도 못한 채 크게 패하여 달아났다. 장료가 그 기세를 몰아 추격하며 살육하자, 원상은 대처할 겨를도 없이 급히 군사를 이끌고 기주로 도망쳤다.

원소는 원상이 패해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자 지병이 도져 피를 몇 되나 토해내고는 땅에 쓰러졌다. 유부인이 당황하여 그를 침상 안으로 옮겨 눕혔으나 병세는 점점 위독해졌다. 유부인은 급히 심배와 봉기를 불러 침상 곁까지 오게 한 뒤 뒷일을 의논했다. 원소는 손가락으로 가리킬 뿐 말을 하지 못했다. 유부인이 '원상이 후계자를 이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자, 원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배가 침상 곁에서 유언을 받아 적었다. 그때 원소가 몸을 뒤척이며 크게 비명을 지르더니, 다시 피를 한 대접이나 토하고 죽고 말았다.

후세 사람들이 시로 읊기를 다음과 같다.

'대대로 고위 관직을 지내며 큰 이름을 떨쳤으나, 젊은 시절의 기세가 너무 거침없었구나. 재주 있는 수천 명의 빈객을 불러 모았으나 헛되었고, 백만의 영웅 같은 군사를 거느렸어도 부질없었도다. 본바탕은 양인데 호랑이 가죽을 둘렀으니 공을 이루지 못했고, 봉황의 깃털 같은 겉모습에 닭의 쓸개 같은 담력으로는 일을 이루기 어려웠네. 더욱 가련한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은, 집안의 환난이 부질없이 두 형제에게까지 이어지는구나.'

원소가 죽자 심배 등이 상례를 주관했다. 그러자 유부인이 원소가 총애하던 첩 다섯 명을 모두 죽여버렸다. 뿐만 아니라, 죽은 원소가 저승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까 두려워 머리카락을 밀고 얼굴에 문신을 새기며 시신까지 훼손하니, 그 질투와 악독함이 이 정도였다. 원상은 총애하던 첩들의 가족들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

심배와 봉기는 원상을 대사마장군으로 세우고 기주, 청주, 유주, 병주 4개 주의 목으로 삼은 뒤, 사신을 보내 부친의 부고를 알렸다. 이때 원담은 이미 군사를 일으켜 청주를 떠난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광도, 신평과 상의했다.

곽도가 말했다. "주군께서 기주에 계시지 않으니, 심배와 봉기가 반드시 원상을 주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신평이 말했다. "심배와 봉기 두 사람은 분명히 미리 계책을 세워두었을 것입니다. 지금 급히 움직였다가는 반드시 화를 당할 것입니다."

원담이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곽도가 대답했다. "성 밖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그들의 움직임을 살피십시오. 제가 직접 가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담은 그 말을 따랐다. 곽도는 곧 기주로 들어가 원상을 만났다. 예를 갖추어 인사를 마치자 원상이 물었다. '형님은 어찌하여 오지 않으셨습니까?' 곽도가 대답했다. '군중에 병이 들어 몸이 좋지 않은 탓에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원상이 말했다. '나는 아버님의 유명을 받들어 주인이 되었고, 형님을 거기장군(車騎將軍)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조조의 군대가 국경까지 압박해 오고 있으니, 형님께서 앞장서서 선봉을 맡아 주십시오. 저도 뒤를 따라 곧바로 군사를 보내 지원하겠습니다.' 곽도가 말했다. '지금 군중에 좋은 계책을 함께 논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심배와 봉기 두 사람을 보좌로 보내 주시기를 청합니다.' 원상이 말했다. '나 역시 그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밤낮으로 대책을 세우고 싶은데, 어찌 그들을 떼어 보낼 수 있겠습니까?' 곽도가 말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 한 명만 골라 보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원상은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에게 제비를 뽑게 하여, 제비가 뽑힌 사람이 떠나기로 했다. 봉기가 뽑히자, 원상은 즉시 봉기에게 인장을 들려 곽도와 함께 원담의 군영으로 가게 했다. 봉기가 곽도를 따라 원담의 진영에 도

착해 보니 원담에게 병이 없는지라 마음이 불안해졌으나, 인장을 바쳤다. 원담은 크게 노하여 봉기를 베풀려 했다. 그러자 광도가 은밀히 간언했다. '지금 조조의 군대가 압박해 오고 있으니, 우선 봉기를 이곳에 붙들어 두어 원상의 마음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조조를 격파한 뒤에 다시 기주를 두고 다투어도 늦지 않습니다.'

원담은 그 말에 따라 즉시 진영을 거두고 출발하여 여양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조조의 군대와 맞닥뜨렸다. 원담은 대장 왕소를 보내 싸우게 했고, 조조는 서황을 보내 맞서게 했다. 두 장수가 몇 합을 겨루지 않아 서황이 칼을 휘둘러 말 아래에 있는 왕소를 베어버렸다. 조조의 군대는 이 기세를 몰아 몰아쳤고, 원담의 군대는 대패했다. 원담은 패배한 군사들을 거두어 여양으로 들어간 뒤, 사람을 보내 원상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원상은 심배와 의논한 끝에 겨우 5천여 명의 병사만을 보내 돕기로 했다. 조조는 구원군이 이미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낙진과 이전에게 군사를 보내 길목에서 그들을 가로막게 한 뒤 양쪽에서 포위하여 몰살시켰다. 원담은 원상이 겨우 5천 명의 병사만 보낸 데다 그마저도 길목에서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봉기를 불러 꾸짖었다. 봉기가 말했다. "제가 직접 편지를 써서 주군께 보내 직접 구원하러 오시도록 청하겠습니다." 원담은 즉시 봉기에게 편지를 쓰게 하여 기주에 있는 원상에게 전달했다. 원상이 심배와 함께 의논하니 심배가 말했다. "광도는 피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다투지 않고 떠났던 것도 조조의 군대가 경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조조를 물리친다면, 그는 반드시 기주를 차지하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구원병을 보내지 말고, 조조의 힘을 빌려 원담을 제거하는 편이 낫습니다."

원담은 심배의 말을 따르며 군사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다. 사신이 돌아와 이 소식을 전하자 원담은 크게 분노하여 그 자리에서 봉기를 처형하고 조조에게 항복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미 원상의 첩자가 이 사실을 밀고했다. 원상이 심배와 의논하며 말했다. "원담이 조조에게 항복하여 힘을 합쳐 공격해 온다면 기주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이에 원상은 심배와 대장 소유를 남겨 기주를 굳게 지키게 하고, 자신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여양으로 가서 원담을 구하러 떠났다. 원상이 군사들에게 누가 앞장서서 갈 수 있겠느냐고 묻자, 대장인 여광과 여상 형제가 자원했다. 원상은 이들 형제에게 군사 3만 명을 주어 선봉으로 삼아 먼저 여양으로 보내게 했다. 원담은 원상이 직접 구원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조조에게 항복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원담은 성 안에 군사를 배치하고, 원상은 성 밖에 군사를 배치하여 서로 돕는 형세를 갖추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원희와 고간이 모두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 세 곳에 진을 쳤다. 그들은 매일 군사를 내어 조조와 맞섰으나, 원희 측은 번번이 패했고 조조의 군대는 연전연승했다. 건안 8년 봄 3월에 이르러 조조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 공격하자, 원담과 원희, 원상, 고간은 모두 대패하여 여양을 버리고 달아났다. 조조의 군대는 그 뒤를 쫓아 기주까지 압박해 들어갔다. 원담과 원상은 성 안으로 들어가 굳게 지키기로 했고, 원희와 고간은 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허세를 부리며 버텼다. 그러나 조조의 군대가 연일 공격을 퍼부어도 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이때 곽가가 나아가 말했다. "원씨 형제들은 장자를 폐하고 어린 아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끼리 권력을 다투며 각자 당파를 만들었습니다. 조금하게 몰아붙이면 서로 도와 성을 지켜낼 것이고, 느긋하게 대하면 자기들끼리 싸울 것입니다. 차라리 군사를 일으켜 남쪽 형주로 향해 유표를 정벌하면서 원씨 형제들의 내분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분이 일어나면 그때 치는 것이 한 번에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조조는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겨 가후를 태수로 임명해 여양을 지키게 했고, 조홍에게는 군사를 이끌고 관도를 지키게 했다. 그러고 나서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형주를 향해 진격했다. 원담과 원상은 조조군이 스스로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축하하며 기뻐했다. 원희와 고간은 각자 물러갔다.

한편, 원담은 곽도, 신평과 함께 의논하며 말했다. '나는 장남임에도 부친의 가업을 잇지 못하고, 계모의 아들인 원상이 오히려 높은 작위를 차지했으니 참으로 분통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자 곽도가 말했다. '주공께서 군사를 이끌고 성 밖에 진을 치신 뒤, 원상과 심배를 술자리에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매복시킨 칼잡이들을 시켜 그들을 죽이면 대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원담은 이 말을 따르기로 했다. 마침 별가 왕수가 청주에서 올라오자, 원담은 이 계책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자 왕수가 말했다. '형제란 양손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과 싸우겠다고 제 손을 스스로 자르면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한다면 어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버리고 가까이하지 않는다면 천하

의 누가 당신을 가까이하겠습니까? 저 참소하는 자들이 단 한때의 이익을 위해 혈육을 이간질하는 것이니, 부디 귀를 막고 듣지 마십시오.'

원담은 크게 화를 내며 왕수를 꾸짖어 물러나게 하고, 사람을 보내 원상을 불러오게 했다. 원상이 도착하자 심배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심배가 말했다. '이것은 분명 궤도가 꾸민 계책입니다. 주군께서 저 곳으로 가시면 반드시 간사한 함정에 빠질 것이니, 차라리 이 기세를 몰아 저들을 공격하는 것이 낫습니다.' 원상은 그 말을 따랐다. 그는 곧 바로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갔다. 원담은 원상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을 보고 일이 새어 나간 것을 직감했다. 그 역시 급히 갑옷을 갖추어 입고 말에 올라 원상과 맞붙었다. 원상이 원담을 보고 크게 꾸짖자, 원담도 맞서 소리쳤다. '네놈이 약을 먹여 아버지를 죽이고 작위를 찬탈하더니, 이제는 형까지 죽이려 드느냐!' 두 사람이 직접 무기를 들고 맞붙었으나, 원담은 크게 패했다. 원상은 화살과 돌이 빗발치는 전장 한복판으로 직접 뛰어들어 적들을 휩쓸며 공격했다. 원담은 패배한 군사를 이끌고 평원으로 도망쳤고, 원상은 군사를 거두어 돌아왔다. 원담은 궤도와 다시 의논하여 군사를 다시 일으키기로 하고, 잠벽을 장수로 삼아 군대를 보내게 했다. 한편 원상은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기주에서 나왔다.

양쪽 진영이 둥글게 마주 서서 깃발과 북이 서로 바라보았다. 잠벽이 나와 진을 향해 옥설을 퍼붓자 원상이 직접 싸우려 했다. 이때 대장여광이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잠벽에게 달려들어 맞붙었다. 두 장수가 수없이 합을 겨룬 끝에 여광이 잠벽을 말 아래로 베어 넘겼다. 원담의 군사가 또다시 패하여 다시 평원으로 도망쳤다. 심배가 원상에게 군

사를 몰아 추격하자고 권하여 평원까지 쫓아갔다. 원담은 버티지 못하고 평원으로 후퇴하여 성을 굳게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원상은 성을 삼면에서 에워싸고 공격했다. 원담이 곽도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자 곽도가 말했다. '지금 성안의 식량은 부족한데 적군은 기세가 날카로우니, 정면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을 보내 조조에게 항복하는 척하십시오. 그리하여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기주를 공격하게 만들면, 원상이 반드시 구하러 올 것입니다. 그때 장군께서 군사를 이끌고 협공한다면 원상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조가 원상의 군대를 격파한다면, 우리는 그 군수 물자를 거두어 조조를 막아내면 됩니다. 조조의 군대는 멀리서 왔기에 식량이 끊기면 반드시 스스로 물러날 것이니, 그때 다시 기주를 거점으로 삼아 진취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원담은 곽도의 말을 따르며 물었다. "사신으로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곽도가 대답했다. "신평의 동생 신비라고, 자는 좌치인데 지금 평원령으로 있습니다. 말솜씨가 뛰어난 선비이니 사신으로 삼기에 적합합니다." 원담이 즉시 신비를 불러들였다. 신비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자, 원담은 편지를 써서 신비에게 건네며 군사 삼천 명을 붙여 그를 경계 지역 밖으로 호위하게 했다. 신비는 밤을 도와 서둘러 편지를 가지고 조조를 찾아갔다. 당시 조조는 서평에 군대를 세워 유표를 치려 하고 있었는데, 유표는 유비를 보내 앞장서서 맞이하게 한 상태였다. 두 군대가 맞붙기도 전에 신비가 조조의 진영에 도착했다. 신비가 조조를 만나 예를 갖추자, 조조가 그가 온 이유를 물었다. 신비는 원담이 조조에게 간청하려는 뜻을 상세히 설명하고는 준비해 온 서신을 올렸다.

조조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신비를 진영에 머물게 한 뒤, 문무 신하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정욱이 말했다. '원담이 원상에게 너무 급히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항복하러 온 것이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건과 만충 역시 거들었다. '승상께서 이미 군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찌 다시 유표를 버려두고 원담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순유가 말했다. '세 분의 말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천하가 어지러운데, 유표는 장강과 한수 사이에 들어앉아 몸을 사리며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 사방으로 뻗어 나갈 뜻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원씨 일가는 네 개의 주를 차지하고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으니, 만약 두 아들이 화목하게 힘을 합쳐 그 기반을 지킨다면 천하의 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끼리 서로 싸우다 궁지에 몰려 우리에게 의탁하러 왔으니, 우리가 군사를 이끌고 먼저 원상을 제거한 뒤 형세를 지켜보다가 원담까지 멸한다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신비를 청해 술을 마시게 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원담이 항복하겠다는 것이 참말인가, 아니면 속임수인가? 또한 원상의 군사를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겠는가?' 신비가 대답했다. '명공께서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물으실 것이 아니라, 오직 형세가 어떠한지만 살펴보셔야 합니다. 원씨 가문은 몇 년째 연달아 패배하여 밖으로는 군사들이 지쳐 있고, 안으로는 모사들이 처형당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는 서로를 비방하는 틈이 벌어져 나라가 둘로 갈라졌고,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겹쳐 하늘의 재앙과 사람의 곤궁함이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두 원씨의 세력

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원씨 가문을 멸하려는 때입니다. 지금 명공께서 군사를 일으켜 업성을 공격하시면, 원상이 구원하러 오지 않을 경우 근거지를 잃게 될 것이고, 만약 구원하러 온다 해도 원담이 그 뒤를 이어 공격할 것입니다. 명공의 위세로 지친 군사들을 치신다면, 마치 거센 바람이 가을 낙엽을 쓸어버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 계획을 버리고 형주를 치려 하신다면, 형주는 풍요롭고 평화로우며 나라가 화평하고 백성이 순응하는 땅이라 쉽게 흔들 수 없습니다. 하물며 사방의 근심 중 하북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북을 평정한다면 패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명공께서 깊이 살피주십시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신좌치(신비)를 만난 것이 참으로 늦었구려!' 조조는 그날로 군사를 독촉하여 기주를 되찾으러 떠났다. 유비는 조조가 무슨 계략을 꾸밀까 두려워 감히 뒤를 쫓지 못하고, 군사를 이끌고 형주로 돌아갔다.

한편, 원상은 조조의 군대가 강을 건너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군사를 이끌고 업성으로 돌아가며, 여광과 여상에게 후방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원담은 원상이 퇴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평원의 군마를 일으켜 뒤를 쫓았다. 채 수십 리도 가지 못해 포성 한 번이 울려 퍼지더니 양쪽 군대가 동시에 나타났다. 왼쪽에서는 여광이, 오른쪽에서는 여상이 나타나 원담의 길을 막아섰다. 원담이 말을 멈춰 세우고 두 장수에게 말했다. "아버님이 살아 계실 적에는 내가 두 장군을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내 동생의 편에 서서 나를 압박하는 것이냐?"

두 장수가 그 말을 듣고는 말에서 내려 항복했다. 탄이 말했다. "나에게 항복하지 말고, 조 승상에게 항복하십시오." 두 장수는 탄을 따라 진영으로 돌아갔다. 탄이 조조의 군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두 장수를 데리고 조조를 알현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딸을 탄의 아내로 주었고, 곧바로 여광과 여상을 중매인으로 삼았다. 탄이 조조에게 기주를 공격해 달라고 청하자, 조조가 말했다. "지금은 군량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운반하는 일이 매우 고되다. 우선 제하와 기주를 거쳐 백구로 물길을 내어 보급로를 확보한 뒤에 군사를 움직이겠다." 그러고는 탄에게 우선 평원에 머물게 했다.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여양으로 물러나 주둔하며, 여광과 여상을 열후로 봉하고 군대에 동행시켜 부릴 수 있게 했다. 곽도가 원담에게 말했다. "조조가 딸을 주어 혼인을 맺은 것은 진심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또한 여광과 여상을 봉하여 군대에 데려간 것은 하북 사람들의 마음을 가두려는 속셈입니다. 이는 나중에 반드시 우리에게 화가 될 것입니다. 주군께서는 장군의 인장 두 개를 새겨 몰래 사람을 보내 여광과 여상에게 전달하십시오. 그들이 안에서 호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조조가 원상을 격파하면, 그때를 틈타 도모합시다."

원담은 그 말에 따라 곧 장군의 인장 두 개를 새겨 여광과 여상에게 몰래 전달했다. 두 사람이 인장을 받아 들고 곧장 조조에게 가서 보고했다. 조조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원담이 몰래 인장을 보낸 것은 너희를 내응하는 조력자로 삼아, 내가 원상을 격파한 뒤에 그 틈에 일을 도모하려는 속셈이다. 너희는 우선 그것을 받아 두어라.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때부터 조조는 원담을 죽일 마음을 품게 되었다.

한편, 원상이 심배와 상의하며 말했다. '지금 조조의 군사가 식량을 운반하며 백구로 들어오고 있으니, 반드시 기주를 공격하러 올 것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심배가 대답했다. '무안현장 윤개를 모성에 주둔시켜 상당으로 가는 보급로를 트게 하고, 저수의 아들 저곡에게 한단을 지키게 하여 멀리서 성원하게 하십시오. 주공께서는 군사를 이끌고 평원으로 나아가 원담을 급히 공격하십시오. 먼저 원담을 제압한 뒤에 조조를 격파해야 합니다.' 원상이 크게 기뻐하며 심배와 진림을 기주에 남겨 성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마연과 장의를 선봉장으로 삼아 밤을 도와 군사를 일으켜 평원을 공격하게 했다. 원담은 원상의 군사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에게 급히 구원을 요청했다. 조조가 말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기주를 얻고야 말 것이다.'

한편, 마침 허유가 허창에서 도착했다. 허유는 원담이 또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를 찾아가 말했다. "승상께서 이곳을 지키고 계시니, 설마 하늘의 벼락이 내려와 원씨 형제를 죽이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조조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미 내 다 생각이 있네." 조조는 즉시 조홍에게 먼저 군사를 보내 업성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윤개를 치러 나갔다. 군사가 경계에 이르자 윤개가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왔다. 윤개가 말을 타고 나타나자 조조가 물었다. "허중장은 어디 있는가?" 그러자 허저가 대답하며 달려 나가 말을 몰아 윤개를 향해 곧장 돌진했다. 윤개는 미처 손쓸 틈도 없이 허저의 칼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졌고, 나머지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조조는 항복하는 자들을 모두 받아들인 뒤 곧바로 군사를 몰아 한단으로 진격했다. 이때 저곡이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왔다. 장료가 말을 타고 나가 저곡과 맞붙었는데, 세 합을 채 겨루기도 전에 저곡은 크

게 패하였고 장료는 그 뒤를 쫓았다. 두 말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자 장료가 급히 활을 쏘았고, 저곡은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다. 조조가 군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자 군사들이 몰려들어 살육하니, 남은 무리는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이윽고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기주에 당도했다. 조홍은 이미 성 아래까지 진격해 있었다. 조조는 삼군에게 명령하여 성을 에워싸고 토산을 쌓게 했으며, 성을 공격하기 위해 몰래 땅굴을 파게 했다. 심배는 수비를 견고히 하고 법령을 매우 엄격히 다스렸는데, 동문 수비장인 풍례가 술에 취해 순찰을 소홀히 하자 심배가 그를 크게 꾸짖었다. 풍례는 이에 원한을 품고 몰래 성 밖으로 나가 조조에게 항복했다. 조조가 성을 함락할 계책을 묻자 풍례가 말했다. "성문 안쪽은 흙이 두터우니, 땅굴을 파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조는 즉시 풍례에게 명령하여 삼백 명의 용맹한 장사들을 이끌고 밤을 틈타 땅굴을 파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한편, 심배는 풍례가 항복한 뒤로 매일 밤 직접 성벽에 올라 군마를 점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돌문 누각 위에서 성 밖에 등불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심배가 말했다. '풍례가 분명 땅굴을 파서 군사를 끌고 들어오려 하는구나.' 심배가 급히 정예병을 불러 돌을 실어 나르게 하여 돌문 빗장을 내리치게 하니, 문이 닫히면서 땅굴 속에 있던 풍례와 삼백 명의 장사들이 모두 그 안에서 죽고 말았다. 조조는 이 싸움에서 손실을 입은 뒤 땅굴을 이용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원상이 군사를 돌려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환수 가로 군대를 물렸다. 한편, 평원을 공격하던 원상은 조조가 이미 윤개와 저곡을 격파하고 대군으로

기주를 포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군사를 돌려 구원하러 나섰다. 이때 부하 장수 마연이 말했다. '큰길로 가면 조조가 반드시 매복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작은 길을 택해 서산에서 부수구를 거쳐 조조의 진영을 습격한다면, 분명 포위망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따라 군사를 이끌고 대군을 먼저 출발시켰으며, 마연과 장의에게 후방을 지키며 퇴로를 차단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이미 첩자가 이 사실을 조조에게 보고했다. 조조가 말했다. "저들이 큰길로 온다면 내가 피해야겠지만, 만약 서쪽 산길로 온다면 단 한 번의 싸움으로도 사로잡을 수 있다. 원상이 반드시 횃불로 신호를 보내 성 안의 군사들에게 응원하라고 할 것이니, 나는 병력을 나누어 그들을 격파하겠다." 이로써 작전 배치가 모두 결정되었다.

한편, 원상이 부수의 경계 어귀를 나와 동쪽 양평까지 진군한 뒤, 기주에서 17리 떨어진 양평정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곳은 한쪽이 부수를 끼고 있었다. 원상은 군사들에게 땔나무와 마른 풀을 쌓아 두게 했다. 밤이 되면 불을 피워 신호로 삼게 했다. 그러고는 주부 이부를 조조군의 도둑으로 변장시켜 성 아래까지 보낸 뒤 '문을 열어라!'라고 크게 외치게 했다. 심배는 그 목소리가 이부인 것을 알아채고 그를 성 안으로 들여보냈다. 이부가 말했다. '원상이 이미 양평정에 군사를 배치하고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성 안에서 병사들이 나오면 똑같이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십시오.' 심배는 성 안에 풀을 쌓아 두었다가 불을 피워 소식을 주고받도록 지시했다. 이부가 말했다. '성 안에 식량이 없으니, 노약자와 병약한 병사들, 그리고 부녀자들을 먼저 내보내

항복하게 합시다. 적들이 방비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곧바로 군사를 몰아 백성들의 뒤를 이어 공격하겠습니다.' 심배도 이 의견에 따랐다.

다음 날, 성 위에 흰 깃발이 세워지더니 '기주 백성들이 항복한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조조가 말했다. '성 안에 식량이 떨어져 노약자들을 먼저 내보내 항복시키는 것이니, 뒤이어 반드시 군사가 나올 것이다.' 조조는 장료와 서황에게 각각 삼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양옆에 매복하라고 명령했다. 조조는 직접 말을 타고 깃발과 일산을 펼친 채 성 아래로 내려갔다. 과연 성문이 열리자, 백성들이 노인과 아이들을 부축하며 흰 깃발을 손에 든 채 밖으로 나왔다. 백성들이 모두 빠져나가자마자 성 안에서 군사들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조조가 붉은 깃발을 흔들며 신호를 보내자, 장료와 서황이 이끄는 양쪽의 군사가 일제히 달려나가 혼란에 빠진 적들을 몰아치며 공격했다. 성 안의 군사들은 겨우 뒤로 물러날 뿐이었다. 조조가 직접 말을 달려 추격하여 조교 근처에 이르렀을 때, 성 안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화살 하나가 조조의 투구에 명중하여 머리 꼭대기를 뚫을 뻔할 정도로 아슬아슬했다. 장수들이 급히 조조를 구출하여 진영으로 돌아갔다. 조조는 옷을 갈아입고 말도 바꾼 뒤, 장수들을 이끌고 다시 원상의 영채를 공격하러 나갔다. 원상도 직접 적을 맞이하러 나왔다.

각지의 군사들이 일제히 몰려와 양측 군대가 뒤섞여 난전을 벌였고, 원상은 크게 패했다. 원상은 병사들을 이끌고 서산으로 퇴각하여 진을 쳤으며, 사람을 보내 마연과 장이를 재촉하여 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조조가 이미 여광과 여상을 보내 그 두 장수를 투항시키려 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두 장수는 여광, 여상과 함께 내려와 항복했고,

조조는 그들에게 열후의 작위를 내려 주었다. 조조는 곧바로 군사를 몰아 서산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여광, 여상과 마연, 장이를 보내 원상의 식량 보급로를 끊어버렸다.

원상은 서산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밤을 틈타 일구로 도망쳤다. 하지만 채 진영을 정비하기도 전에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복병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병사들은 갑옷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말에 안장도 없지 못한 채 혼비백산하여 무너졌다. 원상의 군대는 50리나 뒤로 밀려나며 패퇴했는데, 기력이 다하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되자 결국 예주자사 음기를 조조의 진영으로 보내 항복을 청하게 했다. 조조는 일단 항복을 받아주는 척하고는, 그날 밤 곧바로 장료와 서황을 보내 원상의 진영을 습격하게 했다. 원상은 인장과 인끈, 권위를 상징하는 절월(節鉞), 갑옷과 군수 물자를 모두 내버려 둔 채 중산을 바라보며 도망쳤다. 그사이 조조는 군사를 돌려 기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때 허유가 계책을 내놓으며 말했다. '어찌하여 장하의 물길을 터서 그곳을 물에 잠기게 하지 않으십니까?'

조조는 바로 계책을 세워, 먼저 군사를 보내 성 밖 사십 리에 이르는 범위에 해자를 팠다. 성 위에 있던 심배는 조조의 군사들이 성 밖에서 해자를 파는 것을 보고는, 파놓은 깊이가 너무 얇은 것을 발견했다. 심배는 속으로 비웃으며 말했다.

"장하의 물을 끌어들여 성을 침수시키려는 속셈이로구나. 하지만 물을 끌어들이려면 강이 깊어야지, 저렇게 얇게 파서 무엇에 쓰겠느냐?"

심배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조조는 군사를 열 배나 더 늘리고 힘을 다해 물길을 뚫다. 날이 밝을 무렵에는 도랑의 너비와 깊이가 각각 두 장(丈)에 달했고, 장하의 물을 끌어들여 성안으로 흘려보내니 물이 몇 자 깊이로 차올랐다. 설상가상으로 군량마저 끊기자 병사들이 모두 굶어 죽었다. 성 밖에 있던 신비는 창 끝으로 원상의 인장과 의복을 꿰어 들어 올려 성안 사람들을 회유하여 항복하게 했다. 이에 심배가 크게 노하여 신비의 가족과 노소 80여 명을 성벽 위에서 베어 그 머리를 성 아래로 던져버렸다. 신비는 통곡하며 그치지 못했다. 평소 신비와 사이가 두터웠던 심배의 조카 심영은 신비의 가족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깊은 원한을 품었다. 그는 몰래 성문을 바치겠다는 글을 써서 화살에 매단 뒤 성 밖으로 쏘아 보냈다. 병사들이 그 글을 주워 신비에게 가져다주자, 신비는 그 글을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는 먼저 명령을 내렸다. '기주에 들어가거든 원씨 일가의 노소를 결코 죽이지 말 것이며, 항복하는 군사와 백성은 모두 죽음을 면하게 하라.'

다음 날 날이 밝자, 심영이 서문을 활짝 열어 조조의 군사를 들여보냈다. 신비가 말을 타고 앞장서서 들어갔고, 군사들이 그 뒤를 따라 기주성 안으로 들이닥치며 살육을 시작했다. 심배는 성의 동남쪽 성루에 있다가 조조의 군대가 이미 성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기병 몇 명을 이끌고 성 아래로 내려가 죽기로 싸웠다. 그러다 마침 서황과 마주쳐 말을 맞대고 싸웠으나, 서황에게 생포되어 성 밖으로 끌려 나오던 중 길에서 신비와 마주쳤다. 신비는 이를 갈며 채찍으로 심배의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도둑놈아, 오늘이 네가 죽을 날이다!' 그러자 심배도 신비를 향해 크게 꾸짖었다. '이 반역자 놈아! 조조를 끌어들여 내 기주를 망쳐 놓다니,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구나!'

서황이 심배를 압송하여 조조 앞으로 끌고 왔다. 조조가 물었다. '네 게 성문을 열어 나를 맞아들인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심배가 대답했다. '모른다.' 조조가 말했다. '네 조카 심영이 바친 것이다.' 심배가 노하여 말했다. '어린것이 못나서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조조가 다시 물었다. '어제 내가 성 아래에 이르렀을 때, 성안에서 날아온 화살이 어찌 그리 많았느냐?' 심배가 말했다. '적어서 한스럽다! 적어서 한스럽다!' 조조가 말했다. '네가 원씨 가문에 충성하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제 내게 항복하겠느냐?' 심배가 말했다. '항복하지 않겠다! 항복하지 않겠다!' 그때 신비가 땅에 엎드려 울며 절하며 말했다. '제 가족 여든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저 도적놈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승상께서 부디 저자를 죽여 이 한을 풀어 주십시오!' 심배가 말했다. '나는 살아서 원씨의 신하요, 죽어서는 원씨의 귀신이 될 것이니, 너희처럼 참소하고 아첨하며 알랑거리는 도적들과는 다르다! 어서 나를 베어라!' 조조가 그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심배는 처형을 당하기 직전, 집행관을 꾸짖으며 말했다. '나의 주군이 북쪽에 계시니, 나를 남쪽을 향해 죽게 하지 말라!' 그러고는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목을 길게 빼어 칼날을 받았다.

후대의 어떤 이가 시를 지어 그를 탄식하며 기리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하북에 명사가 많다 한들 심배만 하겠는가? 어리석은 주군을 만나 목숨을 잃었으나, 그 마음은 옛 성현과 견줄 만하구나. 충직하여 숨김 없이 말하고, 청렴하여 탐욕이 없었네. 죽음 앞에서도 북쪽을 향하니, 행복한 자들은 모두 부끄러워하리라.'

심배가 죽자 조조는 그의 충절과 의리를 가엾게 여겨 성 북쪽에 장사 지내게 했다. 장수들이 조조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자고 청했다. 조조가 막 움직이려는데, 칼과 도끼를 든 병사들이 한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이 보였다. 조조가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진림이었다.

조조가 진림에게 말했다. "그대가 예전에 원소의 일을 위해 격문을 썼으나, 죄상을 적은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조상과 부친까지 모욕했던 말이나?"

진림이 대답했다. "이미 화살은 시위에 걸려 있으니, 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조조에게 그를 죽이라고 권했다. 그러나 조조는 그의 재능을 아깝게 여겨 그를 사면하고 종사로 삼았다.

한편, 조조의 장남 조비는 자가 자환이며 당시 나이는 열여덟 살이었다. 조비가 태어날 때, 방 안에 청자색을 띤 구름 한 덩이가 수레 덮개처럼 둥글게 감돌더니 온종일 흩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본 관상가가 조조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이것은 천자의 기운입니다. 장차 귀하게 될 자식이니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조비는 여덟 살 때부터 글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재능이 뛰어났고, 옛것과 현재의 일을 두루 통달했으며, 말 타기와 활쏘기에도 능하고 검술을 즐겼다.

조조가 기주를 정벌할 때 조비도 아버지를 따라 군에 머물고 있었다. 조비는 먼저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원소의 집으로 곧장 달려가, 말에서 내려 검을 뽑아 들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한 장수가 앞을 막아서며 "승상께서 명하시기를, 누구도 원소의 저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

섰다"라고 말했으나, 조비가 크게 꾸짖어 물리치고 검을 든 채 후당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두 여인이 서로를 껴안고 울고 있는 것이 보였고, 조비는 그들을 죽이려고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 사세에 걸친 공후의 영광은 꿈처럼 사라지고, 한 집안의 혈육은 또다시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진다.

제33회 — 조비가 혼란을 틈타 견씨를 맞이하고, 광가가 유지를 남겨 요동을 평 정하다

曹丕乘亂納甄氏 郭嘉遺計定遼東

한편, 조비는 두 여인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칼을 뽑아 베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붉은 빛이 가득하자, 그는 칼을 거두고 물었다. "너희는 누구냐?" 한 여인이 대답했다. "저는 원 장군의 아내 유씨라고 합니다." 조비가 다시 물었다. "그 여인은 누구냐?" 유씨가 말했다. "이 아이는 원희의 아내 견씨입니다. 원희가 유주를 지키러 떠날 때 견씨가 멀리 따라가기를 원치 않아 이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조비가 그 여인을 가까이 끌어당겨 보니, 머리는 풀어헤치고 얼굴은 때가 타 께죄죄한 모습이었다. 조비가 소매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며 자세히 살펴보니, 견씨는 살결이 옥처럼 고우며 모습이 꽃처럼 아름다워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절세가인이었다. 이에 조비가 유씨에게 말했다.

다. "나는 조 승상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가문을 보살필 터이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러고는 칼을 짚은 채 대청에 앉았다.

한편, 조조가 장수들을 거느리고 기주 성으로 들어갔다.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허유가 말을 타고 다가오더니 채찍으로 성문을 가리키며 조조에게 소리쳤다. "아만, 네가 나를 얻지 못했다면 어찌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조조는 크게 웃었으나, 이를 들은 장수들은 모두 불쾌한 마음을 품었다.

조조가 원소의 저택 앞에 이르러 문기를, "전에 이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자, 수문장이 대답했다. "세자께서 안에 계십니다." 조조가 세자를 불러 꾸짖으려 하자, 유씨가 나와 절하며 말했다. "세자가 아니었다면 제 집안을 보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건씨를 세자의 곁에서 집안일을 돌보는 첩으로 바치게 해 주십시오." 조조가 명령하여 건씨를 불러 앞으로 나오게 했다. 조조가 그녀를 보고는 "참으로 내 며느릿감이로구나!"라며 감탄하더니, 곧바로 조비에게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했다.

조조는 기주를 평정한 뒤, 직접 원소의 묘를 찾아가 제사를 지냈다. 그는 두 번 절하며 슬프게 통곡하더니,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옛날 내가 원소와 함께 군사를 일으켰을 때, 원소가 내게 물었었지. '만약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느 지역을 근거지로 삼는 것이 좋겠소?'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더니, 원소가 대답하기를 '남쪽으로는 황하를 끼고, 북쪽으로는 연(燕)과 대(代) 땅을 방벽으로 삼으며, 사막의 무리들까지 아울러 거느린 채 남

쪽으로 향해 천하를 다툰다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지 않겠소?'라고 했었네. 그때 나는 '그대가 천하의 지혜와 힘을 맡아 도리로써 다스린다면, 못 할 일이 무엇이 있겠소'라고 답했었지. 이 말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이제 원소는 세상을 떠났으니 내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장수들이 모두 탄식했다. 조조는 금과 비단, 양식 등을 원소의 아내 유씨에게 하사하고는 명령을 내렸다.

"하북의 주민들이 전쟁의 고통을 겪었으니, 올해의 세금을 모두 면제하라."

이어 조조는 조정에 이 사실을 보고하는 상소문을 올리고, 직접 기주 목이 되었다.

어느 날, 허저가 말을 타고 동문으로 들어오는데 마침 허유와 마주쳤다. 허유가 허저를 불러 꾸짖었다. "너희에게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성문을 드나들 수 있었겠느냐?" 그러자 허저가 화를 내며 말했다. "우리는 수만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피 튀기는 전투를 치러 이 성을 차지했다. 네가 어찌 감히 잘난 체를 한단 말이나!" 허유가 다시 욕설을 퍼부었다. "너희는 그저 평범한 무리일 뿐인데, 무엇이 대수라고 떠드느냐!" 허저가 크게 분노하여 칼을 뽑아 허유를 죽이고는, 그의 머리를 들고 조조에게 가서 보고했다. "허유가 이토록 무례하게 굴기에 제가 죽였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허유는 나와 오래된 사이이니 그저 농담을 한 것뿐인데, 어찌하여 죽였던 말이나?" 조조는 허저를 크게 꾸짖고, 허유를 정중히 장사 지내게 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시켜 기주

의 현명한 선비들을 살살이 찾아보게 했다. 기주의 백성들이 말했다.
"청하군 동무성 출신의 기도위 최염을 찾아보십시오. 그는 자가 계급인데, 예전에 원소에게 여러 차례 계책을 올렸으나 원소가 따르지 않아 병을 핑계로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조는 즉시 최염을 기주의 별가 종사로 임명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어제 이 지역의 호적을 살펴보니 인구가 모두 30만 명에 달하더군. 참으로 큰 주라고 할 만하네."

그러자 최염이 말했다. "지금 천하가 갈라지고 아홉 주가 찢겨 나갔습니다. 원소의 두 아들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기주의 백성들이 들판에서 뼈를 드러낼 정도로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이 고통에서 구제할 방도를 먼저 찾지 않으시고, 앞서 호적을 조사하여 계산하는 일부터 하려 하십니까? 기주의 선비와 백성들이 명공께 바라는 것이 정녕 이런 것이겠습니까?"

조조는 그 말을 듣고 안색을 고쳐 정중히 사과하며, 그를 상석에 모셔 귀빈으로 대접했다. 조조가 이미 기주를 평정한 뒤, 사람을 보내 원담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당시 원담은 군사를 이끌고 감릉, 안평, 발해, 하간 등을 약탈하다가, 원상이 중산으로 패주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몰아 그를 공격했다. 원상은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곧장 유주로 달려가 원희에게 몸을 의탁했다. 원담은 항복해 오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시 기주를 되찾으려 꾀했다. 조조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들였으나 원담은 오지 않았다. 조조는 크게 노하여 서신을 보내 혼약을 끊어버리고, 직접 대군을 이끌고 정벌에 나서 평원까지 진격했다.

원담이 조조가 군대를 이끌고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유표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유표는 유비에게 이 일을 상의했다. 유비가 말했다. "지금 조조는 이미 기주를 평정하여 기세가 매우 드높습니다. 원씨 형제는 머지않아 조조에게 사로잡힐 것이니, 그들을 돕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게다가 조조는 평소 형주와 양양 땅을 노리고 있으니, 우리는 그저 군사를 기르며 스스로를 지킬 뿐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유표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거절의 뜻을 전해야 하겠소?" 유비가 대답했다. "원씨 형제에게 편지를 보내십시오. 화해를 청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완곡한 말로 정중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유표는 유비의 말을 옹계 여겨, 먼저 사람을 시켜 원담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군자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수의 나라에는 가지 않는 법입니다. 얼마 전 그대가 무릎을 굽혀 조조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는 선조의 뜻을 저버리고 형제의 의리를 버려 동맹에 수치를 끼친 일입니다. 만약 기주(원상)가 아우의 도리를 지키지 않더라도, 그대는 마땅히 마음을 누그러뜨려 서로 화합하십시오. 일이 안정된 뒤에 천하로 하여금 그 옳고 그름을 가리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높은 의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원상에게는 이런 편지를 보냈다. "청주(원담)는 천성이 거칠고 급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 어둡습니다. 그대는 마땅히 먼저 조조를 제거하여 돌아가신 아버님(원소)의 원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일이 안정된 뒤에 옳고 그름을 따져 가린다면 그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 미혹되어 돌이키지 못한다면, 이는 한로(韓廬)라는 명견과 동곽(東郭)이라는 토끼가 쫓고 쫓기다 스스로 지쳐 쓰러져, 결국 농부(田父)에게 둘 다 노획물로 넘겨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원담은 표의 서신을 받고 그가 군사를 일으킬 뜻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스스로 조조를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한 원담은 평원을 버리고 남피로 도망쳐 몸을 피했다. 조조가 남피까지 추격해 왔을 때, 마침 날씨가 매우 춥고 서늘하여 강물이 모두 얼어붙는 바람에 식량 배가 움직일 수 없었다. 조조가 현지 백성들에게 얼음을 깨고 배를 끌라고 명령했으나, 백성들은 명령을 듣자마자 모두 달아나 버렸다. 조조가 크게 노하여 그들을 잡아 처형하려 하자,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직접 진영으로 찾아와 목숨을 구걸했다. 조조가 말했다. "너희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명령이 서지 않을 것이요, 그렇다고 너희를 죽이자니 내 마음이 차마 허락지 않는구나. 그러니 어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나를 피해라. 내 군사들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백성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물러갔다.

원담이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 조조의 군대와 맞섰다. 양쪽 진영이 마주 대치하자, 조조가 직접 말을 타고 나가 채찍으로 원담을 가리키며 꾸짖었다. "내가 너를 후하게 대하였거늘, 어찌 감히 딴 마음을 품었느냐?" 원담이 대답했다. "당신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성을 빼앗았으며, 우리 처자식까지 가로챘으면서 도리어 내가 딴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조조가 크게 노하여 서황을 출전시켰다. 원담은 팽안을 보내 맞서 싸우게 했다. 두 군대가 격돌하여 몇 합을 겨루지 못해 서황이 말 아래에서 팽안을 베어버렸다. 원담의 군대는 패하여

남피 성으로 후퇴했고, 조조는 군사를 보내 사방에서 성을 에워쌌다. 당황한 원담은 신평을 보내 조조와 항복을 논의하도록 했다. 조조가 말했다. "원담은 하는 짓이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놈이다. 네 동생 신비는 내가 이미 중용하고 있으니, 너도 이곳에 남아 있어도 좋다." 그러자 신평이 말했다. "승상께서 틀리셨습니다. 사람은 주군이 귀해지면 신하도 영광을 얻고, 주군이 근심하면 신하도 욕을 보는 법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원씨 가문을 섬겨왔는데, 어찌 그들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조조는 더는 머물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즉시 신평을 돌려보냈다. 신평이 원담을 만나 조조가 항복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하자, 원담이 꾸짖으며 말했다. "네 아우 신비가 조조를 섬기고 있으니, 너도 두 마음을 품은 것이냐?" 신평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터질 듯한 분노를 참지 못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사람들이 신평을 부축해 밖으로 옮겼으나 그는 곧 숨을 거두고 말았다. 원담 또한 이를 몹시 후회했다. 곽도가 원담에게 말했다. "내일은 백성들을 모두 앞세워 몰아내고, 그 뒤를 군사들이 따르게 하여 조조와 결사 항전을 벌여야 합니다."

원담은 곽도의 말을 따랐다. 그날 밤, 남피의 백성들을 모두 몰아내어 칼과 창을 들게 하고 명령을 기다리게 했다. 다음 날 새벽, 성문의 네 곳을 활짝 열고 군사들은 뒤에서 몰아붙이고 백성들은 앞에서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밀고 나가 조조의 진영까지 단숨에 들이닥쳤다. 양측 군대가 뒤엉켜 싸우는 혼전이 진시(오전 7~9시)부터 오시(오전 11시~오후 1시)까지 이어졌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고, 땅에는 시체가 즐비했다. 조조는 아직 완전히 승기를 잡지 못함을 보고 말을 타고 산에 올라

직접 북을 쳤다. 장졸들이 이를 보고 힘을 다해 앞으로 돌격하자, 원담의 군대는 크게 무너졌고 죽임을 당한 백성들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조홍이 위세를 떨치며 진영을 돌파해 원담과 맞닥뜨렸고, 칼을 휘두르며 난폭하게 공격하자 결국 원담은 조홍의 칼에 진중에서 목숨을 잃었다. 광도는 진영이 크게 혼란스러워진 것을 보고 급히 성안으로 말을 달려 들어갔다. 악진이 이를 보고 활을 들어 화살을 쏘니, 성벽 아래 해자 속으로 사람과 말이 함께 빠져들었다.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남피로 들어가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그때 갑자기 한 무리의 군사가 몰려왔는데, 바로 원희의 부장인 초촉과 장남이었다. 조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가자, 두 장수는 무기를 내려놓고 갑옷을 벗으며 항복의 뜻을 밝혔다. 조조는 이들을 열후로 봉했다. 또한 흑산적 두령 장언이 십만 대군을 이끌고 항복해 오자, 조조는 그를 평북장군으로 임명했다. 조조는 원담의 머리를 내걸어 군사들에게 보게 하되, 감히 우는 자가 있으면 목을 베라고 명령했다. 원담의 머리는 북문 밖에 걸렸다. 이때 한 사람이 관을 벗고 상복을 입은 채 원담의 머리 아래에서 통곡하고 있었다. 좌우 호위병들이 그를 붙잡아 조조 앞으로 데려왔다. 조조가 물으니, 그는 청주 별가인 왕수였다. 그는 원담을 보필하다가 쫓겨났는데, 이제 원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러 온 것이었다.

조조가 물었다. "그대는 내 명령을 알겠는가?"

왕수가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조조가 다시 물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왕수가 말했다. "저는 살아서 그분(원담)의 부름을 받아 벼슬했는데, 그분이 죽었는데도 통곡하지 않는다면 의리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의리를 잇는다면 어찌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원담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줄 수만 있다면, 처형을 당해도 한이 없겠습니다."

조조가 감탄하며 말했다. "하북에는 어찌 이리 의로운 선비가 많은가! 원씨가 이들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 안타깝구나. 만약 그들이 이 인재들을 쓸 줄 알았다면, 내가 어찌 감히 이 땅을 똑바로 넘볼 수 있었겠는가?"

조조는 즉시 원담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게 하고, 왕수를 귀한 손님으로 예우하며 사금중랑장으로 임명했다. 그러고는 왕수에게 물었다. "이제 원상이 이미 원희에게 의탁했으니, 그들을 치려면 어떤 책략을 써야 하겠는가?"

왕수가 대답하지 않자, 조조가 말했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로구나."

조조가 곽가에게 의견을 묻자, 곽가가 말했다. "원씨 가문의 항복한 장수인 초촉과 장남 등을 시켜 그들을 공격하게 만드십시오."

조조가 이 말을 따라, 곧 초촉, 장남, 여광, 여상, 마연, 장이를 보내 각자의 부대를 이끌고 세 갈래로 나누어 유주를 공격하게 했다. 한편으로는 이전과 낙진을 보내 장연과 합류하게 하여 병주를 치고 고간을 공격하게 했다.

한편, 원상과 원희는 조조의 군사가 곧 들이닥칠 것을 알고 대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을 버리고 군사를 이끌고 밤낮없이 요서로 달려가 오환에게 몸을 의탁했다. 유주의 자사인 오환축은 유주의 관리들을 모아놓고 피를 나누어 마시며 맹세를 하며, 원씨 형제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항복할 것을 함께 논의했다.

오환축이 먼저 입을 열어 말했다. "나는 조조 승상이 세상에 드문 영웅임을 잘 알고 있다. 이제 항복하러 가는 길에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베겠다."

차례로 피를 나누어 맹세가 이어지다가 별가 한형에게 이르렀다. 그러자 한형은 칼을 땅에 내던지며 크게 외쳤다. "나는 원소 부자에게 두터운 은혜를 입었다. 이제 주군이 패망하였으니, 지혜로는 구할 수 없고 용맹으로는 죽을 수도 없다! 의리가 부족한 셈이다! 만약 조조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항복한다면,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모두가 안색이 변하며 당황했다. 오환축이 말했다. "큰일을 도모하려면 마땅히 큰 의리를 세워야 합니다. 일이 성공하느냐는 한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니, 한형이 이미 뜻을 굳혔다면 그 뜻대로 하게 두십시오." 오환축은 한형을 밖으로 밀어냈다. 그러고는 성 밖으로 나가 세 갈래로 몰려오는 군마를 맞이하며 곧장 조조에게 항복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진북장군 직위를 더해 주었다.

그때 갑자기 정찰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낙진, 이진, 장연이 병주를 공격하고 있으나, 고간이 호구관을 지키고 있어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조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직접 나섰다. 세 장수가 맞이하며

"고간이 관문을 굳게 지키고 있어 공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답했다. 조조가 여러 장수를 모아 고간을 격파할 계책을 논의하자, 순유가 말했다. "고간을 무너뜨리려면 반드시 거짓으로 항복하는 계책을 써야 합니다."

조조가 그렇게 말하자, 항복한 장수였던 여광과 여상을 불러 곁에서 귀띔하며 "이렇게 하라"라고 일러주었다. 여광 등이 군사 수십 명이 이끌고 곧장 관문 아래까지 달려가 외쳤다.

"우리는 원래 원씨 가문의 옛 장수들이었으나, 어쩔 수 없이 조조에게 항복했을 뿐이다! 조조는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며 우리를 박대하니, 나는 이제 다시 옛 주인을 섬기러 왔다. 어서 문을 열어 우리를 맞아들여라!"

고간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두 장수에게 위쪽 관문에서 직접 말해보라고 명령했다. 두 장수는 갑옷을 벗고 말을 버려둔 채 성 안으로 들어가 고간에게 말했다.

"조조의 군대가 새로 도착했으니, 군사들의 마음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틈을 타 오늘 밤 진영을 습격해야 합니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고간은 그 말에 따라 그날 밤 여광과 여상 두 사람을 앞세워 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다. 그러나 조조의 진영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뒤편에서 엄청난 함성이 들려오더니 사방에서 복병이 들이닥쳤다. 고간은 계략에 빠졌음을 깨닫고 급히 호구관 성으로 되돌아갔으나, 이미 악진과 이전이 관문을 점령한 뒤였다. 고간은 겨우 길을 뚫고 도망

쳐 선우(單于)에게로 향했다.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관문을 막아선 채 사람을 보내 고간을 추격하게 했다.

고간이 선우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 마침 북번의 좌현왕을 맞닥뜨렸다. 고간은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말했다. "조조가 영토를 집어삼키더니 이제는 왕자님의 땅까지 침범하려 합니다. 제발 저를 구해주십시오. 힘을 합쳐 적을 물리치고 북방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자 좌현왕이 말했다. "나는 조조와 원한이 없는데 어찌 내 땅을 침범하겠는가? 그대는 나를 조씨 일가와 원수가 되게 하려는 것인가!"라며 고간을 꾸짖어 돌려보냈다. 고간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깨닫고 유표에게 의탁하기로 했다. 그는 상루로 향하던 중 도위 왕염에게 죽임을 당했고, 왕염은 고간의 머리를 베어 조조에게 보냈다. 조조는 왕염을 열후로 봉했다.

병주가 안정되자 조조는 서쪽의 오환을 공격할 방도를 논의했다. 조홍 등이 말했다. "원희와 원상은 군사가 패하고 장수들도 죽어 세력이 다하고 힘이 다했습니다. 그들은 멀리 사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치러 갔다가, 만약 유비나 유표가 빈틈을 타서 허도를 습격한다면 우리가 제때 구원하러 가지 못해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디 군사를 돌려 진격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자 곽가가 말했다. "여러 분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주공의 위세가 천하를 진동시킨다 하나, 사막에 있는 자들은 변방이 멀다는 점을 믿고 반드시 대비를 철저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방비하지 않을 때 갑자기 공격한다면 반드시 격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소는 오

환과 은혜를 나눈 사이였고, 원상과 원희 형제가 아직 살아 있으니 이들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표는 그저 앉아서 이야기나 나누는 손님일 뿐입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재능이 유비를 막기에 부족함을 알고 있으니, 유표를 중용하면 유비를 제어하지 못할까 두려워할 것이요, 가볍게 대하면 유비가 제멋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비록 나라를 비워두고 원정을 떠난다 해도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곽가의 말이 지극히 옳다."

조조는 곧 대규모 군사와 수천 대의 수레를 이끌고 전방을 향해 진군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넓은 황사뿐이었고, 사방에서는 거친 모래바람이 휘몰아쳤다. 길은 험하고 울퉁불퉁하여 사람과 말이 나아가기조차 힘들었다. 조조는 군사를 돌릴까 고민하며 곽가에게 물었다. 당시 곽가는 낫선 땅의 물과 토질에 적응하지 못해 수레 안에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조조가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사막을 평정하려다 그대에게 이토록 큰 고생을 시켜 병까지 얻게 했으니, 내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곽가가 대답했다. "승상의 큰 은혜에 감동하여, 죽더라도 그 은혜의 만 분의 일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조조가 다시 물었다. "북쪽 땅의 길이 너무 험해 군사를 되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곽가가 말했다. "군사는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지금 천 리 길을 가로질러 적을 습격하려는데, 군수 물자가 너무 많아 빠르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병력을 가볍게 하여 여러 길로 나누어 나가 적의 허를 찔러야 합니다. 다만 길을 잘 아는 자를 앞세워 안내하게 해야 합니다."

조조는 곽가를 이주에 머물게 하며 병을 치료하게 하고, 길을 안내해 줄 향도관을 구했다. 이때 사람들이 원소의 옛 장수였던 전주(田疇)를 추천했는데, 전주는 그곳 지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조조가 그를 불러 상황을 묻자 전주가 말했다.

"이 길은 여름과 가을 사이에 물이 차오릅니다. 물이 얇으면 수레와 말이 지나가지 못하고, 물이 깊으면 배조차 띄울 수 없어 움직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차라리 군사를 돌려 노룡구를 거쳐 백단의 험한 곳을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텅 빈 땅으로 나와 유성에 가까이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적이 대비하지 못한 틈을 타서 기습한다면, 모돈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전주의 말을 따랐다. 전주를 정북장군에 봉하고 향도관으로 삼아 앞장서게 했으며, 장료를 그 다음으로 세웠다. 조조는 뒤에서 군사를 몰며 행군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가벼운 기병으로 진격했다. 전주와 장료가 이끄는 군대가 백량산에 이르니, 마침 원희와 원상이 모돈의 군사 수만 기와 합류하여 몰려오던 참이었다. 장료가 급히 전령을 보내 조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조조는 말을 멈추고 높은 곳에 올라 적진을 살피더니, 모돈의 군사가 대열도 갖추지 못한 채 들쭉날쭉 어지러운 것을 발견했다. 조조가 장료에게 말했다. "적의 군대가 정돈되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공격하라." 그리고는 장료에게 깃발을 주어 공격 명령을 내렸다. 장료는 허저, 우금, 서황을 이끌고 네 갈래 길로 나누어 산을 내려가 힘차게 몰아붙였다. 모돈의 군대는 순식간에 큰 혼란에 빠졌다. 장료가 말을 달려 모돈을 말 아래에서 베어 넘기자, 남은 무리

는 모두 행복했다. 원희와 원상은 수천 기를 이끌고 요동으로 도망쳤다.

조조는 군사를 거두어 유성으로 들어간 뒤, 전주를 유정후로 봉하여 유성을 지키게 했다. 전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의리를 저버리고 도망쳐 숨었던 자일 뿐인데, 베풀어 주신 큰 은혜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찌 노룡의 보루를 팔아넘겨 상과 녹봉을 탐내겠습니까! 죽어도 후작의 자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조조는 그의 의리를 높이 사서 전주를 의랑으로 임명했다. 이어 조조는 선우(單于)의 사람들을 위무하고 준마 만 필을 거두어들인 뒤, 그날로 군사를 돌려 돌아갔다. 당시 날씨가 매우 춥고 가물기까지 하여 이백 리 땅에 물 한 방울 없었다. 군사들은 식량마저 부족해지자 말을 잡아먹으며 버텼고, 땅을 서너 길이나 파헤치고 나서야 겨우 물을 얻을 수 있었다. 조조가 이주에 도착하자, 예전에 자신에게 간언했던 이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 그리고는 장수들에게 말했다. "내가 지난번 위태로운 상황에서 멀리 원정을 떠났다가 운 좋게 성공했을 뿐이다. 비록 승리했으나 이는 하늘이 도운 것이지, 앞으로도 늘 이렇게 될 수는 없다. 그대들이 나를 간언한 것은 모두 만전을 기하는 계책이었기에 상을 주는 것이니, 앞으로도 거리낌 없이 어려운 말을 하라."

조조가 이주에 도착했을 때, 곽가는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나 관청에 관이 놓여 있었다. 조조가 그곳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며 크게 통곡하며 말했다. "봉효가 죽었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로다!" 그리고는 주위의 관리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러분의 나이는 모두 나와 비슷한 또래인데, 오직 봉효만이 가장 젊었소. 나는 앞으로의 일을

그에게 맡기려 했는데, 뜻밖에 중년에 요절하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소!"

이때 곽가의 측근이 다가와 곽가가 죽기 직전에 남긴 봉인된 편지를 올리며 말했다. "곽가 공께서 임종 전에 직접 쓰신 것입니다. '승상께서 만약 이 편지에 적힌 대로 행하신다면, 요동의 일은 평정될 것입니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조조가 편지를 뜯어 읽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하후돈이 장수들을 이끌고 나아가 보고했다. "요동 태수 공손강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원희와 원상이 그곳으로 도망쳐 의탁했으니, 분명 나중에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서둘러 정벌하러 떠난다면 요동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여러 장수의 위엄을 빌려 번거롭게 할 필요 없소. 며칠 지나지 않아 공손강이 스스로 원씨 형제의 머리를 가져올 것이오." 그러나 장수들은 모두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한편, 원희와 원상이 수천 기를 이끌고 요동으로 달려갔다. 요동 태수 공손강은 본래 양평 사람으로, 무위장군 공손도의 아들이었다. 공손강은 원희와 원상이 자신에게 의탁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부하 관리들을 모아 이 일을 논의했다.

공손공이 말했다. "원소가 살아 있을 때도 늘 요동을 삼키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원희와 원상이 군사를 잃고 갈 곳이 없어 이곳으로 찾아왔으니, 이는 비둘기가 까치의 둥지를 빼앗으려는 격이니

다. 만약 이들을 받아주었다가는 나중에 반드시 우리를 도모하려 들 것입니다. 차라리 성 안으로 유인해 죽인 뒤, 그 머리를 조조에게 바치면 조조가 반드시 우리를 후하게 대접할 것입니다."

그러자 공손강이 말했다. "다만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요동까지 내려올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원씨 형제를 받아들여 우리 세력에 보태는 편이 낫지 않겠소."

공손공이 대답했다. "사람을 보내 상황을 살피게 하십시오. 만약 조조의 군사가 공격해 온다면 원씨 형제를 남겨두고, 만약 조조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원씨 형제를 죽여 조조에게 보냅시다."

공손강은 이 말에 따라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한편, 원희와 원상은 요동에 도착하자마자 둘이서 몰래 의논했다. "요동의 군사 수가 수만 명이나 되니 조조와 맞서 싸울 만하오. 우선은 공손강에게 몸을 의탁했다가, 나중에 공손강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읍시다. 그렇게 힘을 길러 중원을 대항한다면 다시 하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오."

의논을 마친 원상과 원희는 공손강을 만나러 갔다. 하지만 공손강은 숙소에 머물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그들을 즉시 만나주지 않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첩자가 돌아와 보고하기를, "조조의 군대가 이주에 주둔하고 있으나, 요동까지 내려올 뜻은 없어 보입니다"라고 전했다.

공손강은 크게 기뻐하며, 미리 벽 뒤에 칼과 도끼를 든 무사들을 매복시켜 두고 두 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인사를 마친 뒤 자리에 앉

으라고 명했는데, 마침 날씨가 몹시 추워 침상 위에는 깔개조차 없었다. 원상이 공손강에게 "자리를 좀 깔아주십시오"라고 말하자, 공손강은 눈을 부릅뜨며 이렇게 말했다.

"너희 둘의 목은 이제 만 리 길을 떠나게 될 터인데, 자리가 무슨 소용이냐!"

두 사람이 크게 놀라기도 전에 공손강이 호통을 쳤다. "좌우는 어찌 지체하느냐!" 그러자 매복해 있던 무사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끌어냈고, 자리에 앉아 있던 그들의 목을 베어버렸다. 공손강은 잘린 머리를 나무 상자에 담아 사람을 시켜 이주에 있는 조조에게 보내게 했다.

한편, 조조는 이주에서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다. 하후돈과 장료가 들어와 보고했다. "만약 요동으로 진격하지 않으실 거라면 허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칫 유표가 탄마음을 품을까 두렵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원씨 형제의 머리가 도착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바로 군사를 돌리겠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비웃었다.

그런데 갑자기 요동의 공손강이 원희와 원상의 머리를 보냈다는 급보가 전해지자 모두가 크게 놀랐다. 사자가 가져온 서신을 확인한 조조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과연 광가의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구나!" 조조는 사자에게 큰 상을 내리고, 공손강을 양평후 좌장군으로 봉했다.

장수들이 "어째서 광가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라고 묻자, 조조는 광가가 남긴 글을 꺼내 보여주었다. 글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지금 원희와 원상이 요동으로 도망쳐 의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공께서는 절대로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공손강은 오래 전부터 원씨 일가가 자신을 삼킬까 두려워했기에, 두 사람이 요동으로 간 것을 알면 반드시 의심할 것입니다. 만약 군사를 보내 그들을 공격한다면, 공손강은 원씨 형제와 힘을 합쳐 맞서 싸울 것이니 급히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황을 지켜보며 천천히 대처하신다면, 공손강과 원씨 형제는 반드시 서로를 해치려 할 것이니 형세가 자연히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찬사를 보냈다. 조조는 관리들을 거느리고 다시 한번 곽가의 영전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곽가는 서른여덟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조조를 따라 전쟁터를 누빈 지 11년 동안 그는 수많은 큰 공을 세웠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기리며 지은 시에 이르기를 다음과 같았다.

"하늘이 곽가를 내시니, 영웅들 중 으뜸이라네. 뱃속에는 경전과 역사가 가득하고, 가슴 속에는 병법이 숨어 있구나. 피를 내는 것은 범려와 같고, 결단력은 진평과 같으니,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 중원의 기둥이 쓰러졌도다."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기주로 돌아가면서, 사람을 보내 곽가의 영구를 먼저 허도로 보내 안장하게 했다. 정욱 등이 조조에게 청하기를, "북방이 평정되었으니 이제 허도로 돌아가면 조속히 강남을 공략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조조가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오래 전부터 그럴 뜻을 품고 있었소. 여러분의 말이 내 생각과 딱 맞구려."

그날 밤, 조조는 기주 성 동쪽 모퉁이에 있는 누각에서 묵으며 난간에 기대어 하늘의 기운을 살폈다. 그때 순유가 곁에 있었다. 조조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남쪽의 왕성한 기운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니, 아직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소." 그러자 순유가 말했다. "승상의 천하를 호령하는 위엄이라면 어찌 복종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한참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땅속에서 금빛 줄기가 번쩍하며 솟아올랐다. 순유가 말했다. "이것은 필시 땅속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조조는 곧장 누각 아래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빛이 나는 곳을 따라 땅을 파라고 명령했다.

과연 이러하니, "별의 문양이 남쪽을 가리키니, 금빛 보물이 북쪽 땅에서 솟아나네."

조조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회에서 풀어 이어진다.

제34회 — 채부인이 병풍 너머로 밀어를 듣고, 유황숙이 말을 달려 단계를 건너다

蔡夫人隔屏聽密語 劉皇叔躍馬過檀溪

한편, 조조가 금광에서 구리로 만든 새 모양의 조각을 파낸 뒤 순유에게 물었다. "이것이 어떤 징조인가?" 순유가 대답했다. "옛날 순임금의 어머니가 옥으로 된 참새가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순임금을 낳았다고 합니다. 지금 구리 새를 얻었으니, 이 또한 길조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높은 대를 쌓아 이 경사를 기념하라 명했다. 그리하여 그날로 땅을 파고 나무를 베며, 기와를 굽고 벽돌을 갈아 장하위에 동작대를 세웠다. 공사를 마치는 데 약 1년이 걸렸다. 이때 조조의 막내아들 조식이 나아가 제언했다. "만약 층을 쌓아 대를 만든다면, 반드시 세 개의 대를 세워야 합니다. 가운데 높이 솟은 것은 동작대라 이름하고, 왼쪽에는 옥룡대를, 오른쪽에는 금봉대를 세우십시오. 여기에 하늘을 가로지르는 다리 두 개를 더 놓으면 참으로 장관일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내 아들의 말이 참으로 좋구나. 훗날 대가 완성되면 내 노년을 즐기기에 충분하겠구나!" 본래 조조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오직 조식만이 총명하고 문장에 능하여 조조가 평소 가장 아꼈다.

그리하여 조조는 조식과 조비에게 업군에 머물며 동작대를 짓게 하고, 장연에게는 북쪽 채를 지키게 했다. 조조는 원소에게서 빼앗은 병사 50~60만 명을 거느리고 허도로 회군하여 공신들에게 큰 봉상을 내렸다. 또한 광가를 정후로 추증한다는 표문을 올리고, 그의 아들 광혁(郭奕)을 자신의 저택에서 거두어 양육했다. 이어 조조는 다시 여러 책사를 모아 유표를 정벌할 계획을 세웠다. 이때 순욱이 말했다. "대군이 북쪽을 정벌하고 막 돌아왔으니 곧바로 다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선 반년 정도 기다리며 힘을 기른다면, 유표와 손권은 단번에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가 이 말을 따랐으므로, 병력을 나누어 둔전하며 때를 기다리게 했다.

한편, 유비가 형주에 온 뒤로 유표는 그를 매우 극진히 대접했다. 어느 날, 유표와 유비가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강하에서 항장인 장무와 진손이 백성들을 약탈하며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유표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저 도적놈들이 또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 피해가 작지 않겠구나!"

그러자 유비가 말했다.

"형님께서 너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가서 토벌하겠습니다."

유표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삼만 군사를 뽑아 유비와 함께 보냈다. 유비가 명을 받들어 길을 떠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강하에 도착했

다. 장무와 진손이 군사를 이끌고 마중을 나왔다. 유비는 관우, 장비, 조운과 함께 말에 올라 성문 아래로 나갔다. 그때 유비의 눈에 장무가 타고 있는 말이 보였는데, 그 기세가 매우 웅장하고 훌륭했다. 유비가 감탄하며 말했다.

"저 말은 분명 천리마로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운이 창을 앞세워 적진으로 돌진했다. 장무가 말을 달려 맞서 싸웠으나, 조운과 세 합을 채 겨루기도 전에 창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졌다. 조운은 자연스럽게 고삐를 잡아당겨 말을 몰아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를 본 진손이 뒤따라와 빼앗으려 했으나, 장비가 크게 호통을 치며 창을 내뺀어 진손을 찔러 죽였다. 그러자 적들은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유비는 남은 무리들을 투항시켜 달라고 강하의 여러 현을 평정하여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 유표는 성곽 밖으로 나와 유비를 맞이하여 성으로 들인 뒤, 공을 축하하는 연회를 베풀었다. 술 기운이 한창 오르자 유표가 말했다.

"내 동생이 이토록 웅재를 갖추었으니 이제 형주도 의지할 곳이 생겼구려. 다만 남쪽의 월 지역에서 때때로 침입해 올까 걱정이고, 장루와 손권도 충분히 우려되는 인물들이오."

유비가 대답했다.

"제게는 믿고 부릴 수 있는 세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장비를 남월 경계에 보내 순찰하게 하고, 관우는 고자성을 지키게 하여 장루를 막게 하며, 조운은 삼강 지역을 지켜 손권에 맞서게 한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유표는 기뻐하며 그 말대로 하려 했다. 이때 채모가 누이인 채부인에게 가서 말했다. "유비가 세 장수를 밖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형주에 머물고 있으니, 머지않아 반드시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채부인이 밤에 유표를 찾아가 말했다. "형주 사람들이 유비와 자주 왕래한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가 성 안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차라리 사신을 보내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표가 말했다. "유비는 어진 사람이라네." 그러자 채부인이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유표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성 밖으로 나가 보니, 유비가 타고 있는 말이 매우 잘 달리는 준마였다. 물어보니 장무의 말이라기에 유비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유비는 이 말을 유표에게 선물로 보냈다. 유표는 크게 기뻐하며 그 말을 타고 성 안으로 돌아왔다. 이를 본 괴월이 유표에게 무엇인지 물었다. 유표가 "유비가 보내온 것이라네"라고 답하자, 괴월이 말했다. "예전에 저희 형님 괴량이 말 보는 데 가장 뛰어났는데, 저 또한 어느 정도 식견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눈 아래 눈물 자국이 있고 이마 옆에 흰 점이 있는데, '적로마'라고 불리는 말로 타는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장무도 이 말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군께서는 이 말을 타지 마십시오."

유표는 그 말을 듣고는, 다음 날 유비를 청해 연회를 베풀며 말했다. "어제 보내준 좋은 말을 받았네. 자네의 두터운 정에 깊이 감사하네만, 자네가 때에 맞춰 군사를 일으켜 나아갈 때 써야 할 물건이니, 나는 돌

려보내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유비가 일어나 감사를 표하자 유표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자네가 이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무예를 닦는 일을 소홀히 할까 걱정되네. 양양 근처의 신야현은 재물이 꽤 넉넉한 곳이니, 자네가 거느린 군사들을 데리고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무는 것이 어떻겠나?"

유비가 승낙했다. 다음 날, 유비는 유표에게 작별을 고하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곧장 신야로 향했다. 성문을 나서자마자 한 사람이 말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주군께서 타고 계신 그 말은 타서는 안 될 말입니다."

유비가 그를 살펴보니, 그는 형주의 막빈인 이적이었으며 자는 기백이고 산양 출신이었다. 유비가 급히 말에서 내려 물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적이 대답했다.

"어제 괴월이 유표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적로(的盧)라는 말인데, 타게 되면 주인을 해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주군께 돌려드린 것인데, 어찌 다시 타려 하십니까?"

유비가 말했다.

"선생의 염려에 깊이 감사하오. 하지만 사람의 생사는 하늘의 명에 달린 것이지, 어찌 말 따위가 방해할 수 있겠소!"

이적은 유비의 식견에 깊이 감복하였고, 이때부터 늘 유비와 왕래하며 지냈다.

유비가 신야에 온 뒤로 군사와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며 정치가 일신되었다. 건안 12년 봄, 감부인이 아들 유선을 낳았다. 그날 밤, 흰 학 한 마리가 현청 지붕 위로 날아와 마흔 번 넘게 높이 울더니 서쪽을 향해 날아갔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방 안 가득 신비로운 향기가 퍼졌다. 감부인은 예전에 밤에 복두칠성을 통째로 삼키는 꿈을 꾸었기에, 아이의 어릴 적 이름을 아두라 지었다.

이때 조조는 정예 병력을 이끌고 북쪽을 정벌하러 떠난 상태였다. 유비는 형주로 가서 유표에게 말했다. "지금 조조가 북쪽으로 떠나 허창이 비어 있습니다. 만약 형주와 양양의 군사를 모아 그 틈을 타 공격한다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유표가 대답했다. "나는 그저 형주를 굳건히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오. 어찌 따로 다른 계획을 세우겠소?" 유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표는 유비를 후당으로 초대해 술을 대접했다. 술기운이 어느 정도 오르자 유표가 갑자기 길게 탄식했다. 유비가 물었다. "형님께서서는 어찌하여 탄식하십니까?" 유표가 말했다. "내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나, 쉽게 말하기가 어렵구려." 유비가 다시 물으려 할 때, 채부인이 병풍 뒤에서 나타났다. 그러자 유표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연회가 끝나자 유비는 신야로 돌아왔다. 그해 겨울, 유비는 조조가 유성에서 회군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표가 사신을 보내 유비를 형주로 초대하여 만나자고 청했다. 유비가 사신을 따라 형주로 가

자 유표는 그를 맞아 정중히 예우했다. 인사를 마친 유표는 유비를 후당으로 안내해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말했다.

"최근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허도로 돌아갔는데, 그 세력이 날로 강성해지고 있소. 반드시 형주와 양양을 삼키려는 야심을 품고 있을 것이오. 예전에 내가 아우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참으로 후회스럽구려!"

유비가 대답했다.

"지금 천하가 분열되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기회가 어찌 다 하겠습니까? 나중이라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굳이 한탄할 일은 아닙니다."

유표가 말했다.

"아우의 말이 참으로 옳소."

두 사람은 서로 술잔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다.

술기운이 오르자 유표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유비가 그 이유를 묻자 유표가 말했다.

"내 마음에 고민이 있는데, 전부터 현제에게 털어놓고 싶었으나 마땅한 기회를 얻지 못했소."

유비가 말했다.

"형님, 무슨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유표가 말을 이었다.

"전처 진씨가 낳은 장남 기는 사람이 어질기는 하나 성품이 유약하여 큰일을 맡기에는 부족하오. 반면 후처 채씨가 낳은 차남 종은 꽤 총명하구려. 나는 장남을 폐하고 어린 아들을 세우고 싶지만 예법에 어긋날까 두렵고, 그렇다고 장남을 세우자니 채씨 일족이 모두 군권을 장악하고 있어 나중에 반드시 난리가 날까 걱정되니, 이래저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소."

유비가 말했다.

"예로부터 장남을 폐하고 어린 아들을 세우는 것은 난리를 불러오는 길입니다. 만약 채씨 일족의 권력이 너무 강한 것이 걱정된다면 서서히 그 힘을 깎아내면 될 일이지, 어린 아들을 총애하여 세워서는 안 됩니다."

유표는 말이 없었다. 알고 보니 채부인은 평소 유비를 의심하여 유비가 유표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반드시 몰래 엿듣곤 했다. 마침 병풍 뒤에 숨어 있던 채부인은 유비의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이 원망했다.

유비는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닫고는, 용변을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허벅지에 살이 다시 붙은 것을 보고는 자신

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다시 자리로 돌아오자, 유표는 유비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이유를 물었다.

유비가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예전에는 늘 말 안장에 앉아 지내느라 허벅지 살이 다 빠졌었는데, 이제 한동안 말을 타지 않았더니 허벅지에 살이 다시 붙었습니다. 세월만 덧없이 흐르고 늙은 장수가 되어가는데, 아직 이런 공업이 없으니 슬퍼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유표가 말했다. "내가 듣기로 유비가 허창에 있을 때, 조조와 함께 청매를 넣고 술을 끓이며 영웅에 대해 논했다고 합니다. 그때 유비가 당대의 명사들을 모두 거론했으나 조조는 모두 허락하지 않고, 오직 '천하의 영웅은 오직 사君(유비)과 조조뿐이다'라고만 했지요. 조조의 그 막강한 권력으로도 감히 유비보다 앞서려 하지 않는데, 어찌 공업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십니까?"

유비는 술기운에 흥이 올라 그만 입을 잘못 놀려 대답하고 말았다. "만약 저에게 근본이 있다면, 천하의 보잘것없는 무리들은 참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표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침묵했다. 유비는 자신이 실언했음을 알고는 술에 취한 척하며 일어나 숙소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훗날 어떤 이가 유비를 찬양하며 시를 지어 이르기를 다음과 같았다.

"조조의 권세를 손가락으로 꼽아 내려가도, 천하의 영웅은 오직 유비뿐이라네. 허벅지에 살이 다시 돋는 것을 보며 어찌 탄식하지 않으랴, 천하가 어찌 셋으로 나뉘지 않겠는가?"

한편, 유표는 유비의 말을 듣고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속으로는 매우 불쾌해하며 유비와 작별한 뒤 내실로 물러갔다. 그러자 채부인이 말했다. "방금 병풍 뒤에서 유비의 말을 들었는데, 사람을 너무 알아보는 것이 형주를 집어삼키려는 속셈이 분명합니다.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유표는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채부인은 곧장 채모를 몰래 불러 이 일을 상의했다. 채모가 말했다. "먼저 관사에서 그를 죽인 뒤에 주군께 보고하겠습니다." 채부인이 그 말에 찬성하자, 채모는 밖으로 나가 곧바로 밤을 새워 군사를 소집했다.

한편, 유비는 관사에서 촛불을 켜고 앉아 있다가 삼경이 지나서야 막 잠자리에 들려 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이적이었다. 알고 보니 이적이 채모가 유비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일부러 깊은 밤에 찾아와 소식을 전한 것이었다. 이적은 채모의 계략을 유비에게 보고하며 어서 빨리 몸을 일으키라고 재촉했다. 유비가 "유표에게 작별 인사도 못 했는데 어떻게 바로 떠난단 말인가?"라고 묻자, 이적이 말했다. "지금 인사를 나누려 하셨다가는 반드시 채모의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유비는 이적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 뒤, 급히 부하들을 불러 일제히 말에 올라탔다. 날이 밝기도 전에 밤을 도와 신야로 달려갔다. 채모가 군사를 거느리고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유비가 멀리 떠난 뒤였다. 채모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자, 벽에 시 한 수를 써놓고 곧장 유표를 찾아가 말했다. "유비가 반역할 뜻이 있어 벽에 반역의 시를 써놓고

는 거리낌 없이 떠나갔습니다." 유표는 믿지 않고 직접 숙소로 가서 살펴봐왔는데, 과연 네 구절의 시가 적혀 있었다.

"몇 년 동안 헛되이 곤궁함 속에 머물며, 옛 산천만을 허망하게 마주 하였구나. 용이 어찌 못 안의 물고기이겠는가, 천둥을 타고 하늘로 오르려 하네!"

유표는 시를 보고 크게 노하여 검을 뽑아 들고 외쳤다. "이 의리 없는 자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러다 몇 걸음 옮기던 유표는 문득 정신이 번쩍 들어 깨달았다. '내가 유비와 함께 지낸 지 꽤 되었지만, 그가 시를 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은 분명 외부에서 이간질하려는 계책이로구나.' 유표는 즉시 발길을 돌려 관사로 들어가 검 끝으로 시를 깎아 없애버리고는, 검을 버려둔 채 말에 올라탔다. 이때 채모가 다가와 청했다. "군사들을 이미 모두 소집해 두었으니, 지금 바로 신야로 가서 유비를 사로잡으시지요." 유표가 대답했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계획을 세워 움직여야 한다."

채모는 유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을 보고, 몰래 채부인과 의논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양양에서 관리들을 대거 불러 모아 그곳에서 유비를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채모가 유표에게 보고했다.

"요즘 풍년이라 관리들을 양양에 모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군께서도 함께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유표가 말했다.

“내가 요새 기력이 쇠하여 몸이 좋지 않으니 도저히 갈 수가 없구나. 대신 두 아들에게 손님을 맞이하라고 일러두겠다.”

채모가 다시 말했다.

“공자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 손님을 대접하기에 예법이 부족할까 걱정됩니다.”

유표가 대답했다.

“그럼 신야로 가서 유비를 불러 손님을 맞이하게 하거라.”

채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렸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사람을 보내 유비를 양양으로 불러들였다.

한편, 유비는 신야로 급히 돌아온 뒤 자신이 한 말실수로 인해 화를 불러왔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찾아와 양양의 잔치에 참석해 달라고 청했다.

손건이 말했다. "어제 주공께서 급히 돌아오실 때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형주에 분명 무슨 일이 생긴 듯하니, 갑자기 잔치에 가라는 청을 받았다고 해서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유비가 막 사람들에게 앞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려 할 때, 관우가 말했다. "형님께서 스스로 말씀실수를 했다고 의심하고 계시지만, 유표는 형님을 나무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남들의 말은 함부로 믿어서

는 안 됩니다. 양양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으니, 만약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주 사람들이 형님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관우의 말이 옳다."

장비가 말했다. "좋은 잔치도 없고, 즐거운 모임도 없으니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습니다."

조운이 말했다. "제가 기병과 보병 삼백 명을 데리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공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그리하여 유비는 조운과 함께 그날 바로 양양으로 향했다.

채모가 성 밖으로 나와 유비를 맞이했는데, 그 태도가 매우 겸손하고 정중했다. 뒤이어 유기, 유종 두 아들이 문무 관료들을 거느리고 나와 유비를 맞이했다. 유비는 두 공자가 모두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이날 유표는 유비를 관사로 칭해 잠시 머물게 했다. 조운은 삼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비의 주변을 에워싸며 보호했다. 조운은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채, 유비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 유기가 유비에게 말했다. "아버님께서 기력이 쇠하여 움직이실 수 없기에, 특별히 숙부님께 손님을 맞이하고 각지의 수령들을 격려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유비가 대답했다. "내가 감히 어찌 이 일을 맡겠느냐마는, 이미 형님의 명을 받았으니 어찌 따르지 않겠느냐."

다음 날, 구군 사십이 주의 관리들이 모두 모였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채모는 괴월을 불러 대책을 논의하며 말했다.

“유비는 세상에 드문 영웅입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다가는 반드시 화가 될 것이니, 오늘 당장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괴월이 대답했다.

“사대부와 백성들의 원망을 살까 두렵습니다.”

채모가 말했다.

“이미 유표의 비밀스러운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괴월이 말했다.

“그렇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겠군요.”

채모가 이어서 말했다.

“동문 쪽 현산 대로에는 내 동생 채화를 보내 군사를 지키게 했고, 남문 밖에는 채중을, 북문 밖에는 채훈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서문 쪽만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앞에는 탄계가 가로막고 있으니 설령 수만 명의 군사가 몰려온다 해도 쉽게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괴월이 말했다.

“조운이 유비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것을 보니, 손을 쓰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채모가 말했다.

“성 안에 오백 명의 군사를 매복시켜 준비해 두었습니다.”

괴월이 제안했다.

“문빈과 왕위 두 사람에게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게 하여 무장들을 맞이하게 합시다. 우선 조운을 불러 머물게 한 뒤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모는 그의 말을 따랐다. 그날 소와 말을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유비는 적로마를 타고 양양 관아에 도착하여, 말을 후원에 끌고 들어가 매어 두게 했다. 여러 관리들이 모두 대청에 모였다. 유비가 상석에 앉고 유표의 두 아들이 양옆에 나누어 앉았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차례대로 자리를 잡았다. 조운은 칼을 찬 채 유비의 곁에 서 있었다. 문빈과 왕위가 들어와 조운에게 잔치에 참석하라고 청했으나, 조운은 사양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유비가 조운에게 자리로 가라고 명하자, 조운은 마지못해 명을 받들어 나갔다. 채모는 밖에서 첩통처럼 단단히 준비를 마친 뒤, 유비가 데려온 삼백 명의 군사들을 모두 숙소로 돌려보냈다. 그러고는 술기운이 적당히 오르기만을 기다렸다가, 바로 공격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술자리가 세 차례나 이어졌을 때, 이적이 잔을 들어 유비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유비를 눈짓으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옷을 갈아입으셔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유비는 그 뜻을 알아채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뒷간으로 향했다. 이적은 잔을 내려놓자마자 서둘러 후원으로 들어가 유비의 뒤를 따르더니, 그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채모가 주

군을 해치려 음모를 꾸몄습니다. 성 밖의 동문, 남문, 북문 세 곳에는 모두 군마를 배치해 지키고 있습니다. 오직 서문으로만 빠져나갈 수 있으니, 어서 급히 피하셔야 합니다!" 유비는 크게 놀라 급히 적로마를 준비시켜 후원 문을 통해 끌고 나왔다. 그러고는 수행원들도 돌보지 않은 채 말에 올라타 서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문을 지키던 관리가 이 유를 물었으나 유비는 대답도 하지 않고 채찍질을 하며 달려 나갔다. 관리가 그를 붙잡지 못하자 급히 채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채모는 즉시 말에 올라타 오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뒤를 쫓았다.

한편, 유비는 서문을 뚫고 나와 수없이 먼 길을 달렸으나, 눈앞에 커다란 단계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다. 단계는 폭이 수 장에 달할 만큼 넓었고, 그 물줄기가 양강으로 이어지는데 물살이 매우 거셌다. 유비가 시냇가에 이르러 건너갈 길이 없음을 보고 말을 돌리려는데, 멀리 서쪽에서 자욱한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 추격병들이 곧 들이닥칠 기세였다. 유비가 "이제 죽었구나!"라고 탄식하며 다시 시냇가로 말을 돌렸다. 뒤를 돌아보니 추격병들이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유비가 당황하여 말을 몰아 시냇물로 뛰어들었다. 몇 걸음 가지 못해 말의 앞발이 갑자기 쑥 빠지더니 옷자락이 물에 젖어 들었다. 유비가 채찍을 휘두르며 크게 외쳤다. "적로야, 적로야! 네가 오늘 나를 망치려 드는구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적로가 물속에서 몸을 솟구치더니 세 장 높이를 단번에 뛰어올라 서쪽 기슭으로 날아올랐다.

유비는 마치 구름과 안개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듯했다. 훗날 소학사(蘇學士)가 고풍(古風) 한 편을 지었는데, 유비가 단계에서 말을 타고 뛰어넘은 일을 읊은 것이었다. 시의 내용은 이러하다.

"늪어가는 몸에 쫓은 지고 봄날은 저무는데, 벼슬길에 떠돌다 우연히 단계 길에 이르렀네. 말 멈추고 멀리 바라보며 홀로 서성거리니, 눈앞에는 흘날리는 붉은 버들강아지만 보이네.

어렴풋이 생각하니 함양의 화덕이 쇠하고, 용과 호랑이가 싸우며 서로 맞서고 있구나. 양양의 연회에서 왕손이 술을 마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유비의 몸은 위태로웠네.

살기 위해 홀로 서문 길로 빠져나오니, 등 뒤로 추격병들이 다시 들이닥치네. 강물은 안개 속에 자욱하여 단계로 불어나는데, 급히 병사들을 꾸짖으며 말을 몰아 뛰어넘네.

말발굽은 푸른 유리 같은 물결을 깨뜨리고, 하늘 바람 소리 울리는 곳에 금편을 휘두르네. 귀가에는 천 명의 기병이 달려오는 소리만 들리는데, 물결 속에서 홀연히 두 마리 용이 날아오르는 듯하네.

서천(西川)을 홀로 제패한 진정한 영웅이여, 그가 탄 용 같은 명마와 서로 만났구나. 단계 물줄기는 스스로 동쪽으로 흐르는데, 용마와 영웅은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인가.

흐르는 물가에 서서 세 번 탄식하니 마음이 아려오고, 기울어가는 햇살은 고요한 빈 산을 비추네. 천하가 셋으로 나뉘어 술발처럼 맞선 것이 마치 꿈만 같고, 그 자취만 허망하게 세상에 남아 있구나."

유비는 시냇물을 뛰어넘어 서쪽 기슭으로 건너간 뒤, 뒤를 돌아 동쪽 기슭을 바라보았다. 채모가 이미 군사를 이끌고 시냇가까지 쫓아와 큰 소리로 외쳤다.

"사군께서는 어찌하여 연회 자리를 버리고 도망치시는 겁니까?"

유비가 말했다.

"나는 당신과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해치려 하는 것이오?"

채모가 대답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니, 사군께서는 남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지만 유비가 보니 채모의 부하 장수들이 활을 잡고 화살을 겨누고 있었다. 유비는 급히 말의 옆구리를 차며 서남쪽을 향해 달아났다. 채모가 좌우의 부하들에게 말했다.

"도대체 어떤 신령이 도운 것이냐!"

채모가 막 군사를 거두어 성으로 돌아가려는데, 서문 안쪽에서 조운이 삼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용마처럼 뛰어난 기세로 주인을 구하러 나선 유비와, 원수를 갚으려 맹호처럼 뒤쫓아온 채모.

채모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5회 — 현덕이 남장에서 은둔자를 만나고, 단복이 신야에서 영웅을 만나다

玄德南漳逢隱淪 單福新野遇英主

한편, 채모가 막 성으로 돌아가려는데 조운이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달려 나왔다. 원래 조운은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과 말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급히 살펴보았는데, 자리에는 유비가 보이지 않았다. 조운은 크게 놀라 관사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물으니, "채모가 군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급히 쫓아갔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조운은 급히 창을 잡고 말에 올라타 원래 데려왔던 삼백 명의 군사와 함께 서문으로 달려 나갔다. 마침 채모를 마주친 조운이 다급히 물었다. "우리 주군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채모가 대답했다. "사군께서 자리를 피하여 달아나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소."

조운은 성격이 신중한 사람이었기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말을 물어 앞으로 나아갔다. 멀리 큰 계곡을 바라보니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다. 조운은 다시 말을 돌려 채모에게 소리치며 물었다.

"그대가 우리 주군을 연회에 초대해 놓고, 어찌하여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 것이오?"

채모가 대답했다.

"구군 사십이 주의 관료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소. 내가 상장군인데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소?"

조운이 다시 물었다.

"그대들이 우리 주군을 어디로 몰아넣었던 말이오?"

채모가 말했다.

"사군께서 말을 타고 서문으로 나가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까지 오니 보이지 않더군요."

조운은 의심이 생겨 마음이 불안했다. 그는 곧장 시냇가로 달려가 살펴보았으나, 건너편에는 물결이 일렁인 흔적만 보일 뿐이었다. 조운은 속으로 '설마 말까지 타고 시냇물을 건너간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군사 300명을 풀어 사방을 샅샅이 뒤지게 했으나 유비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조운이 다시 말머리를 돌리려 할 때, 채모는 이미 성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였다. 조운이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을 붙잡고 추궁하자, 병사들은 모두 유비가 말을 타고 서문으로 급히 나갔다고 대답했다. 조운은 다시 성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혹시 매복이 있을까 두려워 서둘러 군사를 이끌고 신야로 돌아갔다.

한편, 유비는 말을 달려 탄계를 건넜다. 마치 술에 취한 듯 멍한 모습이었으나, 이 넓고 깊은 개울을 단번에 뛰어넘었으니 참으로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유비는 말을 몰아 남장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저물어가고 있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소 등에 올라탄 목동 하나가 짧은 피리를 불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유비는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말했다. "저 아이만 못하구나!" 그러고는 말을 멈추고 가만히 지켜보았다. 목동도 소를 멈추고 피리 부는 것을 그만두더니, 유비를 찬찬히 살펴보며 물었다. "장군께서 혹시 황건적을 물리친 유비 아니십니까?" 유비가 깜짝 놀라 물었다. "너는 이 외딴 마을의 어린아이일 뿐인데, 어찌 내 이름과 성을 아느냐?" 목동이 대답했다. "저도 원래는 몰랐습니다. 다만 늘 스승님을 모시고 있는데, 손님이 오실 때마다 키가 칠 척 오촌에 손을 내리면 무릎을 지나고, 눈을 돌려 제 귀를 볼 수 있을 만큼 눈이 돌아가는 유비라는 영웅이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지금 장군의 모습을 보니 분명 그분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유비가 물었다. "네 스승은 어떤 분이시냐?"

목동이 대답했다. "저희 스승님은 성이 사마 씨인 복성이고, 이름은 휘이며, 자는 덕조입니다. 영천 사람인데, 도호는 수경선생이라고 합니다."

유비가 다시 물었다. "네 스승은 누구와 친구인가?"

목동이 말했다. "양양의 방덕공, 그리고 방통과 친구 사이입니다."

유비가 궁금하여 물었다. "방덕공이 방통과는 어떤 관계냐?"

목동이 대답했다. "숙부와 조카 사이입니다. 방덕공의 자는 산민이고 저희 스승님보다 열 살이 많습니다. 방통의 자는 사원인데, 저희 스승님보다 다섯 살이 적습니다. 어느 날 저희 스승님께서 나무 위에서 뽕나무를 따고 계셨는데, 마침 방통이 찾아와 나무 아래에 앉아 하루 종일 지칠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방통을 무척 아끼셔서 그를 동생이라 부르십니다."

유비가 물었다. "네 스승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목동이 멀리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앞 숲속에 있는 저 저택이 스승님의 거처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내가 바로 유비다. 네가 나를 인도하여 네 스승님을 뵈게 해다오."

목동은 유비를 데리고 2리 남짓을 더 가다가 어느 장원 앞에 이르자 말에서 내리게 했다. 유비가 중문 안으로 들어서는데, 문득 아주 아름다운 거문고 소리가 들려왔다. 유비는 목동에게 알리지 말고 잠시 기다리라고 일러두고는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들었다. 그러다 거문고 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다.

그러자 한 사람이 웃으며 밖으로 나오더니 말했다. "거문고 가락이 맑고 그윽하더니, 소리 중에 갑자기 높고 강한 음이 섞여 나오는 것을 보니 필시 영웅이 몰래 엿듣고 있구려."

목동이 유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바로 저희 스승님이신 수경선생님이십니다."

유비가 그를 살펴보니, 체격은 소나무처럼 곧고 기품은 학처럼 고결하여 풍채가 예사롭지 않았다. 유비는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려 했으나, 옷자락이 아직 젖어 있는 상태였다. 수경선생이 말했다. "오늘 큰 재난을 면하셨구려!"

유비가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자, 목동이 말했다. "이분은 유비입니다."

사마휘는 유비를 초당으로 안내하여 손님과 주인으로 자리를 나누어 앉혔다. 유비는 선반 위에 가득 쌓인 책들과 창밖의 울창한 소나무와 대나무를 보았고, 돌침상 위에 놓인 바둑판과 거문고를 보니 맑고 깨끗한 기운이 물씬 풍겨왔다.

사마휘가 물었다.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던 중, 어린아이의 안내 덕분에 어르신을 뵈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사마휘가 웃으며 말했다. "숨기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난리를 피해 이곳까지 도망쳐 오신 것이겠지요."

유비는 이에 양양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사마휘가 말했다. "당신의 안색을 보니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유비에게 다시 물었다.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하여 지금까지 이토록 처지가 고달프고 뜻을 펼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유비가 말했다. "운명이 기구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마휘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군 곁에 적절한 인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제가 비록 재주가 부족하나, 문관으로는 손건, 미축, 간옹 같은 이들이 있고, 무장으로는 관우, 장비, 조운 같은 이들이 있어 충성을 다해 저를 돕고 있으니 그들의 힘에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마휘가 말했다. "관우, 장비, 조운은 모두 만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용장들이지만, 아쉽게도 그들을 제대로 부릴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건이나 미축 같은 이들은 그저 글이나 읽는 선비일 뿐, 세상을 다스리고 구제할 만한 인재는 아닙니다."

유비가 말했다. "저도 산골에 숨어 사는 어진 인재를 찾아 헤맸으나,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마휘가 말했다. "공자께서 '열 가구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라도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사람은 있다'고 말씀하셨거늘, 어찌 인재가 없다고 하십니까?"

유비가 말했다. "제가 어리석어 잘 알지 못하니,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사마휘가 말했다. "혹시 형주와 양양 일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노래는 이러합니다. '여덟아홉 해가 지나면 쇠락

하기 시작하여, 열세 해가 되면 남은 이 하나 없으리라. 마침내 천명이 돌아갈 곳을 찾으니, 진흙 속의 복룡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리라.' 이 노래는 건안 초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건안 8년에 유표가 전처를 잃자 곧 집안에 분란이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쇠락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남은 이가 없다'는 것은 유표가 곧 세상을 떠나 문무 신하들이 영락하여 남은 이가 없게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명이 돌아갈 곳을 찾는다'거나 '용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다'는 구절은 필시 장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비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제가 어찌 이런 귀한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휘가 말했다. "지금 천하의 기이한 인재들이 모두 이곳에 있으니, 유비 공께서 반드시 가서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유비가 급히 물었다. "그 인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들이지요?" 사마휘가 대답했다. "복룡과 봉추, 이 두 사람 중 한 명만 얻어도 천하를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비가 다시 물었다. "복룡과 봉추가 대체 누구입니까?" 사마휘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더니 말했다. "종구나! 좋아!" 유비가 다시 물으려 하자, 사마휘가 말을 가로막았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장군께서는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십시오.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아이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게 하여 대접하게 하고, 말은 뒷마당으로 끌고 가 먹이를 주게 했다.

유비는 식사를 마친 뒤 초가집 옆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사마휘가 했던 말을 떠올리느라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이 깊었을 무렵,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사마휘

가 "원직은 어찌 왔는가?"라고 물었다. 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죽이고 엎들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유표가 선한 자는 선하게 대하고 악한 자는 악하게 대한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들어왔기에 특별히 찾아뵈러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 보니 그저 이름뿐이었습니다. 선한 자를 대하면서도 제대로 등용하지 못하고, 악한 자를 대하면서도 제대로 내치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작별한 뒤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마휘가 말했다. "그대는 왕을 보좌할 재주를 품고 있으니 마땅히 사람을 가려가며 섬겨야 하거늘, 어찌 몸을 가볍게 하여 유표를 찾아갔단 말인가? 게다가 영웅호걸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대가 스스로 알아보지 못한 것뿐이네." 그 사람이 말했다. "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유비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속으로 '이 사람이 분명 복룡이나 봉추겠구나'라고 생각했다. 당장이라도 나가 만나고 싶었으나, 예의 없이 서두르는 모양새가 될까 두려워 참았다. 날이 밝기를 기다린 유비는 사마휘를 찾아가 여쭙었다.

"어젯밤에 찾아온 분은 누구십니까?"

사마휘가 대답했다.

"내 친구라네."

유비가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하자, 사마휘가 말했다.

"그 사람은 밝은 임금을 찾아 떠나려던 참이라 이미 다른 곳으로 가 버렸네."

유비가 다시 그 사람의 성명을 묻자, 사마휘는 그저 웃으며 "종구먼, 좋아!"라고만 답했다. 유비가 다시 "북룡과 봉추는 과연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라고 물어도, 사마휘는 여전히 웃으며 "종구먼, 좋아!"라고만 할 뿐이었다.

유비가 사마휘에게 산을 내려와 자신을 도와 한나라 황실을 함께 일으켜 세워달라고 간곡히 청하자, 사마휘가 말했다.

"나는 산야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사람이라 세상에 쓰임이 되지 못하네. 자네를 도울 사람은 나보다 열 배는 뛰어난 인물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그들을 찾아보게나."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장원 밖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가 달려와 보고하기를, "어떤 장수가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장원으로 왔습니다!"라고 했다. 유비는 깜짝 놀라 급히 나가 살펴보니, 바로 조운이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맞이했다. 조운이 말에서 내려 유비를 뵈고 말했다. "제가 밤중에 현으로 돌아가 주군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 밤새도록 물어물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군께서는 서둘러 현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 현으로 쳐들어와 싸움이 벌어질까 걱정됩니다." 유비는 사마휘에게 작별을 고하고 조운과 함께 말을 달려 신야로 향했다. 몇 리쯤 갔을까, 한 무리의 군마가 달려오는데 살펴보니 관우와 장비였다. 그들은 서로 만나 크게 기뻐했다. 유비가 탄계를 건너며 겪었던 일을 말해주자, 모두 함께 탄식하며 놀라워했다. 유비가 현에 도착하여 손건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자, 손건이 말했다. "먼저 유표에게 편지를 보내 이 일을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유비는 그 조언을 따라 즉시 손건에게 편지를 들려 형주로 보냈다. 유표가 손건을 불러 물었다. "내가 유비를 양양의 모임에 초대했는데, 어찌하여 도망치듯 떠난 것이냐?" 손건이 편지를 올리니, 그 안에는 채모가 음모를 꾸며 유비를 해치려 했으나 다행히 탄계를 건너 탈출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유표는 크게 노하여 급히 채모를 불러 꾸짖었다. "네가 감히 내 동생을 해치려 들다니!" 그러고는 채모를 끌어들여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이때 채부인이 나와 울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유표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손건이 유표에게 말했다. "만약 채모를 죽인다면, 황숙께서 이곳에 편히 머물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제야 유표는 꾸짖기는 했으나 채모를 풀어주었고, 장남 유기를 손건과 함께 유비에게 보내 사죄하게 했다.

유기는 명령을 받고 신야로 갔고, 유비는 그를 맞아 잔치를 베풀어 정성껏 대접했다. 술기운이 한창 오를 무렵, 유기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유비가 그 이유를 묻자 유기가 말했다.

"계모인 채씨가 늘 저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조카인 저로서는 화를 피할 방도가 없으니, 부디 숙부님께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유비는 유기에게 "매사에 조심하며 효도를 다한다면 자연히 화가 없을 것이다"라며 타일렀다.

다음 날, 유기가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했다. 유비는 말을 타고 유기를 성 밖까지 배웅하며 말했다.

"이 말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미 저승길에 올랐을 것이네."

그러자 유기가 대답했다.

"이것은 말의 힘이 아니라, 숙부님의 크나큰 복 덕분입니다."

말을 마친 뒤 두 사람은 서로 작별했다. 유기가 눈물을 닦으며 떠나자, 유비는 말머리를 돌려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문득 시장통에서 한 사람이 보이는데, 삼베 두루마기를 입고 검은 끈을 묶은 신발을 신은 채 길게 노래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 노래는 이러했다.

"천지가 뒤집히고 불길이 세상을 삼키려 하니, 거대한 집이 무너져 하는데 나무 한 그루로 어찌 막으리오. 산골짜기에 현명한 이가 있어 밝은 군주를 섬기려 하나, 밝은 군주는 현자를 찾으면서도 정작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유비가 노래 소리를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이 혹시 사마휘가 말했던 복룡이나 봉추는 아닐까?' 유비는 곧바로 말에서 내려 그를 만나 관아로 맞아들이고 성명을 물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저는 영상(潁上) 사람으로, 성은 단씨이고 이름은 복이라 합니다. 사군께서 인재를 받아들이고 현자를 모신다는 소문을 오래전부터 들어왔기에 찾아가 의탁하고 싶었으나, 감히 함부로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노래를 불러 사군의 귀에 들리게 하려던 것입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단복을 상석에 모셨다. 단복이 말했다. "방금 사군께서 타고 오신 그 말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유비가 명령하여 말의 안장을 벗겨 대청 아래에 두게 하자, 단복이 말했다. "이 말이 혹시 적로마입니까? 아무리 천리마라 해도 주인을 해칠 수 있으니, 결

코 타서는 안 됩니다." 유비가 말했다. "이미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비가 탄계를 건너며 겪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단복이 말했다. "그것은 주인을 구한 것이지 해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언젠가는 반드시 주인 한 명을 해칠 터인데, 제게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그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단복이 말했다. "공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 말을 주십시오. 그러다 이 말이 그 사람을 해치고 나면, 그때부터 타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아무 탈이 없을 것입니다."

유비는 그 말을 듣고 안색이 변하며 말했다. "선생께서 이곳에 오신 뒤로, 저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대신 제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일만 가르치시니, 저는 감히 그 가르침을 받들 수 없습니다."

단복은 웃으며 사과하여 말했다. "사군의 인덕이 높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감히 곧바로 믿을 수 없어, 그 말로 시험해 본 것입니다."

유비 역시 표정을 고치고 일어나 감사하며 말했다. "제가 어찌 남에게 미칠 만한 인덕이 있겠습니까? 오직 선생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단복이 말했다. "제가 영상에서 이곳으로 오는 동안, 신야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야의 목민관 유황숙이 이곳에 온 뒤로 백성들이 풍족해졌네.' 이를 보면 사군의 인덕이 남들에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비는 곧 단복을 군사로 모시고 자신의 본부 군마를 훈련시키게 했다.

한편, 조조는 기주에서 허도로 돌아온 뒤 줄곧 형주를 차지할 생각을 품고 있었다. 이에 조인을 비롯해 이진, 그리고 항장인 여광과 여상을 비롯한 군사 3만 명을 특별히 파견하여 번성에 주둔시켰다. 이들은 형주와 양양 일대를 호시탐탐 노리며 적의 허실을 살폈다.

이때 여광과 여상이 조인에게 보고했다. "지금 유비가 신야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군사를 모집하며 말을 사고 식량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 야심이 결코 작지 않으니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 두 사람은 승상께 항복한 이후로 아직 공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부디 정예병 5천 명을 내려주신다면 유비의 목을 베어 승상께 바치겠습니다."

조인은 크게 기뻐하며 여광, 여상에게 오천 명의 병사를 주어 신야를 치러 보냈다. 정찰병이 급히 달려와 유비에게 적이 오고 있음을 알렸다. 유비는 단복을 불러 대책을 상의했다. 단복이 말했다.

"적병이 이미 몰려오니, 그들이 우리 경내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우에게 한 부대를 이끌고 왼쪽으로 나가 쳐들어오는 적군의 가운데 길(중로)을 치게 하고, 장비에게 한 부대를 이끌고 오른쪽으로 나가 적군의 뒷길(후로)을 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공께서 직접 조운을 데리고 앞길로 나가 적을 맞이하신다면, 적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유비는 그의 말을 듣고 즉시 관우와 장비를 보내 일을 처리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단복, 조운 등과 함께 이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성문을 나서서 적을 맞이하러 나갔다. 몇 리쯤 나아갔을까, 산 너머에서 엄청난 먼지 구름이 일더니 여광과 여상이 이끄는 군대가 나타났다. 양측 군대는 서로 진영의 깃발을 세우고 대치했다. 유비가 깃발이 달린 문

앞에 말을 타고 나가 크게 외쳤다. "누구냐! 감히 내 땅을 침범하다니!" 그러자 여광이 말을 타고 나서며 말했다. "나는 대장 여광이다! 승상의 명을 받들어 너를 잡으러 왔다!" 유비가 크게 노하여 조운을 내보냈다. 두 장수가 맞붙어 싸운 지 몇 합 되지 않아, 조운이 창을 내질러 여광을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유비의 휘하 군사들이 몰아치듯 공격하자, 여상은 적의 기세를 이기지 못하고 군사를 이끌고 곧장 달아났다.

한참을 내달리는데 길가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갑자기 튀어나왔으니, 그 선두에 선 대장은 바로 관우였다. 관우가 한바탕 거세게 몰아치며 돌격하자, 여상의 병사들은 태반이 쓰러졌고 여상 본인은 겨우 길을 뚫고 도망쳤다. 그러나 채 열 리를 가지 못해 또 다른 군사가 길을 가로막았다. 선두에 선 대장이 창을 치켜들며 크게 외쳤다. "장비가 여기 있다!" 그러고는 곧장 여상을 향해 돌진했다. 여상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장비의 창에 찔려 말에서 굴러떨어지며 죽고 말았다. 남은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유비가 군사를 정비해 뒤쫓으니, 도망치던 무리 대부분이 붙잡혔다. 유비는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 단복을 정중히 대접하고 삼군 장병들에게도 큰 상을 내렸다.

한편, 패배하여 돌아온 군사들이 조인에게 여광과 여상이 전사하고 많은 병사가 생포되었다는 소식을 보고했다. 조인은 크게 놀라 이전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이전이 말했다. "두 장수가 적을 앞보다가 죽고 병사들까지 많이 잡혔으니, 지금은 일단 군사를 움직이지 말고 승상께 보고를 드려 대군을 일으켜 토벌하게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조인이 말했다. "그렇지 않다. 지금 장수 둘을 잃고 병마까지 많이 손실되었으니,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도 급히 보고해야 한다. 신야 같은 작은 땅을 치는 데 무엇 때문에 승상의 대군을 움직이겠느냐?"

이전이 말했다. "유비는 인재입니다.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조인이 물었다. "자네는 어찌 그리 겁이 많은가?"

이전이 대답했다. "병법에 이르기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 백 번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싸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 그러는 것입니다."

조인이 화를 내며 말했다. "자네, 지금 탄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가? 나는 반드시 유비를 생포하고 말 것이다!"

이전이 말했다. "장군께서 가신다면, 저는 번성을 지키겠습니다."

조인이 말했다. "자네가 끝내 함께 가지 않겠다면, 정말로 탄마음을 품은 것으로 알겠네."

이전은 어쩔 수 없이 조인과 함께 2만 5천의 군사를 일으켜 강을 건너 신야로 진격했다.

부하 장수들은 적에게 패해 시신을 심는 치욕을 당했으니, 주장은 다시 큰 군사를 일으켜 수치를 씻으려 한다. 과연 승패가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6회 — 유덕이 계책을 써서 번성을 습격하고, 원직이 말을 달려 제갈량을 추 천하다

玄德用計襲樊城 元直走馬薦諸葛

한편, 조인은 크게 분노하여 즉시 자기 부대의 군사를 일으켰다. 그리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을 건너가 신야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 했다.

한편, 단복은 승리를 거두고 신야로 돌아와 유비에게 말했다. "조인이 번성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제 두 장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반드시 대군을 일으켜 쳐들어올 것입니다." 유비가 물었다.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겠는가?" 단복이 답했다. "만약 그들이 모든 병력을 이끌고 온다면 번성이 텅 비게 될 것이니, 그 틈을 타서 기습해야 합니다." 유비가 대책을 묻자, 단복은 유비의 귀에 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미리 준비를 마쳤다. 그때 갑자기 정찰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조인이 대군을 이

끌고 강을 건너오고 있습니다!" 단복이 말했다. "과연 제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군요." 그러고는 유비에게 나가서 적을 맞이하자고 청했다. 양측 군대가 마주 대치하자, 조운이 말을 타고 나가 적장에게 대담을 요구했다. 조인은 이전을 내보내 조운과 맞붙게 했다. 열댓 합 정도 싸워보던 이전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말을 돌려 진영으로 물러났다. 조운이 말을 몰아 뒤쫓으려 하자 양측 군사들이 화살을 쏘아대며 막아섰고, 결국 양측 모두 싸움을 멈추고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갔다.

이전이 조인을 찾아가 말했다. "저들의 군사는 매우 정예하니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번성으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조인이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네가 출병하기도 전부터 이미 우리 군의 사기를 꺾더니, 이제는 또 일부러 진을 팔아넘기려(저 주려) 드는구나! 네 죄는 마땅히 목을 베어야 한다!" 조인이 즉시 도부수에게 명령하여 이전을 끌어내 처형하려 했다. 여러 장수가 간곡히 만류한 끝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결국 조인은 이전을 후군으로 돌리고, 자신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선봉에 섰다. 다음 날, 조인은 북을 울리며 진군하여 진법을 펼친 뒤, 사람을 보내 유비에게 물었다. "내 진을 알아보겠느냐?"

단복은 높은 곳에 올라가 상황을 살핀 뒤 유비에게 말했다.

"이것은 '팔문금쇄진'입니다. 여덟 개의 문은 휴(休), 생(生), 상(傷), 두(杜), 경(景), 사(死), 경(驚), 개(開)로 나뉩니다. 생문, 경문, 개문의 방향으로 들어가면 길하지만, 상문, 경문, 휴문의 방향으로 들어가면 상처를 입고, 두문이나 사문의 방향으로 들어가면 목숨을 잃게 됩니

다. 지금 비록 여덟 개의 문이 정연하게 펼쳐져 있으나, 가운데를 조울할 지휘관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 동남쪽 모서리에 있는 생문을 쳐서 들어간 뒤, 정서쪽에 있는 경문을 통해 빠져나간다면 진법은 반드시 흐트러질 것입니다."

유비는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진의 모퉁이를 굳게 지키게 하고, 조운에게 군사 오백 명을 이끌고 동남쪽으로 진입하여 곧장 서쪽으로 빠져나가라고 일렀다. 조운은 명령을 받자마자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군사들을 이끌고 동남쪽 모퉁이로 곧장 돌격하며 함성을 질러 적의 중앙군을 뚫고 들어갔다. 그러자 조인이 당황하여 북쪽으로 달아났다. 조운은 뒤를 쫓는 대신 서문으로 돌출하여 빠져나온 뒤, 다시 서쪽에서 동남쪽 모퉁이 방향으로 몰아치며 공격했다. 조인의 군대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이때 유비의 군대가 들이닥쳐 공격하자 조조의 군대는 크게 패하여 물러났다. 단복은 군사들에게 추격하지 말고 군대를 거두어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한편, 조인은 한 차례 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전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는 다시 이전을 불러 상의하며 말했다. "유비의 군대에는 분명 뛰어난 인재가 있는 모양이다. 우리 진영이 이토록 허무하게 깨지다니."

이전이 말했다. "제가 여기 있기는 하지만, 번성이 매우 걱정됩니다."

조인이 말했다. "오늘 밤 적의 진영을 습격하겠다. 승리하면 다시 계획을 세울 것이고, 만약 패한다면 즉시 군사를 물려 번성으로 돌아가겠다."

이전이 만류했다. "안 됩니다. 유비가 분명 대비를 해두었을 것입니다."

조인이 대답했다. "그렇게 의심이 많아서야 어떻게 군사를 부리겠느냐?"

결국 조인은 이전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직접 앞장서서 선봉대를 이끌고 이전을 후방 지원 부대로 삼아, 그날 밤 두 시경에 적의 진영을 습격하기 위해 출정했다.

한편, 단복은 유비와 함께 진영 안에서 일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단복이 말했다. "오늘 밤 조인이 반드시 진영을 습격할 것입니다." 유비가 물었다. "그들을 어떻게 막겠소?" 단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은밀하게 군사들을 배치하는 일을 마쳤다.

이경이 되자 조인의 군사들이 진영 근처까지 다다랐다. 그런데 진영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울타리를 태우고 있었다. 조인은 이미 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닫고 급히 군대를 물리고자 명령했다. 이때 조운이 칼을 휘두르며 돌격해 왔다. 조인은 미처 군대를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급히 북쪽 강을 바라보며 도망쳤다. 강가에 이르러 겨우 배를 찾아 강을 건너려는데, 강가에서 군사 한 무리가 들이닥쳤다. 그 선두에 선 장수는 바로 장비였다. 조인이 죽기 살기로 싸웠으나, 이전

이 조인을 보호하며 배에 태워 강을 건너게 했다. 조조의 군사 태반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조인은 강을 건너 상륙하자마자 번성으로 달려가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성 위에서 북소리가 울리더니, 한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크게 외쳤다. "내가 이미 번성을 차지한 지 오래되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바라보니, 그는 바로 관우였다. 조인은 크게 놀라 즉시 말을 몰아 달아났다. 관우가 뒤쫓아와 추격하자, 조인은 군사들을 또 여럿 잃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허창으로 도망쳤다. 길을 가며 소식을 알아보니, 단복이 군사로서 계책을 세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인이 패하여 허창으로 도망친 이야기는 접어두자. 한편 유비는 대승을 거둔 뒤 군대를 이끌고 번성에 입성했고, 번성 현령 유필(劉泌)이 마중을 나왔다. 유비는 백성들을 안심시켜 치안을 안정시켰다. 그 유필은 장사 사람으로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기도 했는데, 유비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잔치를 베풀며 극진히 대접했다.

그때 유필의 곁에 한 사람이 늙름하게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유비는 그 기개가 남다름을 보고 유필에게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필이 대답했다. "이 아이는 제 조카 구봉입니다. 본래 나후(羅侯) 구씨 가문의 아들이었으나 부모를 모두 여의고 저에게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유비는 아이가 마음에 들어 양자로 삼고자 했다. 유필이 기쁘게 응하며 구봉이 유비를 아버지로 모시게 했고, 아이의 이름을 유봉으로 고쳐주었다. 유비는 유봉을 데려가 관우와 장비에게도 숙부로 모시게 했다.

그러자 관우가 말했다. "형님께 이미 친아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양자를 들이십니까? 나중에 반드시 분란이 생길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내가 아이를 친자식처럼 대하면, 아이 또한 나를 친아버지처럼 섬길 터인데 어찌 분란이 생기겠느냐?" 관우는 이 말을 듣고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유비는 단복과 상의하여 조운에게 천 명의 군사를 맡겨 변성을 지키게 한 뒤, 나머지 군사를 거느리고 신야로 돌아갔다.

한편, 조인과 이전은 허창으로 돌아가 조조를 뵈고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죄를 청했다. 그리고 군사를 잃게 된 경위를 상세히 보고했다. 조조가 말했다. "승패는 병가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런데 유비에게 계책을 낸 자가 누구냐?" 조인이 단복의 계책이라고 대답했다.

조조가 물었다. "단복이 누구냐?"

정욱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단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학문과 검술을 좋아했습니다. 중평 연간 말에 누군가의 원수를 갚아 주고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에 검은 칠을 한 채 도망치다 관리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름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자, 관리가 그를 수레에 묶어 북을 치며 시장을 지나가게 하여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비록 그를 아는 사람이 있었으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동료가 몰래 그를 구해내자, 이름을 바꾸고 도망쳐서 학문에 정진하며 여러 명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일찍이 사마휘와 담론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천 출신의 서서이며, 자는 원직입니다. 단복은 그저 빌려 쓴 이름일 뿐입니다."

조조가 물었다. "서서의 재주가 그대와 비교하면 어떻소?"

정욱이 답했다. "저보다 열 배는 뛰어납니다."

조조가 탄식하며 말했다. "아깝구나! 현명한 선비가 유비에게 가다니! 이제 유비의 세력이 커지겠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정욱이 말했다. "서서가 비록 그곳에 있다 하나, 승상께서 쓰고자 하신다면 불러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조조가 물었다. "어떻게 해야 그를 데려올 수 있겠느냐?"

정욱이 말했다. "서서는 효심이 지극하여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집에 노모만 계십니다. 지금은 동생 서강마저 죽어 노모를 모실 사람이 없습니다. 승상께서 사람을 보내 그의 어머니를 허창으로 속여 데려오게 한 뒤, 아들에게 편지를 쓰게 한다면 서서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사람을 보내 밤낮없이 달려가 서서의 어머니를 데려오게 했다. 하루도 안 되어 그녀를 데려오자, 조조는 극진히 대접하며 말했다.

"듣자 하니 아드님 서원직(서서)이 천하의 기재라 하더이다. 그런데 지금 신야에서 역적 유비를 도와 조정에 반역하고 있으니, 마치 아름다운 옥이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노모께서 서신을 써서 허창으로 불러들이신다면, 내가 천자 앞에서 보증하여 아뢰어 반드시 큰 상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조는 즉시 좌우에 명령하여 문방사우를 가져오게 한 뒤, 서서의 어머니에게 글을 쓰게 했다. 서서의 어머니가 물었다. "유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조가 대답했다. "패군 출신의 보잘것없는 자로, 감히 황실의 숙부라 칭하며 신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군자인 척 하지만 속은 소인배인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자 서서의 어머니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그대는 어찌 이리도 거짓말이 심하단 말시오! 나는 유비가 중산정왕의 후손이며 효경제의 현손이라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어왔소. 그는 몸을 낮추어 선비들을 대접하고 공손하게 사람을 대하니, 어진 명성이 예부터 자자했소. 세상의 어린아이부터 노인, 목동과 나무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진정 당대의 영웅이라 할 만하오. 내 아들이 그를 돕게 되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주군을 만난 것이오. 그대는 비록 한나라의 재상을 자처하나 실상은 한나라의 도적일 뿐이면서, 도리어 유비를 역적으로 몰아 내 아들로 하여금 밝은 데를 버리고 어둠을 따르게 하려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소!"

말을 마친 서서의 어머니는 곤장 벼루를 집어 들어 조조에게 던졌다. 조조는 크게 노하여 무사들에게 호통을 치며 서서의 어머니를 끌어내어 처형하려 했다. 이때 정욱이 급히 나서서 조조를 말리며 간언했다.

"서서의 어머니가 승상께 무례를 범한 것은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승상께서 그녀를 죽이신다면, 승상께서는 불의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오히려 서서의 어머니는 덕을 쌓게 될 것입니다. 서서의 어머니가 죽게 되면, 서서는 반드시 복수심을 품고 유비를 도와 승상께 원한을 갚으려 할 것입니다. 차라리 그녀를 살려두어 서서의 몸과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 낫습니다. 설령 서서가 유비를 돕는다 해도 온 힘을 다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서서의 어머니를 살려두면, 제가 꾀를 내어 서서를 이곳으로 유인해 승상을 보필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조조는 정욱의 말을 듣고 서서의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으며, 따로 방을 마련해 정성껏 모시게 했다. 정욱은 매일같이 찾아가 문안을 드렸는데, 서서와는 예전에 의형제를 맺은 사이라며 서서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대접했다. 또한 정욱은 서모에게 물건을 보낼 때마다 반드시 직접 쓴 편지를 동봉했다. 이에 서모도 정욱에게 답장을 보내곤 했다.

정욱은 이 과정을 통해 서모의 필체를 익혔다. 그는 서모의 글씨체를 그대로 흉내 내어 어머니가 보낸 것처럼 위조한 편지를 한 통 썼다. 그러고는 심복 한 명을 시켜 편지를 들고 곧장 신야현으로 달려가 서서가 머무는 곳을 찾게 했다. 군사들이 서서를 찾아가 안내하자, 서서는 어머니가 보낸 편지가 왔다는 말을 듣고 급히 안으로 불러 물었다.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 말했다.

"저는 이 집의 하인입니다. 노부인에게서 전하라 하신 편지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서서가 편지를 뜯어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네 동생 강(서강)이 얼마 전에 죽어 둘러보아도 의지할 친척 하나 없구나. 한창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뜻밖에도 조조 승상이 사람을 보내 나를 속여 허창으로 데려왔다. 네가 배반했다 하며 나를 옥에 가두었으나, 다행히 정욱 등이 구해준 덕분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만약 네가 와서 행복한다면 내 죽을 위기는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편지가 도착하거든 길러준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밤낮을 가리지 말고 달려와 호도를 다하거라. 그리고 나서 천천히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지을 일을 도모하여 큰 화를 피하도록 해라. 나는 지금 목숨이 실에 매달린 듯 위태로우니, 오로지 네가 구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더는 길게 당부하지 않으나."

서서가 편지를 다 읽자 눈물이 샘솟듯 쏟아졌다. 그는 편지를 들고 유비를 찾아가 말했다.

"저는 본래 영천 출신의 서서이며, 자는 원직입니다. 난리를 피하느라 이름을 단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전에 유경승(유표)이 인재를 모은다는 소문을 듣고 특별히 찾아갔으나, 막상 그와 일을 논해 보니 쓸모없는 인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별 편지를 쓰고 밤중에 사마수경(司馬水鏡)의 장원을 찾아가 그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수경 선생은 제가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크게 꾸짖으며 '유예주(유비)께서 여기 계신데 어찌 그를 섬기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잣거리에서 미친 듯 노래를 불러 사군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버림받지 않고 곧 중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모께서 지금 조조의 간악한 계책에 속아 허창으로 끌려가 갇히셨고, 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써 보내신 편지를 받으니

도저히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군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애로운 어머니가 붙잡혀 계시니 힘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작별을 고하고 돌아가려 하니, 부디 훗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유비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울며 말했다. "어머니와 아들은 천성으로 맺어진 천륜이요. 원직은 나(유비)를 염려하지 마시오. 노부인을 다시 뵙고 난 뒤에 혹 다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오." 단복은 절을 하고 감사를 표하며 떠나려 했다. 유비가 말했다. "오늘 밤 한 번 더 자리를 가져 내일 떠나는 길을 배웅하고 싶소."

이때 손건이 유비에게 은밀히 말했다. "단복은 천하의 기재인데, 오랫동안 신야에 머물며 우리 군의 허실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그를 조조에게 보내면 반드시 중용될 것이니, 우리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한사코 그를 붙잡으시고 절대로 보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조조는 원직이 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의 어머니를 죽일 것입니다. 원직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면 반드시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려 조조를 맹렬히 공격할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그럴 수는 없소. 남의 어머니를 죽게 만들면서 그 아들을 부리는 것은 어질지 못한 일이며, 가지 못하게 붙잡아 어머니와 아들의 도리를 끊어버리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यो. 나는 차라리 죽을 지언정 어질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짓은 하지 않겠소." 이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이 감탄했다.

유비는 단복에게 술을 권했으나, 단복이 말했다. "지금 노모가 간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아무리 귀한 술이라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공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치 내 좌우의 손을 잃은 듯하오. 아무리 용의 간과 봉황의 골수 같은 진미가 있다 한들 내 입에 달지 않을 것이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며 눈물을 흘리다가 밤이 지나기를 기다렸다. 이미 장수들은 성 밖에서 작별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유비와 서서는 말을 나란히 타고 성을 나섰고, 정자에 이르러서야 말에서 내려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유비가 잔을 들어 서서에게 말했다.

"나와 선생의 인연이 얹아 함께 뜻을 모으지 못하게 되었으니, 부디 선생께서는 새로운 주군을 잘 섬겨 이름을 떨치시길 바랍니다."

서서가 울며 말했다.

"저는 재주가 부족하고 지혜가 얹은데도 사군께서 깊이 믿고 써 주셨습니다. 이제 불행히도 도중에 헤어지게 된 것은 오로지 노모 때문입니다. 설령 조조가 저를 압박한다 해도, 저는 평생 그를 위해 어떤 계책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선생께서 떠나시면 저 또한 멀리 산속으로 몸을 숨겨야 할 처지입니다."

서서가 대답했다.

"제가 사군과 함께 천하를 도모하려 했던 것은 오직 이 마음 하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모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졌으니, 설령 이곳에 남아 있다 한들 대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군께서는 마땅히 다른 현명한 인재를 찾아 보좌하게 하여 대업을 도모해야 하거늘, 어찌 이리 낙담만 하고 계십니까?"

유비가 말했다.

"천하에 현명한 이가 많다 한들 선생보다 나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서가 말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재주를 가진 사람일 뿐인데, 어찌 감히 이런 과분한 칭찬을 받겠습니까?"

작별하며 서서는 다시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러 장수께서 사군을 잘 섬겨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큰 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부디 저처럼 끝을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장수들은 모두 슬픔을 금치 못했다. 유비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배웅하고 또 배웅했다. 서서가 말했다.

"사군께서 멀리까지 배웅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작별하겠습니다."

유비는 말 위에 올라 서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생께서 떠나시면 하늘 아래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니, 다시 만날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마친 유비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서서 역시 눈물을 흘리며 작별했다.

유비는 숲가에 서서 서서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급히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유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서가 가버리니,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유비는 눈물을 머금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려 했으나, 커다란 나무들이 앞을 가로막아 보이지 않았다. 유비는 채찍으로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려라."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유비가 대답했다. "저 나무들이 서서가 가는 길을 보는 내 눈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한참을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서서가 말을 타고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유비가 말했다. "서서가 다시 돌아오다니, 혹시 떠날 마음이 없는 것인가?" 그러고는 기쁜 마음으로 말을 몰아 앞으로 나가 맞이하며 물었다. "선생께서 다시 오신 것을 보니, 필시 좋은 생각이 있으신 모양이군요?"

서서가 말의 고삐를 당겨 멈춰 서며 유비에게 말했다.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 미처 한 마디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양양 성 밖 이십 리 지점에 용중에 아주 기이한 선비가 살고 있습니다. 유비께서 어찌하여 그를 찾아보지 않으십니까?"

유비가 말했다. "감히 서서께서 저를 대신해 그를 칭해 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서서가 대답했다. "그 사람은 억지로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비께서 직접 가서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를 얻는다면, 주나라에서 여망을 얻고 한나라에서 장량을 얻은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유비가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이 서서 선생의 재주와 덕망에 비하면 어떠합니까?"

서서가 말했다. "저와 비교하자면, 마치 둔한 말과 기린을 나란히 두거나 까마귀와 봉황을 짝지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관중이나 악의에 비유하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중과 악의조차 이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할 듯합니다. 그는 세상을 다스릴 천하의 재능을 가졌으니, 가히 천하의 인재라 할 만합니다."

유비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 사람의 성함이 무엇인지 듣고 싶소."

서서가 대답했다. "그분은 낭야 양도 사람으로 성은 제갈이고 이름은량, 자는 공명입니다. 한나라의 사례교위를 지낸 제갈풍의 후손이지요. 아버지는 이름이 규이고 자는 자공인데, 태산군 승을 지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명은 숙부인 제갈현을 따라갔는데, 제갈현이 형주의 유경승과 옛 인연이 있어 그를 의지하러 갔다가 양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중에 제갈현이 죽자, 공명은 동생 제갈균과 함께 남양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예전에 양부음을 즐겨 읊곤 했는데, 그가 사는 곳에 와룡강이라는 언덕이 있어 스스로 와룡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이분은 천하에 드문 기재이니, 주군께서 급히 직접 찾아가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분이 주군을 보좌해 준다면 천하가 안정되지 않을까 어찌 걱정하겠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예전에 수경 선생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복룡과 봉추 중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하는 이들이 바로 그 복룡과 봉추란 말ियो?"

서서가 말했다. "봉추는 양양의 방통이고, 복룡이 바로 제갈공명입니다."

유비가 펄쩍 뛰며 기뻐하며 말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복룡과 봉추에 관한 말을 알게 되었구려. 이토록 큰 현자가 바로 눈앞에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소. 선생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눈먼 사람이나 다름없었을 것이요!"

후대에 어떤 이가 서서가 떠나며 제갈량을 추천한 것을 찬양하며 지은 시가 있다.

"고현(서서)을 다시 만나지 못함이 한스러워, 길을 떠나며 눈물로 이별하니 정이 깊도다. 그가 남긴 짧은 한마디는 봄날의 천둥소리 같아, 남양에서 와룡을 일으켜 세웠네."

서서가 제갈량을 추천하고는 다시 유비와 작별한 뒤 말을 달려 떠났다. 유비는 서서가 남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사마덕조(수경 선생)의 말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나고 꿈에서 막 깬 듯한 기분이었다. 유비는 즉시 장수들을 이끌고 신야로 돌아가 정성껏 예물

을 준비한 뒤, 관우, 장비와 함께 제갈량을 모셔 오기 위해 남양으로 향했다.

한편, 서서는 유비와 헤어지면서도 자신을 붙잡아주던 유비의 애뜻한 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혹시라도 제갈량이 자신을 통해 유비를 돕는 것을 거절할까 걱정된 서서는, 말을 타고 와룡강까지 달려가 초가집으로 들어가 제갈량을 만났다. 제갈량이 찾아온 이유를 묻자 서서가 대답했다.

"저는 본래 유비 예주사를 모시려 했으나, 노모께서 조조에게 붙잡혀 급히 오라는 편지를 보내오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유비 예주사에게 공을 추천해 두었으니, 유비가 조만간 찾아가 볼 것입니다. 부디 공께서 거절하지 마시고, 평생 쌓아온 뛰어난 재능을 펼쳐 그를 도와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제갈량은 그 말을 듣고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그대는 나를 그저 제사에 바칠 희생물 정도로 생각하는가?" 말을 마친 제갈량은 소매를 휘저으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서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물러나, 곧장 말에 올라 허창에 계신 어머니를 뵈기 위해 길을 재촉했다.

친구를 위해 한마디 건넨 것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였고, 천리 길을 달려가는 것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였다.

과연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